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 학자대회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일 자 | 2016. 7. 7(목) ~ 10(일)

| 장 소 | 당진시청, 세한대 당진캠퍼스,
당진 및 내포지역

자료집1
전체회의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기조발표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

주제발표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환황해권 해양 신산업 발전 방안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 지중해'
동아시아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 관념

토론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 세부 프로그램

제1일차 <전체회의> 7월 7일(목) 13:30~18:2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당진시청 대강장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개 회 식

사회 : 김형서 (세한대학교)

13:30~14:00

- 개회사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강봉룡
- 환영사 : 당진시장 김홍장, 세한대 총장 이승훈
- 축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충남도지사 안희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
당진시의회의장

기조발표

사회 : 김형서 (세한대학교)

14:00~14:30

-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백제모델
- 발표 : 윤명철(동국대)

주제발표

사회 :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14:40~15:10

- [주제발표 1]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 발표 : 최미순(세한대) ●토론 : 김승진(선장, 팀 아라파니)

15:10~15:40

- [주제발표 2] 환황해권 해양 신산업 발전 방안
- 발표 : 강길모(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토론 : 임용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5:50~16:20

- [주제발표 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 지중해'
- 발표 : 권덕영(부산외대) ●토론 : 윤재운(대구대)

16:20~16:50

- [주제발표 4]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 관념
- 발표 : 이윤선(목포대) ●토론 : 정병모(경주대)

종합토론

17:00~18:20

- 좌장 :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참석 : 전체회의 발표자, 토론자

제2일차 <분과회의 및 융합토론> 7월 8일(금) 09:00~18:3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1관, 2관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오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09:00~12:00	[1분과] 고대 해상세력의 교류문화 ●좌장 : 박종기(국민대)	205호
	[3분과] 한일 간의 교역과 갈등 ●좌장 : 이근우(부경대)	206호
	[5분과] 도서해양 민속과 공연예술 ●좌장 : 송화섭(전주대)	207호
	[7분과] 어촌사회와 어로문화, 그리고 해양푸드 ●좌장 : 홍석준(목포대)	306호
	[9분과] 도서해양 생태자원 ●좌장 : 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307호
	[11분과-특별] 해양문화유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좌장 : 곽유석(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08호
	[13분과-특별] 대중국 교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좌장 : 오석민(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06호
	[15분과-특별] 당진항 활성화 (한국해운물류학회) ●좌장 : 이철영(한국해양대)	407호

오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13:30~16:30	[2분과] 항로와 해역, 그리고 경계 ●좌장 : 김보한(단국대)	205호
	[4분과] 도서 연안지역의 사회사 ●좌장 : 김동전(제주대)	206호
	[6분과] 도서해양의 문학적 형상과 언어문화 ●좌장 : 배정희(한국해양대)	207호
	[8분과] 도서해양 콘텐츠와 관광 ●좌장 : 김동현(청암대)	306호

오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13:30~16:30	[10분과] 도서해양의 법과 정책 ●좌장 : 김민영 (군산대)	307호
	[12분과-특별] 해양레저스포츠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좌장 : 이영오 (세한대)	308호
	[14분과-특별] 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당진항토문화연구소) ●좌장 : 이인화 (한국도량형박물관)	406호
	[16분과-특별] 화성 당성과 향해 실크로드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좌장 : 권덕영 (부산외국어대)	407호

융합토론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본부관(1관) 5층 대공연장

16:40~18:30	●좌장 :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발표 : 분과별 좌장
-------------	--------------------------------	--------------

제3일차 <내포지역 해양문화 답사> 7월 9일(토) 09:00~

- 대 주 제 : 현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태안·보령 일원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월 9일(토)

09:00-10:00	세한대 당진캠퍼스 → 굴포운하유적
10:00-11:00	굴포운하 답사
11:00-12:00	굴포운하 → 태안 안흥정터
12:00-12:40	안흥정터
12:40-13:40	맛있는 점심식사
13:40-14:00	식당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4:40-15:3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보존센터
15:00-16:00	태안보존센터 → 안면운하
16:00-16:30	안면운하
16:30-17:30	안면운하→충청수영성
17:30-18:30	충청수영성, 계급장군청덕비
18:30-19:30	맛있는 저녁식사
19:30-20:45	충청수영성 → 세한대 당진캠퍼스

제4일차 <당진 및 난지도 해양문화 답사> 7월 10일(일) 09:0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당진 일원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월 9일(일)

09:00-10:00	세한대 당진캠퍼스 → 도비도선착장
10:00-10:20	티케팅, 승선자 명단 작성
10:20-10:50	도비도선착장 → 소난지도
10:50-11:20	*항일의병총
11:20-11:50	소난지도→도비도선착장
11:50-13:00	맛있는 점심(도비도 선착장 근처)
13:00-13:50	도비도선착장→당진안국사지
13:50-14:40	당진안국사지 및 매항암각
14:40-15:10	당진안국사지→당진 무공사
15:10-15:40	당진 무공사(복지검장군 유적지)
15:40-16:20	당진 무공사→세한대 당진캠퍼스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2009년 목포에서 시작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삼척(2011년 2회), 여수(2012년 3회, 2013년 4회), 경주(2014년 5회), 목포(2015년 6회) 등지를 거쳐 이번에 충남 당진에서 7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7월 7일에 개최되어 우연히도 행운의 숫자 7이 세 개 모였으니 행운이 넘쳐흐르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간 해양문화학자대회를 통해서 발표된 해양 관련 논문은 약 1,000여 편에 달합니다. 이번 당진 대회는 전체회의와 16개 분과를 통해서 20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역대 최대의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행운의 대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회는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큰 주제를 내걸고 첫날 당진시청에서 전체 회의, 둘째 날 세한대에서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충남 내포지역의 해양 문화와 당진 난지도를 답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꾸몄습니다. 일부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는 당진시의 전격적인 지원 약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동참하고 충청남도도 후원에 가세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해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과 함께 대회를 이끌어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이번 대회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현지 대학인 세한대학교가 대회장과 숙소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해양재단도 후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각 분야의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바다와 섬을 소재로 삼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열린 학술 난장입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통해서 바다와 섬을 학문 연구에 끌어들이 욕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학문 연구의 풍토를 서서히 개선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2017년 8회 대회는 군산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 논의가 있습니다만, 개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큰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와 함께 차기 개최지가 정해지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양문화의 연구와 해양사상의 고취 및 확산을 위해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2016년 7월 7일

공동 개최 및 후원 기관들을 대표하여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장 강 봉 룡 배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장 김홍장입니다.

산과 들, 그리고 바다와 하늘 모두 각기 푸른빛을 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당진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를 주제로 하는 제7회 전국해양학자문화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기까지 많은 준비를 해주신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전국 도서해양 전문 연구자 여러분을 17만 당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09년 첫 개최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7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해양 연구자들이 각양각색의 해양 관련 주제를 총망라하며 그 범위와 깊이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학술대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로 발전하기까지에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하는 해양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함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오늘날 바다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식량과 물류,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생존과 번영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해양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이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40%를 바다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바다에 얼마나 많은 천연자원이 있는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대두한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맞아 서해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깨워 환황해 경제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신해양산업 육성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수도권을 잇는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기반으로 당진항을 동북아의 물류거점항만으로 키워나가는 동시에 김승진 선장의 요트세계일주 모험인 왜목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및 국제해양레저스포츠제전 유치로 대한민국의 해양레저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당진에서 개최되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서 풍성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당진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거듭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자대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당진시장 김 홍 장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를 당진에서 개최하도록 도움을 주신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김홍장 당진시장님, 강봉룡 도서문화연구원장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 그리고 학술토론의 장에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4일간에 걸쳐 학술토론과 인근 지역 답사, 그리고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가 준비한 해양스포츠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09년 목포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서해안시대의 다른 중심인 당진에서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환황해권을 경제 번영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평화의 무대로 그 효용성을 넓혀가는 충청남도의 도정 방향과 어우러져 특별한 의의가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와 세한대가 공동으로 귀한 손님맞이 채비를 하였으니, 열띤 학술토론의 장을 만 들어주시고, 고귀한 학술적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대학 당진캠퍼스에 머무시는 동안 단 한 점의 불편함도 없이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진에서 열리는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세한대학교 총장 이 승 훈

축 사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환황해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충남을 방문해 주신 해양 전문가 여러분과 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남도는 2012년 도 청사를 대전에서 내포(홍성·예산지역)로 이전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건도(建道) 충남」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등 환황해시대의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까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많은 갈등과 전쟁, 침략이 있었습니다. 황해 역시 제국주의 시기, 그리고 불과 수십 년 전 큰 전쟁의 시기까지 폭력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환황해지역은 평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중국의 문물은 황해를 건너 이곳 충남의 옛 나라인 백제에서 꽃을 피웠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져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황해는 한·중·일 고대 3국의 공동번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제 황해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세계시민으로서 하나로 이어진 우리가 이 바다를 통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광복절에 환황해지역을 돈과 사람, 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하나의 시장으로, 그리고 집단안보 체제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EU수준의 공동체로 구성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고대의 황해를 넘어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공동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풀어 나갈 것입니다.

충남은 환황해지역 ‘평화의 제도화’라는 목표 아래 이 지역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과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걸음인 환황해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내 지방의회와의 연합체 형성을 위한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충남에서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저명한 해양문화학자 여러분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충남의 해안을 답사하는 것은 우리 충남이 그리는 ‘아시아의 지중해, 황해’라는 미래상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바다가 평화와 번영의 공간, 즐거움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대회 준비에 애써 주신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축 사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입니다.

더위가 한창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뜨겁다고 하지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의 열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은 전 세계의 인류가 공유하는 총유의 자원으로서 지구적 잠재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세계가 경쟁적으로 해양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의 이용과 해양문화에 대해 집약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도 7회째를 맞는 시점에서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대주제로 항만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당진시에서 개최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진의 한자지명을 보면 당나라 唐, 나루 津으로 중국 산둥반도와 매우 가까워 일찍이 당나라와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 항만시설은 5천톤~20만톤 규모 35선석이 있으며 2015년 물동량 6931만7천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목마을에 중국 기업이 1150억규모의 마리나항만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등 항만과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렇듯 당진시민들의 항만과 해양관광의 욕구가 팽배한 가운데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을 발표하고 해양레저·스포츠·관광 거점 구축에 관한 방안, 해양신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니 참으로 기대됩니다.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해양문화를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주관과 주최를 담당할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국회의원 어 기 구

축 사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이끌어주신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과 이번 대회가 당진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주시고 주관해주신 충청남도 당진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재단 등의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제3회 대회부터 도서관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본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장해가고 있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볼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해양학자들은 역사, 문화, 과학, 경제, 정치,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해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해양시대, 해양문화강국으로 나가는데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대회가 역사시대의 국제 항구이자 신해양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당진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해양 미래의 원동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여기 참석한 많은 연구자들께서는 해양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대회를 단편적인 학문의 연구를 뛰어 넘어 다양한 시각에서 학문적 해안을 만들어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또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우리나라 해양문화연구의 마당으로 거듭나고 세계인의 해양문화학자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약하는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다시한번 이번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련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 귀 영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7회 전국해양문화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술회의 준비에 애써주신 전국해양문화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탐험가인 월터 롤리가 남긴 말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다는 세계 물류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해산물과 각종 자연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관광과 레포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항만과 해양관광물류의 개발은 인천과 부산, 제주 등 일부 도시의 전유물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중국을 비롯한 환황해권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지역의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술대회가 충남도내 각 시군의 공동 관심사인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전문가와 참석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과 열정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충남 무역항, 특히 당진항 발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의 빛나는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당진시의회 의장

축 사

오늘 이곳 충청남도 당진에서 전국에서 모인 해양학자들과 함께 환황해권 역사와 문화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충청남도는 백제로부터 시작해도 황해와 함께 천오백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일구워 왔고, 그에 앞서 선사시대를 아우르면 수 천년 동안 황해와 함께 생활 터전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역사적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바다 속 세계조차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알려주고 있어 충청남도는 황해를 둘러싸고 진행된 역사의 보물창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환황해권’은 충청남도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포함하여 황해 연안의 여러 도시와 지역들이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바다를 매개로 한 교류와 소통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단지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거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7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장 호 수

축 사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분들이 다함께 모이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 곳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고대 동아시아 해양 강국 백제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당진(唐津)은 그 지명이 말해 주듯이 중국 당나라와 교류했던 해상 교역의 관문이었습니다. 당진에 있는 또 다른 항구 한진(漢津) 역시 그 지명에서 이곳이 중국 한나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동안 냉전과 갈등의 바다였던 황해가 이제 다시 교류와 번영의 바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황해를 품고 있는 충청남도도 해양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해에 가까운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였고, 해양수산물 출범시켰으며, ‘해양건도, 환황해권의 새로운 중심지’라는 해양수산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진 또한 시대를 넘어서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황해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여러 지역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왜목 마리나항에 중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과 당진이 환황해 시대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철강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로 알려진 당진시가 해양도시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여 충남과 당진의 미래를 밝히는 좋은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국의 해양문화학자들께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님과 당진시 김홍장 시장님,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강봉룡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의 당진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전국에서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당진에서 행복한 3박 4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 자료집 1 목차

전체회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기조발표〉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 -백제모델 윤명철 동국대학교	36
〈주제발표1〉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최미순 세한대학교	53
〈주제발표2〉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방안 강길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0
〈주제발표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 지중해' 권덕영 부산외국어대학교	93
〈주제발표4〉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 관념 이윤선 목포대학교	105
〈토론문1〉 요트 세계일주를 통한 국가홍보 사례와 해양레저문화 활성화 방안 김승진 팀 아라파니	121
〈토론문2〉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임용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24
〈토론문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지중해'를 읽고 윤재운 대구대학교	126
〈토론문4〉 이윤선교수의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개념”에 대한 논평 정병모 경주대학교	128

● 자료집 2 목차

[Session 1] 고대 해상세력의 교류문화

장보고의 죽음과 (841년 11월의) 彗星 서영교 중원대학교	37
고대 탐라국 탄생 신화에 숨겨진 벽랑국 이해 채바다 고대항해탐험연구소	44
무령왕 탄생지 가카라시마에 대한 문헌적 탐색 니시미나오코 큐슈박물관	51
백제 무령왕이 태어난 일본의 섬은 어디인가? 우치다사유리·시바모토 타쿠미 큐슈박물관	58
금강 하구 나리포의 역사적 의미 곽장근 군산대학교	66
경북 동해안 감은사지 금당터 건축구조와 만파식적 설화 이병건 동원대학교	72
내포지역 백제부흥전쟁 연구 김학로 백제부흥전쟁기념사업회	78
왕건의 고려건국과 해양세력 강봉룡 목포대학교	84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충남지역 제해권 검토 김명진 경북대학교	92
고려시대 內浦地域의 佛教寺院 배상현 동서문물연구원	99
고려시기 해상교류의 성격-번성론과 소극론 박종기 국민대학교	105
선유도 고려시대 유적의 현황 조명일 군산대학교박물관	112
한국역사상 島嶼(섬)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도서(섬) 인문지리학을 통한 해양권역 연구 활성화 - 홍영의 국민대학교	119

● 자료집 2 목차

[Session 2] 항로와 해역, 그리고 경계

잇혀진 使行路 黃海南路의 역사적 의의 박영철 군산대학교	129
1323년 신안선의 항로 윤용혁 공주대학교	135
13세기 서해안 해참 분석 이종수 중앙대학교	139
임진왜란 초기해전의 연구 제장명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146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공수 한성일 부산대학교	152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 동향과 전망 한정훈 목포대학교	159
프랑스 선교사의 서해안 입국로 모색 김수태 충남대학교	165
서해 최대의 험지 안흥량과 굴포운하 문경호 대전과학고등학교	170
백제 백강과 백촌강 서정석 공주대학교	176
제주도 해안의 환해장성과 규슈 해안의 石壘의 역사적 고찰 김보한 단국대학교	181
동해안 주상절리 분포 실태와 활용방안 최재영 경주대학교	186
문명 간 교류 유형 비교연구 김정하 부산외국어대학교	195
환황해권 교류 탐색을 위한 예비적 고찰 임용덕 제주대학교	203

● 자료집 2 목차

[Session 3] 한일 간의 교역과 갈등

조선초기 대마도의 向化倭人 平道全 한문종 전북대학교	211
선조대 경인통신사의 상반된 보고와 그 대응 김 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6
조선후기 왜관통제와 교간사건의 처리 장순순 전북대학교	223
조선후기 대일무역과 구무(求貿)의 전개 이승민 동국대학교	233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공목(公木) 김영록 부산대학교	240
풍계 현정(楓溪賢正)의 『일본표해록』 항로 탐사 궁인창 생활문화아카데미	246
『해동제국기』의 「琉球國之圖」의 원본에 대하여 이근우 부경대학교	253
개항 전 일본의 조선연안 정보 입수와 해도 제작 및 활용 한철호 동국대학교	259
개항기 일본의 조선어업 침략과 부산주재 일본영사의 어민관리 최보영 동국대학교	267
총독부 관리가 증언한 조선의 수산업 김수희 영남대학교	274
방계현상과 바닷길 이소라 민족음악연구소	276
1920년대 지식인이 본 서남해 탁현진 목포대학교	283

● 자료집 2 목차

[Session 4] 도서 연안지역의 사회사

삼국시대 고분 출토 상어와 고고환경 김재홍 국민대학교	291
가야와 왜의 주형토기 및 고대 선박 고찰 이효웅 이사부기념사업회	296
지형학적 관점에서 본 도서지역 선사시대 주거지 입지변화 박지훈 공주대학교	302
고려시대 어민의 생활과 어량소 이정신 한남대학교	308
고려~조선시대 하천 제방에 대하여 차순철 동국문화연구원	315
토정이지함의 섬과 바다에 대한 공간인식 장용기 목포 MBC	322
조선후기 '해도진인설'의 의미 박상현 부산대학교	330
재일 제주인 '제주도 수산업개척 선각자' 박기만과 해녀들의 이주와 정착 김동전 제주대학교	336
근세 동아시아 어보의 역사 김문기 부경대학교	346
18~19세기 西海 島嶼住民의 거주 양태 임학성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355
일본인 염업기술자들이 전하는 식민지기 조선의 염업 류창호 인하대학교 박물관	361
천일염전 개발과정 분석을 통한 섬의 인문환경 연구 최성환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369
충남 당진군 삼화2리의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성격 이창섭 부산대학교	374

● 자료집 3 목차

[Session 5] 도서해양 민속과 공연예술

황해해양문화와 임경업 킬리콘텐츠 이창식 세명대학교	36
서남해안 해안표착형 돌배설화 연구 송화섭·김경미 전주대학교	37
환황해권 天主教 敎案으로 본 補儒論의 西學의 意義와 한계 김치완 제주대학교	48
해신이 된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역 강관순 선생의 딸 오문수 오마이뉴스	56
절걸궁으로서의 鳩聚와 바다 박흥주 곳연구소	62
남해군의 정월대보름 민속대축제 정의연 남해안역사문화연구소	64
해양왕국 고려시대 차문화 연구 정서경 목포대학교	72
카스피해 연안의 고대 민족과 문화 전통 김영술 전남대학교	77
환황해권에 부는 생명의 바람神, 영등 김승훈 제주대학교	83
개화기 인천의 일본 공연예술 고찰 신근영 고려대학교	89
개항장 원산에 설립된 지역극장과 운영에 관한 연구 김남석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95
한반도 해역의 구분과 문화권역의 전개 홍순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99
해양 실크로드와 악기의 전파 전인평 중앙대학교	107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음악교류 김정예 서울시립대학교	113

● 자료집 3 목차

[Session 6] 도서해양의 문학적 형상과 언어문화

비네타, 발트해의 사라진 도시의 전설 배정희 한국해양대학교	120
『모비딕』에 나타난 포경선의 세계일주 항로로 본 19세기 태평양의 정치적 상황 김낙현 한국해양대학교	126
문무대왕릉에서 발견 했다는 ‘원효결서’ 의 정체 장정태 동국대학교	133
역사인물 홍가와라와 「홍길동전」을 통해 본 해양문화의 세계 설성경 연세대학교	140
김상헌의 제주 체험과 제주에 대한 인식 김기림 조선대학교	147
〈최척전〉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이채경 성균관대학교	154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나는 ‘바다’ 이미지 및 인식 연구 김미령 조선대학교	163
최인훈 소설 〈颱風〉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연구 박해랑 성신여자대학교	170
한국 노래가사에 나타난 해양문학의 의미 정석원 부산대학교	177
완도군 금일의 해양 지명어 ‘모리’ 조미라 목포대학교	180
보길도(甫吉島) 격자봉(格紫峰, 430.3m) 천기철 한국사진작가협회	187
‘소래’ 포구의 어원에 대하여 손희하 전남대학교	193

● 자료집 3 목차

[Session 7] 어촌사회와 어로문화, 그리고 해양푸드

문서를 통해 본 염전과 염부이야기 김경옥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
어업민속의 지역성 권삼문 여헌기념관	208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 박혜영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14
1990년대 초 보령 무창포의 어촌생활 신용희 금강뉴스	222
미륵도 풍화리 위당계(慰堂契)의 운영 이혜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29
여수해역 하계 수산물 보양식 4선 임여호 한국수산회	235
화성시 갯벌지역 어업민속과 전통지식 편성철 목포대학교	238
경기 아산만 하구의 정치 어구와 그 특징 오창현 국립민속박물관	251
마을어장 공유의 공식화와 전통적 운영방식의 지속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57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서해의 어업 전진 기지 어청도 이재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65
오징어의 모든 것 : 오징어를 소재로 한 푸드아트테라피 이정연 목포대학교	271
동양 전통 氣味論에 기초한 해양식품의 食治활용 연구 박성혜 광주여자대학교	278
‘섬의 인문학’ 주창과 ‘도서해양문화학’ 정립을 위한 제언 홍석준 목포대학교	284
김 양식업의 기술발달이 어촌사회에 미친 영향 최홍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94
해녀 어업의 전승과 인식 변화 이유리 목포대학교	300

● 자료집 3 목차

[Session 8] 도서해양 콘텐츠와 관광

생 자크 조가비 콩포스텔라의 순레코드와 문화생산 코드 선미라 이화여자대학교	308
『하멜표류기』에 의한 관광문화산업의 허와 실 이영란 조선대학교	313
전남서남권 무인도서의 관광활성화 방안 김형서 세한대학교	322
제주 - 완도 연계 해상관광특구 조성 방안 황상석 장보고글로벌재단	330
도서해양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적 활용 곽수경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336
경남 사천 ‘지역문화로서의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안영숙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소	342
신라방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박재완 남도 마실길	349
장보고의 티-세라믹로드에 대한 고찰 김대호 중국 광서사범대학교	355
한국근대해양선박여행의 정치적 심상지리 차혜영 한양대학교	359
전통소금 ‘자염(煮鹽)’의 복원과 활용사례 정지수 태안문화원	366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여수시 낭도의 자연관찰로 개발 이정훈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371
남해안 다도해섬 개발과 마리나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현 청암대학교	377

● 자료집 4 목차

[Session 9] 도서해양 생태자원

기후변화와 매립에 의한 경기만의 기초생태 변화 최중기 인하대학교	36
기후변화에 따른 함평만 염생식물 생장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이점숙 군산대학교	40
해안사구에서 식물 생장 및 생리적 반응을 적용한 외래식물 관리방안 명현호 국립공원연구원	42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경관 변화 박정원 국립공원연구원	45
태안해안국립공원 북부지역 해빈의 계절적 변화 장성건 국립공원연구원	53
신안군 수개 도서의 염생식물 분포 특성 양효식 목포대학교	60
해양쓰레기와 해양생물 피해 특성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	64
전남 신안군 지역의 교량 건설과 토지이용에 따른 경관구조 김재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68
H.S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해안선 잔존유정의 변화 김진석 국립공원연구원	74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의 외래식물 관리 오장근 국립공원연구원	80
해양보호지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 최종관 국립공원연구원	85
연륙교 건설에 따른 어촌 공동체와 지역정체성의 변화 이경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88
신안군 자은면 도서자생식물을 활용한 테마공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95

● 자료집 4 목차

[Session 10] 도서해양의 법과 정책

세월호 사건으로 영향 받은 국내법제와 내용 연구	104
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국내 해양사고의 특성 분석	111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의 도서 관리 동향	115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수 목적 무인도서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120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보는 한국의 견해	126
김영주 독도조사연구학회	
독도교육,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	129
최홍길 선정고등학교	
전남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근무장소에 따른 특성의 차이	134
조유향 초당대학교	
『섬』 정의(定義)의 혼선과 정립에 관한 고찰	139
신순호 목포대학교	
군산항 관련 사진·통계자료의 현황과 연구방향	145
김민영 군산대학교	
연태항의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한중경제의 신기회	150
김덕수 중국절강해양대학	

● 자료집 4 목차

[Session 11] 특별-해양문화유산

국립어업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전시 방향 곽유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57
조선통신사선 원형복원을 위한 추정설계 홍순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3
3D스캐닝을 활용한 고선박 선형복원 강원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9
수중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기본적 법률 및 관리체계 정용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75
수중 출수 금속문화재의 물리적 클리닝 적용 실험 연구 김서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79
『세계의 배』 역사 전시 구성의 사례 진호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84
고려 삼별초 유형 일고찰 윤형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88
신안선 유물 출수 양상의 고고학적 검토 조진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92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해양문화유산조사 수습 도자기의 현황과 성격 김애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97
역사기록 속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신미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4

● 자료집 4 목차

[Session 12] 특별-해양레저스포츠

“원동컵” 국제범선경기 왕보기 청도범선협회	212
남한강 수변 레저스포츠 시설 활성화 방안 고재곤 여주대학교	213
해수변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주성택 경희대학교	220
수변지역 선진사례 박창욱 여주대학교	221
수변지역 체육시설 활용방안 이용수 여주대학교	222
한국의 해양스포츠 연안산업발전의 대표적 저해요인 류효정 (주)라라마린아카데미	223
해양레저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홍석호 성결대학교	228
수도권 주민 ‘생존수영’의 장으로서 한강 활용에 관하여 박진 서울여자대학교	232
해양 수상스키 쇼의 초대 박정수 한서대학교	235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 박종욱 세한대학교	245
스킨스쿠버시설과 장소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 유동균 세한대학교	242
마리나 시설의 범죄안전을 위한 셉테드(CPTED)적용방안 함주일 대구과학대학교	246
해양레포츠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규길 세한대학교	250
생활체육으로서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모색 김영주 세한대학교	251
해양레저스포츠안전관리 이영오 세한대학교	264
스포츠권의 법리 심재영 세한대학교	268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3] 특별-대중국 교류

한중FTA가 충남농림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강마야 충남연구원	36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박경철 충남연구원	43
서해안 어업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종화 충남연구원	49
중국의 남색경제정책 추진동향 박인성 충남연구원	55
중국인 유치를 위한 충남차이나벨트 조성방향 송두범 충남연구원	65
‘한류’의 산업적 의미 홍원표 충남연구원	70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해양실크로드 발전 방안 강희정 한밭대학교	75
전파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관계 오석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6
백제의 관음신앙과 바다길 이경복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87
남송 학인 정신보의 고려 이거경위와 그 의미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94
조선 천주교의 서양 교류 김정환 교회사연구소	100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4] 특별-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내포-대중국 교류의 창(窓) 김추윤 신한대학교	108
백제 신라시대 서산지방의 해양문화사 이은우 충청문화연구소	118
천혜의 관광지 안면도의 발전과 미래 정우영 태안향토문화연구소	127
보령 외연도 동제의 변화과정 황의호 보령향토문화연구소	132
개신교 성경 최초 전래지 서천 마량진 갈곶(葛串)과 그 활용 방안 유승광 공주대학교	141
당진 해안의 어촌 민속 이인화 한국도량형박물관	147
내포(마한)지방의 문화와 서해 박태신 예산향토문화연구소	156
당진 동학농민혁명과 승전목 전투 김영곤 당진역사문화연구소	162
황해 근대 해양문학의 한 검토 김영미 공주대학교	169
白魚, 白小魚에 대한 고찰 정 일 목포대학교	176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5] 특별-당진항 활성화

항만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186
노홍승 한국교통연구원	
당진시와 당진항의 상생발전 전략	203
박창호 인천재능대학교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214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과제	232
강상곤 영진공사 기획실	

● 자료집 5 목차

[Session 16] 특별-화성 당성과 항해 실크로드

당성과 한반도의 실크로드 배기동 한양대학교	262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실크로드 길 팀 윌리엄 런던대학교	268
화성 당성 제3차 발굴조사의 성과와 전망 김기룡 한양대문화재연구소	270
성곽유적의 정비와 복원 이화중 고려문화재연구원	277
당성 출토 명문기와와 중국자기의 의미 이상현 한양대문화재연구소	285
한반도 중부지방의 신라성과 한강유역 복진로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소	291
서안에서 산둥까지의 길과 문화흐름의 기록 정일교 수원여자대학교	299
당성의 고대문헌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다학문적 연구 필요성 김성일 · 이병준 한양대문화재연구소	304
중국과 한반도의 해상 실크로드 모이다 링보박물관	313
《管子》“发、朝鮮之文皮”의 고고학적 탐색 왕 청 산둥대학교	320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상의 제사유적 임효재 서울대학교	341
청해진 발굴성과와 장보고의 해상활동 조유전 前국립문화재연구소	348
동아시아 결상이식 분포와 교류관계 마쓰우라 유이치로 동경국립박물관	354



전체회의

기조발표 / 주제발표 / 토론

〈기조발표〉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	윤명철 동국대학교
〈주제발표1〉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최미순 세한대학교
〈주제발표2〉 환황해권 해양 신산업 발전 방안	강길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제발표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 지중해'	권덕영 부산외국어대학교
〈주제발표4〉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 관념	이윤선 목포대학교
〈토론문1〉 요트 세계일주를 통한 국가홍보 사례와 해양레저문화 활성화 방안	김승진 해양모험가 팀아라파니 대표
〈토론문2〉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임용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토론문3〉 동아시아의 역사 공간 '황해지중해'를 읽고	윤재운 대구대학교
〈토론문4〉 이윤선교수의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개념”에 대한 논평	정병모 경주대학교 교수



환황해권의 해양 역사상과 발전정책

— 백제 모델

윤 명 철 ■ 동국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국제질서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강대국들은 세계주의라는 규모가 커지고 문명을 빙자한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무차별적인 무역과 광범위한 통신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경제행위를 통해 거대한 규모와 치밀한 시스템을 갖춘 세계경제가 출현하고, 세계시장은 숨 가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의 발달로 인하여 ‘불가촉’·‘미확정성’의 상황에 처해있다. 환경의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현상으로 인하여 인간을 넘어서 이제는 지구 자체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거시사’¹⁾·‘세계학(world studies)’²⁾·‘인류미래사’·‘빅히스토리(Big history)’³⁾에서 보이듯 인식은 물론 ‘지구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대이다.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물론이고 매체인 ‘기호(code)’의

1) 요한 갈통·소하일 이나야톨라 편저·노영숙 옮김, 『미래를 보는 거시사의 세계』, 우물이 있는 집, 2005. 데이비드 크리스천 지음·김서형·김용우 옮김, 『세계사의 새로운 대안 거대사』, 서해문집, 2009. 오스카 할레키, 『유럽사의 境界와 區分』, 탐구당, 1993.

2) w. 워런 와거 지음·이순호 옮김, 『인류의 미래사』, 교양인, 2006.

3) 데이비드 켈스천, 밥 베인 지음·조지형 옮김, 『빅히스토리(Big History)』, 해나무, 2013. 등

4) 1, 월레스타인,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1, 월레스타인, 지음, 김인중 이동기 옮김, 『근대세계체제, 1 2 3 까지』, 2013. 앤소니 기든스, 한상진 박찬욱 옮김, 『제 3의 길』, 책과 함께, 2104. 새뮤얼 헌팅턴 지음,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2016. 엘빈 토플러 이규행 옮김, 『권력 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990. 그렉 클라이즈데일, 김유신 역, 『부의 이동』, (주)21세기 북스, 2008. 조지 프리드먼 저·김홍래 역, 『넥스트 디케이드』, 쌤앤파커스, 2011. 니얼 퍼거슨 지음·구세희·김정희 옮김, 『시빌라이제이션』, 21세기북스, 2011.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강주현 옮김, 『어제까지의 세계』, 김영사, 2013. 기타

확장이 예측 불가능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와 문명을 바라보는 視座構造(focal-shift)와 기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⁵⁾

21세기 전반부는 정치와 군사를 위주로 하는 ‘단절과 폐쇄의 시대’에서 문화와 경제의 역할이 증대하는 ‘개방과 만남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경제행위를 통해서 세계화(globalization)⁶⁾와 지역화(regionalization)가 동시에 추진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한편 물류통로 및 해양자원으로서 해양의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고, 정치 군사적인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해양영토를 확보하려는 경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명분의 확보와 이론적 근거 작업으로서 역사갈등도 발생하고 있다.⁷⁾ 이렇게 해양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가능한 한 많이 갖는 일이다. 필자는 ‘東亞地中海(EastAsian-mediterranean-sea)’ 모델을 설정하여 동아시아의 역사상을 해양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왔고, 미래적 발전 좌표를 찾고 있다.

동아시아⁸⁾의 역사는 해양과 직접 관련되어 발전해왔다. 해양활동이 활발하고 해양을 활용하는 방식과 성과에 따라서 국가의 발전과 흥망이 영향을 받았다. 동아지중해의 핵은 황해(서해)이다. 한반도의 지형상 대부분의 강은 서해로 흘러들고 이는 물류망 및 농경 그리고 국제질서와 직결된다. 중국 지역 및 일본열도, 나아가 오키나와 등을 비롯한 외국과 교류하는 유일한 수단과 통로는 해양이다. 특히 중국지역과의 교류는 황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큰 강들도 황해로 들어오고, 특히 개혁 개방은 연해개방지구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도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황해는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영역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황해를 이용하려는 다양

5) 빌 브라이슨 지음 이덕환 옮김,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까치, 2007 제임스 E. 매클렐란 3세 지음, 전대호 옮김, 『과학과 기술로 본 세계사 강의』, 모티브, 2006년 02월 앤서니 기든스 지음, 홍옥희 옮김, 『기후변화의 정치학』, 에코리브르, 2009. 유소민 지음, 박기수 외 옮김, 『기후의 반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앨프리드 W. 크로스비 저. 안효상, 정범진 역. 『생태 제국주의』, 지식의 풍경, 2002. 하워드 오덤 지음, 박석순·강대석 옮김, 『시스템 생태학 1』, 도서출판 아르케, 2000. 브라이언 페이건, 『완벽한 빙하시대(Ice age)』, 푸른길, 2011. 이시 히로유키, 야스다요시노리, 유아사 다케오 지음, 이하준 옮김,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경당, 2003. 루이스 메모드 지음, 김문환 옮김, 『예술과 기술』, (주)민음사, 1999. 엘리안 스트로스베르 지음, 김승운 옮김, 『예술과 과학』, 을유문화사, 2002. 이인식 지음, 『지식의 대융합』 고즈원, 2008년 10월. 기타

6) 이용어의 발생과 변천과정 및 논쟁에 관하여는 앤드루 존스 지음, 이가람 옮김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원제, GLOBALIZATION: Key Thinkers)』, 동녘 2013, 9. 참고.

7)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롯한 각종의 역사갈등이 있다. 윤명철, 「동북공정의 배경과 21세기 동아시아 신 질서의 구축」, 『단군학 연구』 10호, 단군학회, 2004. 윤명철, 「『東北工程』의 歷史外的인 문제와 韓民族役割論」, 『인문학논총』 제12집 1호, 경성대학교, 2007. 영토갈등의 구체적인 상황 및 배경과 해소 대안에 대해서는 윤명철, 「동아시아의 역사갈등과 영토분쟁 해소를 위한 공동체 모델」, 『아시아연구』, 제 19권 1호, 한국아시아학회, 2016. 참조.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林建彦. 阿部洋 역음, 삼민사 편집부 옮김, 『일본인의 한국사 인식』, 삼민사, 1994.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편, 『한국지성의 소리 1』, 역사비평사, 2002. 기타

8) 동아시아와 동양을 혼동하고 사용하고 있다. 東洋이라는 단어는 오리엔트 또는 오리엔탈리즘과 무관하게 존재했고 사용되어 왔다. 중국역사에서 해양을 중요하게 여겼고, 국가적으로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시도하던 시대가 있었다. 송을 거쳐 원나라시대에는 현재 동남아시아의 바다를 동양이라고 불렀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은 서구인들의 오리엔트를 동양이라고 번역했다. 그 후 동양은 오리엔트 또는 오리엔탈리즘과 혼합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의 개념 및 역사적인 담론에 대한 연구서들은 필자의 논문 참고,

한 계획들을 입안하고 실천해왔다. 거기에 먼저 출발한 경기만과 전라남도에 이어 충청도가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역사는 현재나 미래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공간이 가진 地政學的 地經學的 地文學的 성격을 토대로 발생했던 사건들의 분석을 하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한민족의 역사상에서 충청도를 국가의 활동공간으로 삼고 발전을 이룩한 정치체는 백제이다. 백제는 국가의 발전과 쇠퇴, 심지어는 멸망까지도 황해의 이용과 연관되었다. 본고는 해양과 관련하여 백제의 발전 국가정책 등 다양한 연관성을 찾고, 이 작업을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작업이다.

2. 현재의 황해

중국은 1980년도 이후에 경제특구 정책 활용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연착륙시켰다. 등소평이 추진한 경제특구 전략은 해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⁹⁾ 즉 秦나라 漢나라 梁나라 隋나라 唐나라 등이 추진한 남방무역 거점의 장악과 서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무역망의 개설 및 확장과의 관련이 있다. 중국은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총생산(GDP)이 1조 4,123억 달러로서 2012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 2위 자리에 진입하였다. 2014年은 경제성장률이 7.4%이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협력기구(上海合作组织, SCO)、APEC、ASEM 등의 국제기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화교들을 네트워크화시키고 있다. 이어 동남아시아는 기존의 바트(태국 화폐)경제권을 편입시키는데 이어 위엔화를 비록 기축통화에는 못 미치지만 3대 통화의 하나가 만들어 금융권마저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세계질서에서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Rule taker’에서 ‘Rule maker’로 변화하는 것이다. 2013년 가을에는 대규모 경제협력전략인 ‘一帶一路’ 전략을 공표하였는데, 일대(一帶)는 시안에서 우루무치, 이스탄불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며, 일로(一路)는 푸저우, 광저우를 거쳐 싱가포르, 콜카타와 나이로비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후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유라시아 전반에 걸친 대(大)중화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국제 다자개발은행(NDB : 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을 창설하였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元나라 쿠빌라이칸 때 추진한 일종의 아시아 海陸政策의 일환처럼 보인다. 과거 사용되었던 ‘실크의 길’ ‘도자기의 길’ ‘차의 길’을 연장하고 확장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C형 포위망’ 전략을 구상하여 중앙아시아-서남아시아-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를 잇는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였는데,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참여를 유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9) 윤명철, 『장수왕 장보고 그들에게 길을 묻다』, 포름, 2006 윤명철 「장보고의 해양활동과 국제관계」 『해양정책 연구』 16,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장보고를 통해서 본 경제특구의 역사적 교훈과 가능성」(남덕우 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2001. 기타

가 결성되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이어 무려 57개국이참여한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결성하였다.¹⁰⁾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영토갈등과 영토분쟁이 6~7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해양과 관련이 깊다. 중국과 일본은 대만의 서북쪽 해상에 있는 몇 개 암초인 센카쿠(尖角, 중국명, 釣魚島)를 놓고 일촉즉발의 상태를 벌이고 있다. 2010, 9, 8일에도 사소한 충돌이 있었고, 지금도 갈등이 있다. 이 분쟁은 자존심,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조약이라는 과거 일본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 측의 불인정, 막대한 양으로 추정되는 천연가스 등 자원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에너지와 무역품 등 물류를 수송하는 해로의 안정성 문제이다. 그 뿐 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로 한일과 복잡한 상태이고, 2012년 이후 공식적으로 이어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국가해양국장은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발언하면서 재차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한편 南沙群島 西沙群島에서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해양영토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유를 비롯하여 수출입물동량의 99.3%이상이 바다를 통해서 운송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군사력, 특히 해군력 증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해양강국을 선언하면서 군사력을 급팽창시키고 있다.



[그림 1] “一带一路”建設与国内经济的联动



[그림 2] “일대一路”건설与国内经济的

이에 맞서 미국은 동아시아 회귀정책을 구사하면서 해양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잡해지는 정치 군사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제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고 미묘한 성격의 관계를 맺고 있다. 양 국은 항해를 이용해서 오고가는 물류시스템 가운데에서 ‘항로의 확보와 항만의 선점’을 놓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의 양산항 1부두를 완성했고,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육지와 30km 떨어진 섬에 동태대교를 건설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물동량 처리 세계 3위인 상하이를 세계 1위로 끌어올리는 대

10)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중국 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 (联合发布), 2015년 3월 28일,

역사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한국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부산 신항과 광양항을 건설해도, 또 인천항과 울산항을 포함시켜도 경쟁인 양산항과 선전항에 비하면 여전히 불리하다.¹¹⁾

여기에 황해경제자유무역(YESFEZ)지대와 당진항의 문제가 있다. 북한은 2002년에 신의주 경제특구전략을 발표했다가 중국의 압력을 받고 철회하였다. 최근에 압록강과 황해가 만나는 비단섬을 공동으로 경제특구화 시키겠다고 하였다. 물론 중국의 양해와 협조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2006년 4월에 북한과 함께 두만강 하구인 나진 선봉(나선시)를 50년 동안 공동관리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3. 역사속의 황해 - 백제를 중심으로

1) 동아시아중해 모델과 역사 문화

필자는 역사의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터’와 ‘多核(field & multi-core)이론’ 속에서 전개하고 있다. 역사적인 상황 과 함께 자연환경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며, 그에 따라 동아시아를 해양과 대륙을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보는 ‘東亞地中海(EastAsian -mediterranean-sea)’라는 모델 ‘海陸史觀’¹²⁾ ‘環流시스템’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넓은 지역 또는 도시 그리고 도시생성의 요인인 航路의 발생과 사용 등도 해당한다. 그리고 이 이론 속에서는 몇몇 국가들은 드물면서 독특하게 대륙과 해양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터’ 속에서 생성하고 발전한 海陸國家임을 주장해왔다.¹³⁾ 또한 그 국가들의 수도 및 대도시는 자연환경, 역사적인 계승성,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로서 海陸적 성격과 기능을 갖춘 都市를 건설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동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하단부에 자리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축(core)으로 하면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는 광대한 넓이의 동해와 비교적 폭이 좁고, 넓지 않은 남해가 있고,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는 황해라는 내해(inland-sea)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제주도 포함)와 일본열도의 서부(큐슈지역), 그리고 중국의 남부지역(양자강 이남에서 복건성 지역을 통상 남부지역으로 한다.)은 이른바 동중국해를 매개로 연결되고 있다. 지금의 연해주 및 북방, 캄차카 등도 동해 연안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고 있으며, 타타르해를 통해서 두만강 유역 및 연해주지역과 건너편의 사할린·홋카이도 또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해양을 포함한 자연지리적인 환경의 영향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북방과 중국에서 뻗어오는 대륙적인 질서(유목문화, 농목문화, 수렵삼림 문화 등을 공유하고 있다.)와 남방에서 올

11) 부산항이 최근 3%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상하에 선전은 각각 24% 19%이 성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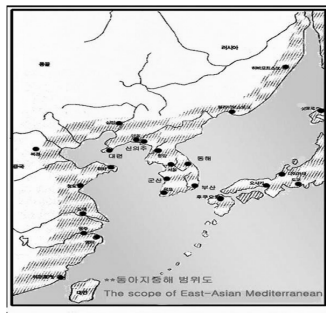
12) 윤명철, 『海洋史觀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발전과 종언』, 『한국사연구』 제123호, 한국사연구, 2003. 윤명철, 『한국사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제언』, 『한국사학사학회보』 제9집, 한국사학사학회, 2004.3. 윤명철, 『한국 고대사 연구의 반성과 대안』, 『단군학 연구』 제11, 단군학회, 2004.9 참조.

13)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 2012. 윤명철, 『해양활동과 사관의 이해』(『윤명철 해양논문선집 6권』), 학연문화사, 2012.

라가는 해양적 질서(해양문화, 남방문화)가 만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각 지역 간에 일어났던 교류는 주로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역사상은 땅과 초원 바다를 각각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해륙사관으로 해석해야 그 성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동아지중해(東亞地中海, EastAsian-mediterranean-sea)’ 모델이 그것이다.¹⁴⁾

해양문화권에서는 문화교류의 기본이 되는 인간의 이동이 비조직적이고 불연속적이므로 육지 질서보다도 더 정치경제로부터 자유롭다.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더욱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여러 지역과 국가들이 동시에 만날 수 있으므로 교류의 대상들이 다양하다. 즉 바다를 가운데 두고 바다주변의 주민과 문화는 상호영향을 주는 環流시스템을 이루고 있었다.

地理政治的(geo-politics)으로 수 천 년 동안 협력과 경쟁, 갈등과 정복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역사활동권을 이루어왔다. 한 정치체의 운명은 반드시 주변의 다른 정치체들의 운명과 연동되어 변할 수밖에 없었다. 地理經濟的(geo-economic)으로도 상호필요한 존재로 인식해왔다. 자연환경이 구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서로 간에는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교역품들은 필요의 원칙에 따라 정치력과는 무관하게 이동을 한다. 강력하지는 않지만 느슨한 형태의 교역권이 주로 해양을 통해서 역사의 초창기부터 생성되었다. 地理文化的(geo-cultural)으로도 문화의 공유범위가 넓었다. 정치제도, 경제양식, 문화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았으며, 종족과 언어의 유사성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화의 유사성 때문에 외부세계에서는 이 지역을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보기도 하였다. 地理心理的(geo-mentality)으로도 내부의 구성원들은 유사한 자연환경이 지닌 유사한 정서와 사유 때문에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졌고, 공감대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유교 불교 등 종교현상뿐 만 아니라 건축 문학 회화 조각 등 예술 등도 共質性을 띄우고 있다. 특히 지중해는 이러한 특성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외부세계에서는 이 지역을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보기도 하였다. 즉 공존 공생 공영의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동아지중해의 범위도

14) ‘윤명철 『東亞地中海와 古代日本』, 청노루, 1996 ; 『張保皋 시대의 해양활동과 東亞地中海』, 학연문화사, 2002 ; 『韓民族의 해양활동과 東亞地中海』, 학연문화사, 2002 ; 『高句麗 海洋史 研究』, 사계절, 2003 ;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사계절, 2003 ; 『韓國 海洋史』, 학연문화사, 2003. 기타

특히 황해는 중국과 한반도의 서부해안 전체, 滿洲南部의 遼東地方을 하나로 연결하고 隣接各國들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터(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內海(inland-sea)로서 국부적인 연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환경이므로 역사활동도 연관성을 지닌 채 이루어진다. 따라서 황해와 연관된 해양환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황해는 평균 44m로서 일반적으로 수심이 낮고 해안선이 복잡한데다 발달된 灣과 섬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파도가 하고 리아스식 해안이 많아 유사시 대피할 항구가 많다. 또한 황해에 영향을 이끼치는 계절풍의 편중성도 약하고, 또한 황해 거리가 짧아 局地風을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황해 시기나 항로가 비교적 다양하다. 근처에 발달된 섬들은 바다 멀리 진출할 수 있게 하여 해양의 활동범위를 넓혀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징검다리로서 해양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혹은 간접접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즉 近海航海의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안 지역의 사람들은 공식 비공식으로 교류가 빈번했다. 또한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2) 동아시아 역사 속의 황해

동아지중해에는 산둥 요동 압록강 하구 유역을 중심으로 5000~7000년 전 사이부터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하여 지역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반도와 대마도 일본열도 간에도 7000 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교류가 있어왔다.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에도 연안항해나 근해항해를 통해서 중국 각 연안지역간의 교류 혹은 한반도 북부해안 및 중부이남간의 교류가 있었음은 지적되고 있다. 錦江 유역의 청동기 문화권은 해양과 관련하여 관심을 끈다.¹⁵⁾ 한반도 서해안지역은 선사시대부터 몇 군데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 중의 하나로서 瑞山 泰安 唐津 牙山 등을 포함한 터가 있다. 이를 ‘內浦문화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¹⁶⁾

古朝鮮은 요동반도와 西韓灣, 대동강 하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문화가 발달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 산동의 齊 등과 해양무역을 본격적으로 벌였다. 월인들은 한반도까지 진출하면서 교역에 종사했을 가능성은 많다.¹⁷⁾ 秦은 전국을 통일한 후에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 해양활동도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졌다. 徐福이 파견되었고,¹⁸⁾ 東夷人들은 황해를 건너와 토착주민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문화와 정치세력을 결성했고, 황해 전체를 이어주는 활동권, 무역권을 만들었을 것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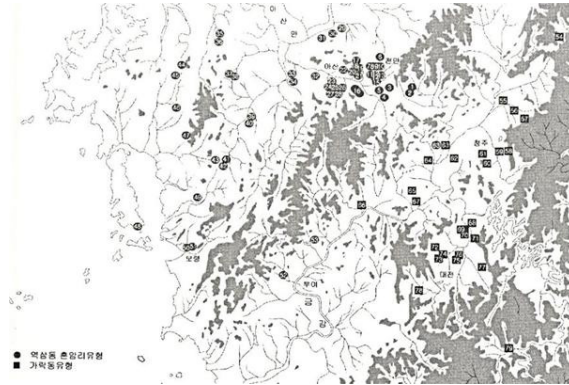
15) 전영래의 錦江文化圈은 「韓國青銅器文化의 研究—錦江流域圈을 中心으로—」, 『마·백』 6, 및 「錦江流域 青銅器 文化圈 新資料」, 『마·백』 10.

16) 李重煥, (1690~1756)은 「澤里志」충청도 부분에서 삼교천의 서쪽 가야산 앞과 뒤쪽에 있는 10개 고을 즉, 당진(唐津), 면천(沔川), 덕산(德山), 해미(海美), 서산(瑞山), 태안(泰安), 결성(結成), 홍주(洪州), 대흥(大興), 보령(保寧)을 내포지방이라고 불렀다. (당진군, 『唐津郡誌』 상권, 지리·역사·행정·정치, 1997, 7쪽. 이남석, 「당진지역 발굴유적의 성격과 문화적 특성」, 『고고자료를 통해 본 당진의 역사적 성격』,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당진문화원, 2012.8.24, 15쪽) '內浦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후미진 부분에 해당한다. 내포의 교통로는 곳곳에 발달한 포구를 이용한 수로가 중심이었다.

17) 岡田英弘, 『倭人とシルクロード』, 『東アジアの古代文化』, 大和書房, 1978, p.7

18) 윤명철, 「서북의 해상활동에 대한 연구-항로를 중심으로-」,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19) 윤명철, 「黃海의 地中海的 性格研究」, 『韓中文化交流와 南方海路』, 국학자료원, 1997



[그림 4] 호서지역 청동기 시대 전기 유적 분포 (나건주, 2009)

기원전 2세기 초, 조선의 말왕인 準王은 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긴 채 바닷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마한을 공격하여 韓王이 되었다. 그 후에 漢나라의 동방진출과 경제권의 확대는 衛滿朝鮮의 성장과 충돌하므로써 황해북부 해양권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했다.²⁰⁾

한편 한반도 남부의 주민들은 해류나 조류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바다를 건너 대거 일본열도에 상륙했다. 마한전에서는 州胡가 배를 타고 왕래를 하면서 韓의 國中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고 하였다.

제주도의 山地港에서 貨泉 大泉五十 貨布 銅鏡 등이 발견되었다. 해남의 군곡리 패총, 김해 패총, 다호리 유적, 마산의 城山패총, 삼천포의 勒島패총 등에서도 비슷한 시대의 화폐들이 발견되었다. 일본열도 등지에서도 유사한 시대의 화폐들이 발견됐다.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유물로 보아 황해를 가운데 두고 무역활동은 활발했다.²¹⁾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環黃海 전체를 하나의 원(circle)으로 연결하는 권이 형성되었고, 해안가의 유적지들은 일종의 해항도시였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해양문화를 발달시켜 정치 외교적인 활동을 하였고, 무역역과 교류를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갔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국의 여러 지역과 관계를 맺으면서 전형적인 내륙농경문화와 해양 국제문화가 조우하는 공간이 충청도이고,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성공한 나라가 백제이다.

3) 백제 역사속의 황해

백제는 정착과정에서도 해양과 관련이 깊었다.²²⁾ 전기의 수도였던 河南 慰禮城(風納토성으로 추정) 등은 일종의 ‘河港도시’였다. 비류는 현재의 인천으로 추정되는 海濱(미추홀)로 가서 일종의 海港都市를 건설하였다. 『倭書』에 따르면 3세기 전반인 277년에 新彌國(영산강 유역으로 추정)등 마한의 29개 소국이 西晉과 교섭한다. 마한은 280년 부터 10년까지 10

20) 윤명철, 「黃海文化圈의 形成과 海洋活動에 대한 연구」, 『先史와 古代』, 한국고대학회, 1998.12.

21) 王仲殊 著, 桐本東太 譯, 『中國からみた古代日本』, 學生社, 1992.

22) 윤명철, 「沸流集團의 移動過程과 定着에 대한 검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2.

년 동안 5회 이상 사신을 파견하였다.

유적들을 통해서 추론한다면 충청 지역은 마한의 54개 소국 중에서 15개 정도가 자리잡고 있었다.²³⁾ 이때 쥘과 교역한 마한을 백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⁴⁾ 소위 ‘삼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해양문화는 더욱 발달하였고, 해양이 역사발전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근초고왕 때 백제는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와 교류했고, 372년부터 황해를 횡단 또는 사단하여 양자강 하구인 建康(현 南京)에 수도를 둔 東晉과 교섭하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近仇首王, 枕流王 때 까지 東晉에 사신을 다섯 번 파견하고, 동진은 백제에 두 번 사신을 파견하는 등 비교적 빈번한 관계를 유지했다. 한편 384년에 불교를 전해준 마라난타는 인도 출신으로 바다를 건너서 백제에 상륙하였다. 久爾辛王 대부터 양자강 유역에 수도를 둔 남조(宋)와 교섭이 활발해졌다. 이후부터는 서해 남부의 여러 섬들을 징검다리로서 삼아 해상으로 일본열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열도와 각종 물품들을 교환하면서 무역을 벌였다. 이 가운데에는 생필품등도 있었고, 심지어는 고도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요구하는 말의 운송까지 이루어졌다.²⁵⁾ 백제인들과 문화는 성능 좋은 배를 타고 이주(settlement)같은 성격을 띤 채 비조직적으로 진출하였다.²⁶⁾ 그리고 다른 지역을 통해서 상륙하고 진출한 세력들과 함께 야마도 지역(현재 나라 아스카지역)으로 모여들었다. 蓋鹵王은 고구려의 남하를 방어하고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다 결국은 장수왕의 공격으로 실패하였고, 본인은 전사하였다. 백제는 475년에 한성을 빼앗기고, 熊津에 수도를 정하였다. 경기만을 상실하였고, 해양활동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해양력과 국력이 약화되었다. 文周王은 수도를 錦江 중류의 웅진(공주)으로 옮겼다.



[그림 5] 『我東輿地圖』(19세기 전반)의 서해안 부근

이 무렵 중국에서는 남제와 뒤를 이은 梁이 수도를 현재 남경(건강)으로 삼았다. 남경은 양주와 함께 중국에서 해양문화가 가장 발달한 항구도시이며, 현재 중국이 우선적으로 발전

23) 『한국의 해양문화』 (서해해역 상 충청편), 해양수산부, 2002, p545.

24) 崔夢龍,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서 본 黃海交涉史 研究 서설』, 『震壇學報』 66.

25) 양기석, 『백제의 경제생활』, 주류성, 2006. pp 216인용

26) 윤명철, 『동아시아중해와 고대일본』, 청노루, 1996

시킨 연해개방지구에 해당한다. 동성왕은 고구려를 견제하고 일본, 가야와의 외교관계를 구축하여 對신라 외교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했다. 즉 해양력(sea-power)을 회복하고 황해남부의 신행로를 개척함으로써 남제, 梁나라에 이르기까지 외교와 교역, 문화교류 등을 활발히 하였다. 498년에 耽羅가 백제의 세력권에서 이탈하려는 행동을 취하자 즉시 정벌을 추진하였다. 이후 백제는 다양한 항로를 활용하여 중국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교역거점을 건설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고, 문화를 수용했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백제의 교섭범위는 남조국가들을 중간거점으로 간접적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이르렀다.

무령왕은 즉위한 이후, ‘苜加의 亂’을 평정하고 擔魯制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고구려를 선제공격하였고, 512년과 521년 두 차례에 걸쳐 梁나라에 사신을 파견한다. 일본열도와도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하여 고대국가가 발전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남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무령왕이 일본열도의 가당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백제로 귀국하여 왕이 된 사실은 백제가 일본열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성왕은 수도를 천도하였는데, 사비는 전형적인 江海都市의 성격을 지녔다. 고구려를 공격하고 신라와 화친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남조의 양과 통교를 하며 국력의 재흥을 도모한다. 비록 신라와 싸우다가 전사했지만 백제를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드는 토대를 구축한 임금이다. 武王은 즉위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한편 신라와 벌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그 후 백제와 隋나라가 통일하면서 백제의 해야활동 범위는 확장이 된다. 양 국은 군사동맹의 제의라는 단계로 발전한다. 『隋書』倭國傳에는 開皇 20년(600)에 왜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예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백제의 남로를 거쳐서 들어왔는데,²⁷⁾ 이는 항로상 백제의 중개와 호위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 무렵에 왜국사신이 수나라에 왕래를 한 사실은 백제본기에도 기록되어있다. 이후에도 몇 번의 교류가 있었는데 이 교류 또한 항로상으로 보아 백제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4. 백제의 국가발전 정책 – 해양과 연관하여

동아지중해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하여 대다수의수도 및 대도시들은 항구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특히 우리 한민족국가들은 조선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뿐 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특히 백제는 일찍부터 해양을 활용했고, 해양을 활용하지 못했을 때 국가는 위축되었고, 심지어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27)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武王 9년.

‘春三月 遣使入---南路’

『日本書紀』卷22 推古 十六年. 夏四月.

…唐使人裴世清下客十二人 從妹子臣至於筑紫.

1) 수도의 선정과 국토개편 전략

충청 해역은 해안선의 길이가 992.8km이며, 출입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이며, 장항에서 아산만 사이에 이르는 여러 섬들과 크고 작은 만으로 이루어져 침수해안의 특색을 나타낸다. 약 25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다.²⁸⁾ 강 상류 중류 등에 형성된 도시는 하항도시이다. 웅진은 한성과 마찬가지로 교통로서서 水路網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²⁹⁾ 금강은 길이가 394.8km로서 하구에서 황해와 만나고, 내륙으로는 충청도 일대의 내륙까지 수로로 연결되므로 물자의 교역 및 운송에 적합하다.

큰 강의 하구에는 항구와 시장, 창고 그리고 촌락과 도시들이 형성되었고, 정치세력들이 형성되었으며, 항해업과造船業에 종사하는 집단들도 있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서 발전한 도시를 江海都市라고 개념화 시켰다.³⁰⁾ 한성을 비롯해서 사비성인 부여가 이런 형태에 해당한다. 錦江은 부여 강경 등을 거쳐 군산 앞 서해로 들어가는데, 하구에서 萬頃江이 합류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은 상당한 부분이 바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³¹⁾ 『大東輿地圖』에는 하구가 내륙 깊숙하게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灣과 浦口가 발달하였고, 水路를 통해서 全北일대 및 忠南일대 내륙까지 교통이 가능하다. 조수의 영향이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까지 미쳐 밀물 때는 큰 배가 부여까지 운항되고 작은 배는 부강까지 운항되었다.³²⁾

2) 해양문화의 발달과 해양력의 강화

백제인들은 어느 정도의 해양능력을 보유하고, 어떤 항로를 거쳐서 중국의 남부와 일본 열도로 진출했을까?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에는 바로 이 시대에 북위가 백제를 쳤으나 패했다는 기록이 있다. 『남제서』에는 490년에 위나라가 기병 수십만으로 백제를 공격했다가 크게 패하였으며, 그 때 동성왕은 공훈을 세운 백제의 장군들에게 王이나 侯·太守 등 관작을 줄 것을 남제에게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그 가운데에 木干那라는 인물은 성과 배(舫)를 격파한 공이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양 국 사이에 대규모의 해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물론 당시에 북위는 화북지방에 있었다. 더구나 그때 동성왕이 태수직을 요구한 지역은 廣陽 廣陵 清河 등 중국지 역으로 추정되는 곳이므로 역사상을 해석하는데 당황스럽게 한다. 『周書』권 49 백제전에는 隋 이래로 宋·齊·梁시대에는 현재 양자강의 左에 있었다고 되었으며, 『北史』백제전에는 隋 이래로 江의 左*右에 거하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삼국사기』 열전 최치원전에는 “백제가 전성했을 때에는 강병이 100만이며, 남으로 甌나라와 越나라를 침범하고, 북

28) 노도양, 「충청남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679.

29) 俞元載 「백제 웅진성 연구」 『국사관 논총』 45, 1993 참조.

30) 윤명철, 「강해도시 김포시의 역사성과 21c까지 효용성」, 『김포 수로도시 국회 공청회』, 김포저널, 2006.6.

31) 이 부분에 대한 지리지질적 조사와 유적은 김중규, 『잊혀진百濟, 사라진 江』, 신아출판사, 1998. pp.74~80.

32) 羅薰承, 「錦江水運의 變遷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公州教大論文集』 16, 1980, pp.74~80.

으로 幽燕齊魯를 흔들었다”는 내용이 있다.³³⁾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백제는 정치 군사적인 배경을 양성하면서 국가를 발전시켰음을 알수 있다.

『일본서기』에는 백제선과 신라선 등에 대한 기록이 꾸준히 나온다. 응신천황 때에는 길이 10丈(약 33m)의 배를 만들게 하였다. 그 후에도 우수한 배의 상징으로 백제선이란 말이 등장하고, 645년에는 왕명으로 安藝國에 명하여 백제선 2척을 만들었다. 일본의 고분들에서는 그 시대에 사용했던 배를 표현한 유물들이 나온다. 혼슈 중부 서쪽인 후쿠이현(福井)의 大石유적에서 출토된 동탁(銅鐸)의 배그림에는 마스트가 있고, 노(櫂)가 18~20정이며 길이가 15m에 달하는 대형선으로 여겨진다. 특히 큐슈 동남부인 미야자키현의 니시도바루(西都原) 고분에서는 배 모양의 부장품이 발견되었는데 좌우에 각각 6개 총 12개의 노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백제는 이러한 연해용 선박이 아니라 보다 우수한 원양용 배들을 갖고 동아시아중해의 남부를 항해하였다.

백제인들이 사용한 항로는 다양했다.

(1) 환황해 연근해항로

고대에 황해를 매개로 한국지역과 중국지역 간에 사용되었던 항로를 당시에 전개되었던 역사적인 상황과 정확한 해양환경 등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였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항로는 環黃海 沿近海航路이다. 큐슈 북부, 대마도, 남해안의 일부를 경유하여 서남해안, 충청도 해안, 남양반도 지역, 범경기만과 황해 북부 해안 요동반도, 산둥반도, 양자강 하구 유역, 절강성의 해안 등으로 이어지는 긴 항로이다.



[그림 6] 동아시아중해의 황해 남북 연근해항로

33) 소위 ‘長江 진출설’로 알려진 이 사건은 신채호 문정창 이후에 이도학이 더욱 발전시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많은 논쟁들이 벌어졌으나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해양사 연구자인 필자는 기간과 형태 규모 성격 등에 대해서는 단정적이거나 확신할 수 없으나 ‘동아시아중해 모델’과 본고의 앞부분에서 서술한 ‘해양 메카니즘’에 입각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특히 ‘해향도시론(일종의 polis)’을 적용하면 개연성이 충분하며, 이와 유사한 예는 세계사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2) 황해중부 횡단항로

한반도의 중부지방, 즉 경기만 일대와 그 아래지역의 여러 항구와 산동반도의 여러 지역을 횡단성 항해로 연결하는 항로이다. 한반도 쪽의 출발지로서는 인천만 지역, 강화도와 주변지역, 남양만 일대 등 경기만의 여러 항구가 있다. 황해 서안에서 대표적이었던 항구는 산동성 북부 해안의 登州港(蓬萊市), 동쪽 끝인 成山(城山), 동남쪽인 赤山浦(石島鎮) 등이다. 그 곳을 출항하여 서해를 횡단한 다음에 백령도, 연평군도, 덕적도 등 근해의 섬들을 멀리서 보면서 서해 근해를 남향하다가 중간에 태안반도, 금강 하구, 영산강 하구 등을 물표로 삼거나 경유, 또는 상륙하면서 최종 목적지에 닿았을 것이다.

(3) 황해 남부 사단항로와 동중국해 사단항로

황해남부 사단항로는 전라남도 등의 여러 해안에서 출발하여 사단으로 항해한 다음, 강소성·절강성 등의 해안으로 도착하는 것이다. 남부지역으로 가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절강 이남지역을 출발하여 동중국해와 제주도 해역, 황해 남부를 거쳐 한반도 서남해안으로 들어오는 항로이다. 백제 통일신라 고려시대에는 이 항로를 이용하여 승려, 상인, 사신, 유학생들이 도착하고 출발하였다. 이 항로의 일부는 남중국과 일본열도가 교섭하는 데에도 사용됐다. 이 항로에서 주요한 출발항구는 절강성의 명주항(寧波)과 그 외곽인 주산군도이다. 서북단에 泰安반도가 돌출해 있고, 安興에서 부터 서쪽의 格列飛列島까지 섬들이 많다. 당연히 중간에 있는 태안반도는 목표지가 아닌 중간 경유지로서 또는 항해상의 물표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서 고대 항로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徐兢이 쓴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따르면 서산의 海美는 송나라 사신을 맞는 객관인 安興亭이 있었다.³⁴⁾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고 남조와의 교섭은 충청도 해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3) 백제문화의 정체성 확립 – 국제성과 다양성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만남과 교환을 전제로 한 무역은 문화 및 종교의 전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들을 서로 만나게 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역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대동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가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문화의 개방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정책적으로 후원하고 추진하여야 가능하다.

백제는 황해를 항해하면서 중국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백제가 웅진과 사비로 수도를 옮긴 시대에는 중국은 남북분단시대였다. 이 무렵 중국의 남조 국가들은 선비족이 북위가 있었으므로 오아시스 실크로드가 막혔다. 따라서 해양실크로드를 이용했다. 이 무렵 부남은 양나라와 무역을 하였는데, 인도 등과 중계무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승려들과 불교 상품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지역으로 들어왔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백제 신라 등으로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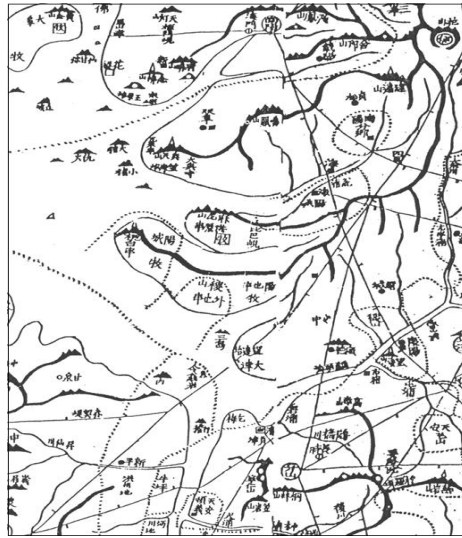
34)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제 34권 해도 1~제 39권 해도 6 참조.

어왔다. 향 등은 남방물산이다. 이 시대에 梁은 2만 척의 “대선”을 보유하고 동남아시아는 물론, 인도, 실론을 거쳐 멀리 페르시아와 이라크의 유프라테스강까지 상선을 몰고 갔다. 서아시아의 배들도 중국에 항행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제는 아시아 실크로드 무역망에 편입되면서 국제성을 더욱 강하게 띄웠고, 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었다.

또한 백제는 일본열도 진출을 조직적으로 시행하고, 문화를 전파하고 기술전수와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일본열도의 고분에서 나타나는 유물 중에는 금동제품의 환두대도(環頭大刀) 등이 다수 있는데 이는 한륙도에서 하사받았거나 혹은 수입된 것이다. 그리고 철제 검(양날)이나 도 (한쪽 날) 등이 나오는데 백제인 기술자들의 거주지였던 키나이 지방 모즈에 있는 오오쓰카(大塚)에서는 300개의 철칼이 출토되었다. 5세기에 이르러 일본열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6세기 중반에 야마토 정권에서 친백제계인 소가(蘇我)씨가 등장하고, 쇼오토쿠 태자가 실권을 장악하므로써 백제는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무녕왕이 일본열도의 가당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백제로 귀국하여 왕이 된 사실은 백제가 일본열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키나이 지방에 정착한 도래인들의 베는 시베(史部), 가히코기이베(蠶飼部), 고후쿠베(吳服部), 도베(陶部), 가지베(鍛冶部), 나시고리베(錦織部), 소쿠베(?部) 등이 있었다. 聖明王(聖王)은 서부희씨(西部姬氏 達率), 노리사치계(怒唎斯致契) 등을 보내어 금동석가불상 1구를 비롯하여 반개(幡蓋) 약간과, 몇권의 경론(經論) 등을 보내왔다. 법흥사(法興寺, 飛鳥寺. 후에는 元興寺로 불리워짐)를 창건하던 해에 사신과 승려, 불사들을 보냈다. 寺工(건축가)인 太良未多, 文賈古子. 羅磐博士(주철 기술자)로는 將德, 白昧淳. 瓦博士(기와제조 기술자)로는 麻奈父奴, 陽貴文, 石麻帝彌. 그리고 화공인 白加 등 기술자 집단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국제성과 개방성을 추구한 결과 『梁書』백제전에는 백제가 “왜국과 가까우며 문신한 자가 많다.---언어가 중국과 비슷하다. 진한의 남은 습속이라고 한다.(其言參諸夏. 亦秦韓之遺俗云.)”고 하였다. 또 『隋書』에는 백제에 “왜와 중국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北史』 고려전에는 ‘백제에 신라인 고구려인 왜인이 함께 산다. 중국인도 있다.’라는 기록이 새긴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백제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매우 번성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보면, 백제는 해양교류를 통해서 국제화가 되고, 수준높은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대륙 문화, 반도문화, 해양문화가 골고루 조화되어 발전한 문화이다.



[그림 8] 대동여지도

5. 맺음말과 제언

21세기는 전세계적으로 해양의 세기이다. 그리고 무역과 문화가 더욱 중요해진다. 동아시아는 일종의 지중해적 형태와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해양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선사시대부터 고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양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국가 간의 경쟁은 해양경쟁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내륙국가와 농경문화를 지향해왔던 중국조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 이후에 해양을 중요시하고, 최근에는 ‘일대일로전략’과 ‘해양강국론’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각성하고 국가발전에 정책적으로 활용한 나라가운데 하나가 백제이다.

한민족의 활동공간은 동아시아중해의 중핵(CORE)에 위치해있으므로 대륙과 해양을 공히 활용하며, 동해 남해 황해 동중국해 전체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해륙 네트워크’의 허브이다. 경제적,문화적으로 핵심로타리(I.C)로 삼아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중해의 중심에 황해가 있고, 황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국가가 백제이다.

백제는 국토가 황해와 접하고 있었으며, 교류의 주된 상대가 중국이므로 해양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수도로 선정한 한성 웅진 사비는 항구도시이다. 특히 남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선정한 웅진은 국제도시는 물론 해양정책을 펼치기에 적합하지 못한 하항도시였다. 따라서 해양과 더 가까운 사비성으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해양활동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해양력을 강화시켰다.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중국의 남조국가와 정치 무역 문화 예술 등의 교류가 활발했고, 이 국가들을 매

개로 동남아시아를 넘어 서아시아 지역까지 이어지는 무역망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전하였으며,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와 사회를 이루었다. 그리고 해양능력을 바탕으로 일본열도에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진출하였으며, 기술과 문화의 이전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강국으로 부활하였다. 백제의 해양활동과 국가발전정책을 살펴보는 작업은 현재 한국과 특히 충청도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다.

제언

육지적 시각

공간을 면 관점, 대립과 단절이라는 관점

중심적 시각. 정치지향적 시각

해륙사관 및 해륙문명론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보는 해륙적 시각

탈중심적이고, 무정부성, 호족성.

세계를 이동성과 교류의 관점

개방성과 공존의식이 강하다.

네트워크형 체계

신정치체-해양도시연맹론

소규모의 무역과 상업활동 시장의 활성화

참고자료

본고 작성에 활용한 필자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2102 『윤명철 해양논문선집』 8권, 학연, 2012

1권 『해양활동과 해양문화의 이해』

2권 『해양활동과 국제질서의 이해』

3권 『해양활동과 국제질서의 이해』

4권 『해양방어체제와 강변방어체제』

5권 『해양역사상과 항구도시들』

6권 『해양역사와 미래의 만남』

7권 『고구려와 현재의 만남』

8권 『역사활동과 사관의 이해』

2012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 2012

『한국해양사』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2009 「서산의 해항도시적인 성격 검토」『서산문화춘추』 5, 서산문화발전연구원

2010. 「백제의 역사 속에 함축된 해양문화적 요소」『충청학과 충청문화』11권,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12, 12 「唐津의 고대 海港都市의인 성격 검토와 航路」『동아시아 고대학』 29집

2012, 10, 19 「당진의 해항도시적인 성격과 항로 검토」『민속을 통해본 당진의 해양문화적 성격』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12, 11, 09 「백제 시대의 대중항로와 서산의 지리적 위치」『향토유적 고증조사 (닷개) 학술세미나』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12, 11, 9

2013- 「고대 도시의 해양적 성격(港口都市)에 대한 체계적 검토 - 고대국가를 대상으로 - 」『동국사학』

2014- 「신라인의 해항도시들과 해양실크로드 역할론 -청해진을 중심으로」『2014 Korea Maritime Silk Road Expedition 中國 廣州 國際學術大會』

2015 「백제시대 서산의 해항 도시적 성격과 국제항로」『백제시대 대중국 교류와 서산』

기타 저서 및 논문들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 충남의 해양레저 · 스포츠 · 관광 거점 구축에 관하여 —

최 미 순 ■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교수

I. 2015년도에 해양수산부는 「2030 해양수산미래비전 ‘상상을 넘어 가치의 바다로’」라는 책자를 발간¹⁾하였다.

그간 국내에서 해양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던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예측과 해양수산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기초하여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해양수산부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2030 해양수산미래비전 / 3대 핵심과제 / 9대 지향점 / 40대 해양수산 미래상에 관한 추진방향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책자에 소개된 해양수산부의 비전과 세부내용의 프레임을 통해 온 국민이 바다를 즐기고 느끼며 환황해권 내의 마리나를 누비는 소위 해양레저문화의 르네상스를 상상하면서 환황해권 해양교류의 미래를 고찰해 보았다.

2016년 5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인 랴오디그룹이 외국인 투자기업 자격으로 당진 왜목을 한중 협력을 위한 미래 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148억원을 투자하여 300척 규모의 마리나 항만 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진 왜목마리나항만 개발 사업투자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해수부에 제출하면서 투자 규모뿐 아니라 외자유치 차원에서 당진 왜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진 왜목이 현재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의 마리나

1) 발간등록번호:11-1192000-000387-01

항만 개발 사업을 충남도가 현재 추진 중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란 큰 맥락에서 바라 보면서, 지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선도적 사례로 간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당진 왜목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시선을 충남의 새로운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충남의 수도권 최근접지역인 당진의 왜목항, 장고항, 그리고 석문지구를 연결한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벨트 지정을 제안하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환황해를 도전과 창조의 바다로 바라보며 충남 북부 해안권의 당진에 환황해권 해양교류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방안과 이 권역을 환황해권 최대의 해양레저·스포츠·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계획들을 제안해 보았다.

〈표 1〉 2030 해양수산미래비전

비전	‘상상을 뛰어넘는 가치의 바다 창조’		
3대 핵심가치	행복과 풍요의 바다	도전과 창조의 바다	평화와 공존의 바다
9대 지향점과 40대 해양수산 미래상			
행복과 풍요의 바다	01 대한민국이 세계 물류의 중심으로 우뚝 섭니다.	01_ 해운산업이 국가대표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합니다. 02_ 우리의 물류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합니다. 03_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해운물류사업이 선도합니다. 04_ 우리 항만이 세계 비즈니스의 거점이 됩니다. 05_ 항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됩니다.	
	02 어식백세, 수산업이 국민건강을 책임집니다.	06_ 우리 바다가 풍요로운 어장으로 탈바꿈합니다. 07_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 양식산업 국가로 발돋움합니다. 08_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 관리가 선진화됩니다. 09_ 어선과 수산 기자재가 첨단화됩니다. 10_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의 고급 수산물이 올려집니다	
	03 연안과 어촌에 새로운 활력이 넘칩니다.	11_ 연안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지역이 됩니다. 12_ 어촌이 살고 싶은 매력적인 마을로 거듭납니다. 13_ 연안과 어촌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해집니다. 14_ 우리 연안이 특색 있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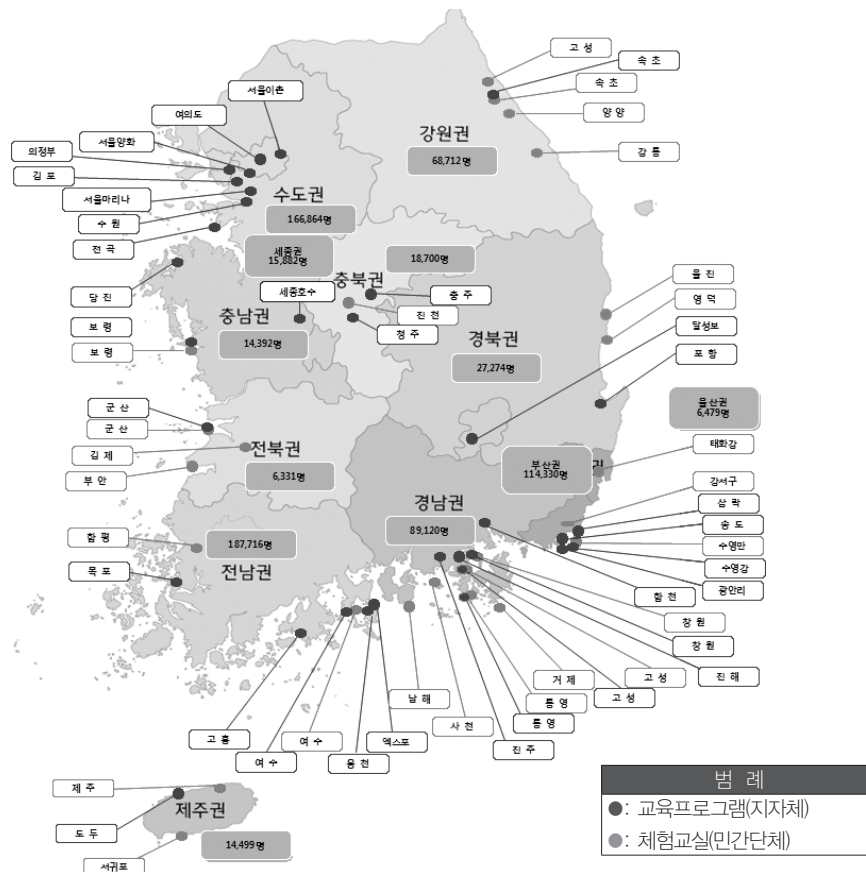
도전과 창조의 바다	04	해양수산 과학기술이 바다의 무한가치를 실현합니다.	15_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수산 과학기술 강국이 됩니다. 16_ 바다 속 공간이 우리의 생활영역으로 다가옵니다. 17_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개발 시대가 열립니다. 18_ 해양수산 생물의 자원이 바이오산업을 선도합니다. 19_ 해양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가 국민의 실생활에 활용됩니다.
	05	대양에서 더 큰 대한민국 꿈이 이루어집니다.	20_ 대한민국이 남극 대륙에서 주도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21_ 북극해 진출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22_ 바다를 통해 Big Ocean Korea가 실현됩니다. 23_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일류 해양국가로 활약합니다. 24_ 국제기구와의 협력 통해 글로벌 해양수산 이슈를 주도합니다.
	06	해양한류, 해양문화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립니다.	25_ 우리의 해양문화가 세계를 누빉니다. 26_ 대한민국의 동북아 해양관광대국으로 부상합니다. 27_ 국민 누구나 손쉽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28_ 진취적인 해양정신 함양을 위해 해양교육이 크게 진흥됩니다.
평화와 공존의 바다	07	우리 해역이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로 다시 태어납니다.	29_ 선진 해양교통환경 구현으로 우리해역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킵니다. 30_ 해양안전문화가 국민생활 곳곳에 확실히 정착됩니다. 31_ 연안 여객선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발이 됩니다. 32_ 우리가 개발한 해양안전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합니다.
	08	다음 세대는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를 향유합니다.	33_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34_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35_ 해양쓰레기 근절로 우리 바다가 청정해역이 됩니다. 36_ 우리 바다에서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09	한반도 시대를 대비한 해양영토관리가 이루어집니다.	37_ 우리의 해양영토주권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38_ 섬 지역의 국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39_ 첨단 해양조사와 우리 바다의 입체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40_ 남북협력을 해양수산부에서 주도해 나갑니다.

II. 최근 7년간 국내레저선박 등록 척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요트보트 조종면허 신규취득자 수도 매년 약 14%씩 증가하는 등 국내 해양레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양레저 체험활동을 통해 수요 진작과 저변확산을 유도하며 해양레저·스포츠·관광산업 및 연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 이후 매년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의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각 지정장소의 체험프로그램 참가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77만 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표 2〉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체험 객 규모

시행 연도	장소(전국)	체험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시행 일
2012년 04월 - 10월	54개소	60만명	—	장소별로 상이
2013년 07월 - 10월	50개소	72만명	120%	"
2014년 05월 - 10월	50개소	73만명	101%	"
2015년 05월 - 10월	60개소	77만명	105%	"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단위 : 만명)



[그림 1] '14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실적 출처 : 해양수산부

이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이 서서히 국민의 친숙한 여가활동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그러나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로서 또 해양강국임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런 흐름을 예측하면서 정부는 2010년 이후 해양레저·스포츠·관광을 포함한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기본계획²⁾을 시작으로, 공유수면법 시행과 마리나서비스업 신설 등 각종 관련 법 제정, 신설 및 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으며 해당분야 육성 의지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내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및 마리나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 상승과 실질적 사업화³⁾추진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국내 해양레저수요에 부응하고 중국과 일본의 요트 유치가 가능한 국제 수준의 국내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해 국비 300억원이 지원되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였다.

당진 왜목은 2015년 7월에 경기 안산 방아머리, 전남 여수 웅천, 부산 해운대 운촌과 함께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간자금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한 결과 2016년 5월 30일, 드디어 중국 랴오디그룹이「당진 왜목마리나항만 개발 사업투자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한 것이다. 만일 이번 제안을 제3자 공모, 협상절차를 거쳐 정부가 수용할 경우 랴오디그룹은 당진 왜목마리나항만 개발의 정식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서해안에서 유일한 바다일출 관광특성을 보유한 지역적 명소이고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의 자취를 가진 당진 왜목을 한중 협력을 위한 미래 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148억 원을 투자해 방파제,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300척 규모의 마리나 항만 개발을 추진한다⁴⁾는 것이다.

본 사업 완공 후에도 2단계 사업으로 959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숙박 및 휴양시설, 수변 상업시설 등 마리나항만 부대시설도 개발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총 계류선박 300척 중 70%를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마리나 이용객에게 할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2단계 부대사업까지 완료되면 총 4,3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87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위와 같이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된다면 당진 왜목은 당진 왜목 고유의 靜적인 관광콘텐츠⁵⁾에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중심의 역동적 요소가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당진의 핵심지역으로, 또 충남의 대표적인 복합레저스포츠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의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및 수도권 근접으로 예상컨대 충분한 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2) 제1차(2010~2019)마리나항만 기본계획(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호)

3) 세한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설립(교육부 인가), 2016.6.17

4)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첫 외국인 투자 제안,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6.05.30.

5) '서해안에서 유일한 바다일출 및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콘텐츠'를 말함.

III. 마리나⁶⁾란 용어는 라틴어의 ‘해변의 산책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복합해양 관광단지의 확대된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마리나의 1차적인 기능인 육·해상접근의 터미널, 또는 레저선박 계류시설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협의의 정의가 국내마리나 이용의 실제 상황을 설명하기에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공식적 용어도 ‘마리나’가 아닌 ‘마리나 항만’인 것으로 추정해 본다.

마리나항만은 해양레저·관광·스포츠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하드웨어적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양레저 활동이 이공간에서 시작되고 마무리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연유로 마리나항만을 해양레저·스포츠의 플랫폼이라고도 한다.⁷⁾

국내의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및 마리나산업의 역사는 아직 일천하고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이면서도 해양레저가 생활문화로 일상화되어 있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도입기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리나란 용어 자체를 생소하게 여길 정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리나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국내의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거점마리나의 조성방향을 위해서 마리나항만 개발을 국내 어항의 다기능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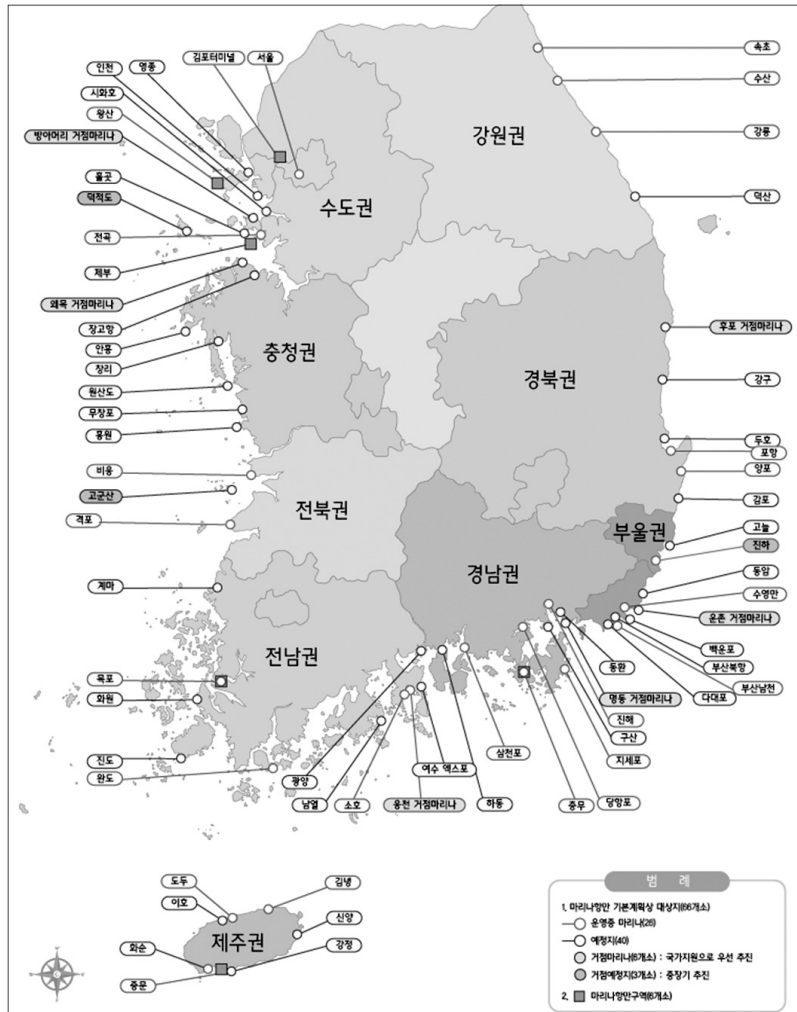
지난 수년간의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에 힘입어 국내에는 26개의 마리나가 운영⁸⁾ 중에 있고 이중 2~3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극히 단순한 계류중심의 소규모시설인 경우가 많다. 10여년 전부터 수도권(전국 화성), 전남권(목포, 여수), 경남권(통영, 고성), 부울권(부산)에 있는 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들이 서서히 추진되어 왔다.

최근 관련 활동의 효과가 점차 확산되면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부분의 마리나들이 그곳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마치 유행병처럼 각종 크고 작은 국제요트대회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6) 정부에서는 ‘마리나항만’이란 용어를 사용하나 본 고에서는 ‘마리나항만’과 ‘마리나’를 상황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할 것임.

7) 전남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주제발표 “마리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미순, 2012.12.

8) 전국마리나 운영현황, 제1차(2015~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그림 2〉 전국 마리나운영 현황

출처 : 제1차(2015~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08호)

이러한 활동 덕분에 국내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 활동의 일반인 참여율 및 용어에 대한 이해가 더욱 급격히 제고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목포마리나, 수영만마리나, 전곡마리나 및 후포항에서는 수년전부터 국제요트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대회에 참가한 각국의 선수단 간의 긴밀하고 실질적인 민간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10여년 전 거의 백지 상태에서 시작되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되돌아보면 바다를 해양레저공간으로 개척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바다를 무대로 추진한 다양한 레저·스포츠 활동들이 지속되면서 전용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연안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지역특성화와 연계하고자 마리나를 설

치·운영하면서 해당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즉 국내 마리나산업 활성화 견인할 동반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10여 년 전부터 국내 소규모 마리나들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의해 시작되어 졌다고 하겠다. 전부터 국내 소규모 마리나들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의해 시작되어 졌다고 하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4년에 마리나산업이 레저선박 제조 유통 및 마리나 항만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융·합 산업의 하나이며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신산업 분야라고 판단하고 본격적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 중에는 마리나산업을 (1)마리나 인프라 확충 (2)마리나서비스업 활성화 (3)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4)레저선박 경쟁력 강화 등 유기적 연계관계인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상생발전을 유도할 통합적 추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4개 영역 간의 우선적 실행순서가 언급된 적은 없지만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각 항목들의 최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추정한다면 무엇보다도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양한 연관활동 수행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잠재 수요 확대와 지역의 특화 이미지 제고에 의한 파급효과를 예상해서이다. 앞서 언급한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마리나산업의 성장이 예고되는 분위기 속에 제출된「당진 왜목마리나항만 개발 사업투자자를 위한 사업제안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마리나 인프라 확충 작업’에 대한 것이었으며, 한편 당진 왜목항에서는 2014년⁹⁾에 비로소 작은 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을 뿐이다. 즉 이 지역은 아직까지 해양레저스포츠 특화의 지역이미지가 미약하고 관련 기반도 열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2020년 당진 왜목마리나항만의 개장을 염두에 두고서 거액의 국비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마리나 항만으로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국내의 관련 활동의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기에 향후 2년간은 국내의 수요 급증과 함께 해양레저 특성화를 추진하는 인근 지자체들의 더욱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어서 2020년 이후에 당진 왜목마리나의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장담하기 쉽지 않다고 하겠다.

IV. 이런 관점에서 당진 왜목의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항의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하나의 선도적 사업으로 간주하고, 당진 왜목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시선을 충남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충남의 수도권 최근접지역인 당진 북부권의 왜목항-장고항-석문지구(일부)를 연결

9) ‘2014, 2015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해양수산부 주최, 당진 왜목해수욕장

하여 하나의 특화된 벨트로 묶어 이곳을 충남의 새로운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발전을 위한 특별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토대로 충남의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발전뿐 아니라 환황해 해양교류의 미래를 염두에 둔 큰 틀에서 당진지역의 특성화 이미지를 축적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았다.

세부 내용은 지역간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 고유의 장점을 특화하고 범지역차원의 경쟁력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 1단계 : 당진 북부권의 왜목항(어촌정주어항), 장고항(국가어항) 및 석문지구의 지리적 연계성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벨트 구축과 벨트 내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합지원기능을 통해 당진시 북부권을 레저스포츠의 거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활동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이다.

■ 2단계 : 환황해권 내에 형성된 한·중·일 요트항로의 거점을 연결하는 직·간접적 친선항해 교류를 통해 국가 간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이다. 즉 서해안에서의 충남 당진 중심의 환황해권 해양교류 교두보를 마련하는 단계로서 1단계와 동시에 착수하여 점차로 공간적 범위와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 3단계 : 경기만 내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당진 왜목항에 인접한 마리나들이 ‘서해안 마리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환황해권 내에서 국내 서해안의 해양레저·스포츠·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선 도모와 상생발전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이다.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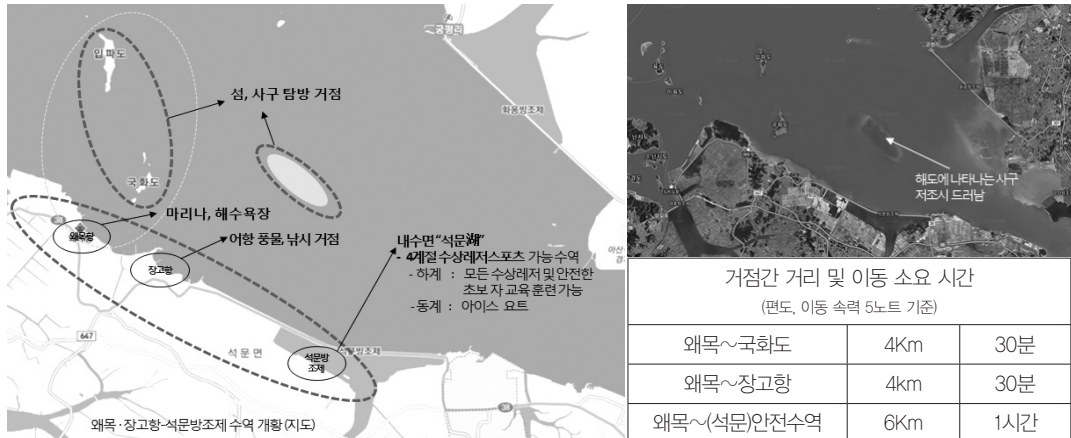
A. 1단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동안 충남 북부권의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벨트를 대·내외에 인지시키기 위한 활동기이다. 왜목마리나 항만 조성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당진의 거점 마리나항만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확산을 위한 기간이다.

1차적으로 왜목항, 장고항, 석문방조제(석문호), 석문국가산업단지(체육시설구역)를 연결한 구역을 아래 그림과 같이 충남 북부권의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벨트로 설정하고 각 구간에 적합한 활동 세부 계획을 마련해 보았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하고 이전에는 왜목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 운영을 집중시키고, 이후에는 국가어항으로 개발되고 있는 장고항을 중심으로 석문방조제 인근의 내수면과 석문국가산단의 육상권역을 포함한 구간에서 수도권 관광객 및 중국의 한류열풍을 불러들일 수 있는 융·복합형 레저스포츠문화행사 개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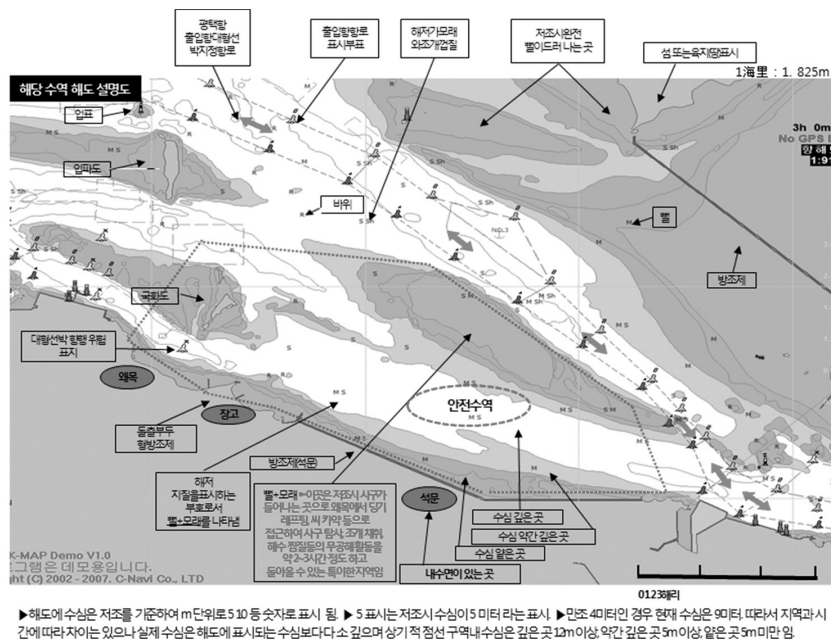
이와 함께 왜목해수욕장을 비롯한 일대의 지역주민을 지역특성화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시행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류열풍을 불러들일 수 있는 융·복합형 레저스포츠문화행사 개최를 제안한다.

이와 함께 왜목해수욕장을 비롯한 일대의 지역주민을 지역특성화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시행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 왜목항·장고항·석문지구의 해양레저·스포츠·관광벨트 개념도

이 구역¹⁰⁾은 지리적으로 대략 가로 14Km, 세로 6Km 넓이의 수역을 형성하는 관내 최고의 태풍 피항지이며 수도권 및 평택항 출입항로를 약간 벗어나서 위치하기 때문에 요트세일링 등 레저활동에 필요한 수심과 안전운항을 위한 해상공간이 확보된 안전 수역이다.



〔그림 3-2〕 왜목항·장고항·석문지구 분석도

10) 지형적 여건분석, 세한대학교 주창성교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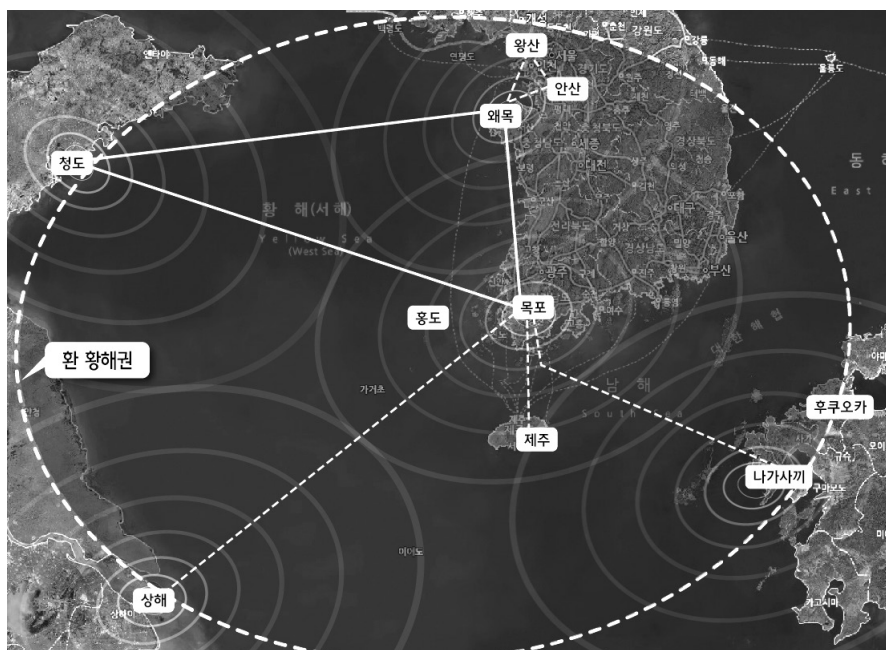
장고항의 경우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541억원(전액국비)이 투입되는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왜목과 인접한 구역이 피셔리나개념을 접목한 시설로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왜목의 지형적 한계점 보완에 유리하여 왜목항과의 상생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석문방조제는 관광객이 근접하여 해양레저 활동 참관이 가능하고 조류가 없는 석문호도 있어서 수질문제를 제외하고는 내수면 레저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게다가 석문단지 일대 배후지가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해상의 레저활동 및 아시아 일원의 한류열풍과 연계한 이벤트성 행사 추진에도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 구간은 수도권 및 인천공항에서 서해대교를 건넌 직 후 국도38호선의 해안도로를 따라 왜목항-장고항-석문지구의 3개 지역이 15분 간격으로 차례로 연결되어 있는 매력적인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고 또 수도권 최근접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등 지리적·지형적인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3개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지리적·지형적 여건에 따른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범지역 차원의 경쟁력을 갖추어 간다면 1단계의 공간적 범위인 충남을 넘어서 ‘수도권 최대의 도심형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벨트’로서의 중추적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 2단계 : 충남 당진 왜목권 중심의 환황해권 해양교류 교두보를 마련하는 단계로서, 한·중·일 요트항로의 거점을 연결하는 직·간접적 친선 항해 교류를 통해 환황해권내 국가 간의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림 4〉 한·중·일 주요해양거점

〈표 3〉 거점간 거리 및 이동 소요 시간 (편도, 이동 속력 5노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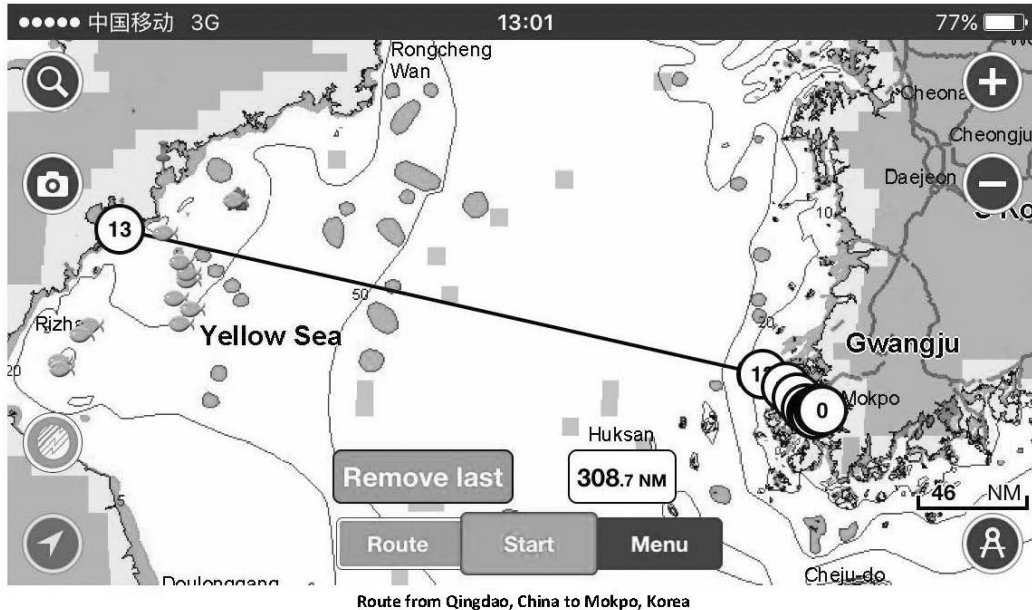
거점	거리	소요시간	거점	거리	소요시간
청도~목포	545Km	59시간	목포~왜목	310Km	33시간
상해~목포	625Km	68시간	목포~제주	160Km	17시간
청도~왜목	540Km	58시간	나가사키~목포	415Km	45시간

공간적 범위는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직경 1,000Km내 한·중·일의 주요 해양거점인 청도, 상해, 왜목, 목포, 홍도, 제주도, 나가사키를 연결한 해상공간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이곳은 고대 한·중·일 무역선의 중요 이동 항로였고 향후 모든 해양 활동의 동북아시아 주 무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체험적 친선교류의 활성화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청도범선협회¹¹⁾가 현재 환황해권역 내의 한·중·일 요트항로 개척을 위한 “원동컵 범선대회 ‘Fareast Cup’ International Regatta 2016, 10.7-10.20”을 준비 중이며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올 10월에 청도에서 10척의 요트를 동원하여 청도-목포간 단일항로를 왕복하는 시범경기를 추진한다고 한다.

11) 2016원동컵국제범선대회(시범경기), 중국(청도시범선협회)·한국(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림 5〉 'Fareast Cup' International Regatta 2016 경기코스

세한대학교는 이미 2009년부터 목포요트마리나~제주도(도두마리나)¹²⁾, 그리고 2012년부터는 목포~서남권 다도해 해상의 섬들을 연결¹³⁾하는 요트항로 및 목포~왜목의 요트항로 개발¹⁴⁾을 주도해 왔다.

여기에 당진 왜목~중국 청도를 잇는 요트항로가 추가된다면 목포-왜목-청도를 잇는 한 황해권 내의 해양레저·스포츠 권역은 짧은 기간 내에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요트대회와 같은 대표적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이 본격화 된다면 한황해권 내 국가 간 민간교류 활동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제요트대회는 모험심을 가진 열정과 패기의 참가선수들이 국경을 초월한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가지고 물리적 거리감을 정서적 교감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험의 장을 공유하게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가 순수한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원동컵 범선대회 ‘Fareast Cup’ International Regatta 2016, 10.7-10.20”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중국의 민간교류 촉진의 선도사업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국제요트대회의 기향은 대회참가 요트들의 입출항과 계류를 통해 마리나 항만으로 서의 실질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

12) 전남-제주국제요트대회(2009~2012)

13) 다도해국제요트대회(2012~2016)

14) 목포항~전국항요트탐방, 경기국제보트쇼 「세한대 개발요트(LH-T1, LH-T2)해상전시」, 2008.6.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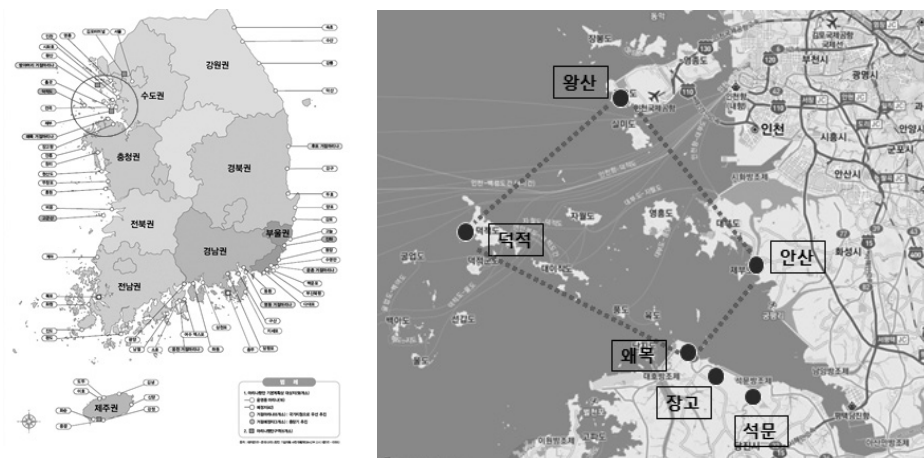
제요트대회 추진 경험은 마리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함이 크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완성될 당진 왜목마리나도 이러한 차원에서 환황해권 국제친선의 해양레저 교류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요트대회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향후 경기만 내 서해안 마리아클러스터 내에서 당진 왜목의 경쟁력을 키우고 주도성을 선점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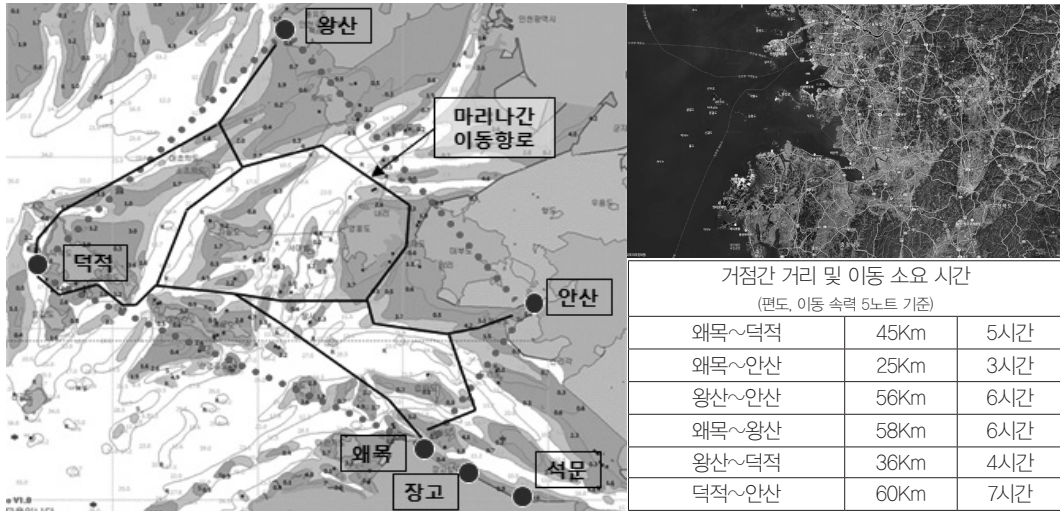
C. 3단계 : 환황해권 해양레저·스포츠·관광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경기만에 위치한 마리아를 중심으로 개별 장점을 특화하고 마리아간 상호보완성을 제고하여 역할 중심의 범지역간 결속을 강화하고 국내 서해권의 관련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즉 경기만 내에 ‘서해안 마리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환황해권 해양교류를 대비한 국내 인프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왕산마리아, 전곡마리아, 안산 방아머리마리아, 왜목마리아의 4개 마리아는 해상활동 연계측면에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도는 현재의 상승국면의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마리아산업의 도입기에 불과한 상황에서 검토한다면 마리아간의 지나친 경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6-1〉 왜목마리아·안산마리아·덕적마리아·왕산마리아 위치도



〈그림 6-2〉 왜목·안산·덕적·왕산 서해안마리나클러스트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환황해권 해양교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국내 마리나간의 지나친 경쟁을 해소와 각각의 지정학적 이점을 고려한 역할 분담의 상호 호혜적 협력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중국 수요 겨냥과 수도권 마리나 항만과 연계한 중간 기항 역할이 기대되어 2013년에 거점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덕적도마리나를 왕산마리나, 전곡마리나, 안산방아머리마리나 및 왜목마리나와 연결하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중국 청도시와 상당히 가까운 수도권 최대규모의 가로 60Km, 세로 50Km 넓이의 수역이 형성되어진다.

이 수역은 조고차가 크고(8m), 조류가 빠르며(3노트), 산재한 저수심대, 인천항 및 평택항 출입 선박이 많은 단점도 없지 않지만, 고대부터 한·중 중요 거점 및 전략 항로였고 경인지역 관문이며, 또한 100여개의 풍광 수려한 섬, 매치업 및 아시아컵 요트 경기,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 다양한 풍물, Day Sailing에 알맞은 거점간 거리 등 수많은 장점이 있는 곳이다.



인천 왕산마리나 조감도



당진 왜목마리나 조감도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조감도



덕적도 전경

이 해상구역에 위치한 마리나들을 중심으로 ‘서해안 마리나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마리나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해양레저·스포츠·관광 인프라의 경쟁우위를 도모하자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국내 수도권 및 중국의 수요를 예상할 때, 또한 지리적으로 수도권 뿐 아니라 중국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황해권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벨트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양한류, 해양문화 르네상스시대를 이끌어 가는 서해안 최고의 해양레저 특화구역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 ‘서해안 마리나클러스터’의 구도는, 당진시가 이 클러스터 내에서 당진 왜목마리나의 주도성을 원한다면, 조성계획 수립 시 가장 심도있게 검토하고 향방에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관련 여건이 충분히 고려된 큰 맥락에서 당진 왜목의 거점마리나 항만 조성의 세부계획들이 준비될 것을 요망한다.

V. 지금까지 2016년 5월 30일에 있었던 중국 랴오디그룹의 당진 왜목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제안서 제출을 계기로, 충남의 수도권 최근접지역인 당진 북부권에 왜목항, 장고항과 석문지구를 연결한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벨트를 지정하고 충남의 새로운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충남 북부권에 환황해권 해양교류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방안과 이 권역을 환황해권 최대의 해양레저·스포츠·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천적 세부계획들도 제안하였다.

또한 당진 왜목 마리나 항만 개발 계획을 충남 연안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맥락에서 검토하면서, 지역민과 공유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서 성공적인 추진과 파급효과의 확산을 기대하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 하면서, 환황해권의 본격적인 해양교류를 앞둔 시점에 2018년에 착

수될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항만의 차별적 특성을 부가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양레저활동은 해양과 연관된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어촌·어항 및 마리나 조성 예정지의 역사적·문화적·생활환경적 여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요망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당진 왜목과 충남 전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적 해양관광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도 제안한다.

이들 연구들은 당진 왜목마리나를 국내 동·서·남해 연안에 들어서게 될 40개 이상의 마리나 항만들 중 최적의 해양레저·스포츠·관광의 플랫폼으로 평가받게 하는 중요한 경쟁우위의 원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포함한 당진 북부권이 '수도권 최대의 도심형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벨트'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차별적 특성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내 육상 레저스포츠는 정점에 이르렀으며 국민들은 해양에 눈을 돌리고 새로운 레저 스포츠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앞에서 제시된 당진 북부권 중심의 발전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정착되고 그 파급효과가 충남 해안선을 따라 연안지역 전체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당진뿐 아니라 충남 연안의 많은 지역이 수도권 및 중국 등의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환황해권 해양레저·스포츠·관광의 기지로서 거듭나게 되고 환황해를 도전과 창조의 바다로 바라보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강 길 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I. 서 론

전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태양에너지를 80% 흡수하고, 지구 산소의 75%를 생성하며, 이산화탄소를 40%를 흡수하는 등 지구기후를 일정하게 조절·유지시키는 지구의 생명유지 장치로서의 기능과 전 세계 교역량의 75%를 바다를 통해 수송하는 등 지구경제를 움직이는 부의 창출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21세기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류 공동의 과제인 자원고갈과 지구환경 변화 문제를 ‘해양’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강길모 등, 2006).

1997년 호주의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는 해양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지구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63%에 해당하며, 화폐로 환산 시 연간 약 2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한바 있다. 해양생태계 서비스란 기후 및 재해조절, 오염정화, 생물생산, 서식지, 식량자원, 원자재, 휴양 및 문화적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R. Costanza et al., 1997).

한편,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해양강대국들은 1960년대부터 국가미래 핵심연구 분야로서 해양개발을 원자력, 우주개발과 함께 3대 국가전략계획(National Projects)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력을 높여왔다. 최근 들어 해양강대국에 중국이 본격 가세하면서 전 지구적 해양공간 지배권 확대 및 해양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해양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여건은 첫째, 남한 육지면적의 약 4.5배인 443,838km²의 해양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3,358개의 유·무인도서와 14,396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권문상·강길모, 2014). 둘째는 매년 16조원의 생태적 가치를 생산하는 갯벌자원과 연안에 총 1,300만 kw에 달하는 해양에너지 부존량이 잠재되어 있다.¹⁾ 셋째는 지리적으로 역동적인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혜의 항만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해상운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수산 정책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는 1997년 발족한 이래로 2008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기능이 분산되었다가 2013년에 다시 재출범하면서 기능이 통합되었다. 1997년 김영삼정부에서 현 박근혜정부(2013년~2017년)에 이르기까지 ‘해양산업 진흥’을 위하여 일관되게 국가해양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비전을 “해양수산 立國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으로 설정하고, 해양산업 GDP 기여도를 2015년 6.2%에서 2017년 7.0%, 2020년 8% 그리고 2030년에는 10%를 목표로 제시하였다.²⁾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어가소득 증대’ 등 6개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한바 있다(해양수산부, 2015.12).

충청남도는 21세기 환황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2013년 4월 4일 개청식), ‘해양’을 도정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해 2013년 7월 해양수산국을 출범시켰다. 도청의 이전과 해양수산국의 출범은 충청남도가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돋움하고자하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양수산국은 해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용, 개발을 통해 해양을 충청남도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충청남도의 환경에 맞는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통한 해양수산 정책추진 방향설정과 국가정책 반영의 토대 마련을 위해 2015년에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을 2015년 10월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에서는 해양산업을 “해운·항만·수산·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환경·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 산업과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5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을 해양관광레저업, 수산업, 해운·항만물류업, 해양건설업, 해양자원개발업, 해양환경업, 조선업, 해양수산업기·장비제조업, 해양수산서비스업, 해양수산공공활동등 10개를 대분류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중분류 43개, 소분류 156개로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대한 방침을 정한바 있다.

1) 해양수산부는 1km²의 갯벌가치는 연간 60억원 규모이며, 이를 전 연안갯벌 면적에 적용하면 연간 약 16조원의 생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해양수산부, 2015.8), 우리나라의 서남해 갯벌은 남미 아마존하구, 미국 조지아주, 독일-네덜란드 와덴해, 캐나다 남동부 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로 불리 운다.

2) 중국의 경우 국가해양국이 2015년 3월 18일 발표한「2014년 중국해양경제통계 공보」에 의하면 2014년 중국 해양총생산액은 5조 9,936억 위안(한화 1,024조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고, OECD 통계 기준 2014년 기준 중국 총 GDP는 약 61조 4,259억 위안으로 추정됨에 따라 해양총생산액(해양산업)이 GDP 대비 9.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신산업’은 해운, 항만, 수산 등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해양산업과 비되는 용어로서 첨단 해양과학기술 또는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CT(문화컨텐츠기술) 등이 융합되어 형성된 혁신적이면서 생산유발효과, 일자리창출효과 등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통해양산업은 제외하고 일부 해양관광레저 및 수산분야에서의 해양신산업은 간략히 언급하되, 해양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수중통신 등 첨단 해양과학기술이 접목된 해양신산업을 위주로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합의하고자 한다.

Ⅱ.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정부정책 및 타 지자체 정책

1. 정부정책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박근혜정부(2013년~2017년)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국정과제 11)’와 ‘해양환경보전(국정과제 97)’이며, 이밖에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등 대략 11개 과제가 간접적으로 연계된 과제로 볼 수 있다. 특히, 국정과제 11번에 해양신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해양수산 관련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현황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관련 주요 추진계획
경제부흥	1. 창조경제	10.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해운·물류산업 지원 추진, 다기능 해양·항만클러스터 조성 및 선박관리산업 육성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수산업 미래산업화,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어항기능 고도화, 수산식품산업 육성, 안정적 수산물 식량수급체계구축, 해양신산업 육성 , 경제영토개척, 해양관리
		20.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신재생 중장기 목표설정, 신재생 보급제도 혁신 및 시장창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해상풍력, 조력 등)
	3. 민생경제	33. 농어가 소득 안전망 확충	농어업재해보험·지원제도 전면개편, FTA 보완대책
		34.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36.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관련 주요 추진계획
국민행복	4. 맞춤형 고용복지	52.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	농어촌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 주도 지역 개발
	6. 국민안전	86.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 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홍수·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국민행복	6. 국민안전	87.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법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및 첨단 해상안전 시설 구축
		9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범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적극적 역할 수행,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강화
		93.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확보 및 이상기후 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
		97. 해양환경 보전	해양수질 개선,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공간 보호 기반 조성,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해양(연안) 기후변화 대응
문화융성	10. 문화와 산업의 융합	116.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 육성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크루즈, 레저·스포츠 등)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해양수산의 미래산업화’가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있고, 국가중점과학기술에 바이오에너지 및 소재, 해양에너지,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등이 도출된바 있다.

[표 2] 해양수산 관련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 현황

추진전략	분야	세부과제	주요내용
국가전략 기술 개발	미래성장동력 확충	⑤ 해양·수산의 미래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학제적 융·복합 기술개발로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국가 해양력 강화 전략 대응 및 극지·대양으로의 경제영토 개척을 통한 미래 해양자원 확보 ●수산업 및 전통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연구 확대 ●국가중점과학기술 : <u>해양플랜트 실용화, 바이오에너지, 유용 유원자원 이용, 첨단소재(친환경 바이오 소재), 약물전달 최적화, 해양공간 개발, 극한공간 개발, 해양에너지,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u>

추진전략	분야	세부과제	주요내용
국가전략 기술 개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①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대응관련 기술 분야 세계 최고수준 역량 확보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생산 및 제공 기술개발 강화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배출량 저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대규모 실증사업에 대비한 관련 법 정비 및 신규법안제정 ●가중점과학기술 : 기후변화 감시·예측·적응,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Non-CO2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
	①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② 환경 보전·복원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물-토양 오염의 신속한 모니터링 및 처리가 가능한 환경관리 체계 고도화 ●폐기물 감량화 및 유용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을 제고 및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확대 ●국가중점과학기술 : 환경 통합모니터링 및 관리,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유용 유전자원 이용,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처리
		④ 국토 인프라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에 관한 위치·공간정보의 종합적 수집·가공을 통한 토지, 해양 등의 활용 편의성 극대화 ●국토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신공간(지하 및 해양공간 등) 창출역량 강화 ●국가중점과학기술 : 최첨단 인프라 구조물 건설, 국토 정보 구축·활용, 미래 첨단도시 건설, 복합 지하 대공간 활용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①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 피해 증가로 인한 물적, 인적 손실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 마련 ●기상, 지진관측·예측능력 강화 및 대응기술 개발 ●재해예측·복구 지원체계 구축시 미래 재해대비 신기술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 ●국가중점과학기술 :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대응, 기상기후 조절, 서비스로봇(재난구조), 재난정보통신체계

2010년에 수립된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에서는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가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미래 해양 자원 개발’,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개발’등이 중점과제로 도출된바 있다. 2011년에 수립된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2012~2020)」에서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해양산업 진흥을 위해 해양에너지, 해양장비, 해양산업신소재 등 5대 전략기술, 21개의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3]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해양산업진흥 분야 중점과제 현황

이슈	전략기술	중점과제
해양산업 진흥		01.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기술 02.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03. 미활용 해수역 이용발전기술
	해양장비	04. 해양핵심장비 국산화 기술 05. 해양구조물 시공·유지보수 수중로봇 기술 06. 해저극한지 수중탐사 잠수정 기술 07. 수중무선통신 고도화·산업화 기술 08. 해저플랜트 구축 기반기술
	해양산업신 소재	09. 해수용존물질의 산업소재화 생산기술 10. 해양생물유래 산업신소재 기술 11.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반 해수담수화 기술 12. 해양생명현상 분석을 통한 생리·기능 활용 기술 13. 이산화탄소 및 농축해수의 산업소재화 기술
	항만·물류시 스템	14. 해상풍력기반 에너지 자립형 녹색 항만 구축 기술 15. 스마트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 16. U기반 해운물류시스템 기반기술 17. 피해저감 항만 구조물 개발 및 항만재해 대응기술
	신선박기술	18. 탄소배출 저감 녹색선박 기술 19. 무탄소 동력선박 기술 20. 극한지 운항 선박용 핵심기술 21. 위험환경 대응 지능형 무인선박 기술

2. 타 지자체 정책

(1) 해양관광레저 분야

연안을 보유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최근 들어 해양관광레저와 문화적 콘텐츠를 연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섬 관광 및 생태·체험·힐링 중심의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표 4] 타 지자체 해양관광레저 분야 주요정책

구 분	주요정책
해양관광 거점, 마 리나·크루즈 시설 조성	(부산) 크루즈·마리나 시설 메카로서의 입지 강화 (경북) 관광거점 중심의 해양관광지 명소화 사업 추진 (경남) 국내·외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부두와 터미널 조성, 크루즈 업무 전담부서 운영 (전남)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해양마리나시설 확충, 해상 낚시공원 조성 (경기) 거점형 해양관광 시설 조성

구 분	주요정책
해양관광자원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여적 요소 동시 추진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조성 (경북) 해안마을 브랜드화를 통한 해양문화 차별화
생태·체험·힐링 등 지속가능한 체험형 상품 개발	(전남) 휴양·체험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경북) 해양 생태·힐링 중심의 관광거점 개발 (경기) 수도권 스킨스쿠버 유입을 위한 수중 촬영대회, 수중이벤트 개최

※ 출처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p. 148 재구성

(2) 수산 분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생산설비 및 장비개선을 통해 생산성 개선, 고품질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과 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5] 타 지자체 수산분야 주요정책

구 분	주요정책
소비자 니즈에 기초 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경기, 전북)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확충,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및 관련 작업장 확충 (전남) 해면양식 및 기반시설 확충, 웰빙 해조류 양식어업 육성 (강원) 돌기해삼 특화산업 육성, 식품가공산업 중점육성 (경북) 친환경 스마트 양식벨트 조성, 지역별 양식 특화품종 육성,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확대, 소비자 맞춤형 ICT 융합 수산식품 BIZ 모델 개발 (부산) 수산식품 연구지원센터 건립 운영, 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등
친환경적 수산업 체 계 확립으로 수산물 안전기반 구축	(경기) 인공어초 시설 및 사후관리, 우럭·넙치 등의 치어 방류사업, 바다숲 조성 등 (전북) 연안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확대 조성, 갯벌어업 육성 사업 운영 (전남) 무산처리 친환경 김양식 확대, 어장정화사업 등 환경양식어업 육성 (경남)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

※ 출처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p. 135 재구성

(3) 신산업 분야

해양바이오, 해양헬스케어, 해양에너지, 레저선박건조, 관광어산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대형시설, 장비 등을 유치하고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6] 타 지자체 신산업 분야 주요정책

구 분	주요정책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경북) 해양바이오산업 거점조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남) 해양바이오통계기술혁신·일자리를 위한 미래신산업으로 육성 (인천) 해양바이오에너지 메카도시로 성장 추진
해양 헬스케어 산업 육성	(경북) 관광 연계형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 해양헬스케어 컴플렉스 조성 등 사업추진 (부산) 2010년 해외환자 유치에 위한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12년) (강원) 속초·고성·양양을 환동해 국제 헬스케어 권역으로 설정, 설악산·온천 등과 연계한 치유공간 조성

※ 출처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p. 166 재구성

Ⅲ. 충청남도 해양신산업 여건 분석에 따른 정책방향

1. 해양관광레저 분야

충청남도는 리아스식 해안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어 요트 등 다채로운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한 천혜의 공간자원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유부도, 천수만, 근소만 등은 조류관광의 최적지이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과는 최단거리(339km)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표적인 항구도시가 부재하고, 복합관광단지 부재가 현실이다. 또한, 연간 숙박객수 비중이 전국 대비 약 1.8%로 매우 낮은 편이며, 공항이 부재하고 고속국도·대중교통이 연안으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 7] 해양관광레저 분야 SWOT 분석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 편의성 ●태안해안국립공원, 리아스식 해안 등 특색 있는 해양생태환경 ●다양한 해수욕장과 수려한 도서자원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로 보유 ●향토축제·유적 등 다양한 문화자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 및 도서지역 접근성 미흡 ●부족한 관광 기반시설 및 인프라 ●해양관광의 해수욕 및 계절적 편중 ●항구도시·배후단지 발달 미흡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시장 유연화와 전세계적 고령인구 증가 ●보령 원산도~안면도 연육교 개통^(18년 예정) ●체험형, 생태형 관광상품에 대한 관심 증대 ●아시아 인·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성장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대 ●관광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내·외 경쟁 ●항만 인프라 투자를 위한 배후 기반시설 미흡

※ 출처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p. 207

해양관광레저 분야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해양관광레저 분야의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당진·아산을 수도권 근접형 해양마리나·레저스포츠 공간으로 육성하고 둘째, 보령·태안은 힐링·생태관광을 육성하여 장기 체류형 관광지로 체질을 개선하고 셋째, 서산은 대신항 국제여객선 취항(2017년 예정)과 연계하고 서천은 갯벌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접목한 해양생태관광지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한편 넷째, 유·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 등 충남의 청정해역을 활용한 현장 체험형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수산 분야

충청남도 수산분야의 장점으로 김, 멸치, 굴, 꽃게, 바지락, 해삼 등은 물론 어패류·해조류 등 품종이 다양하고, 수도권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활어, 선어 등 신선수산물의 공급이 가능하고 어촌의 서비스 및 관광산업 확대가 가능한 점이다. 반면, 약점으로는 어가 고령화율이 35%(전국 평균 29.9%)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어업인구는 연 4.9% 감소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생산량은 2013년 기준 연간 12만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3.88%(전국 6위) 규모로 낮은 수준이다. 수산물 수출 규모도 2013년 기준 5,727만 달러로 전국 대비 2.7% 규모로 낮은 수준이다.

[표 8] 수산분야 SWOT 분석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안의 다양한 수산특산물 ●수도권과의 근접성 ●넓은 면적의 갯벌 보유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인 감소 및 인구 노령화 심화 ●낮은 수산물 생산량·수출 규모 ●1차 산업 중심의 수산업 구조 ●어선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악화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및 해양자원 가치 증대 ●관광·레저산업 수요 증가 ●해외 관광객 증가 및 관심 확대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수산업 생산·유통 구조상의 한계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환경 변화 및 생태계 교란 ●불법어업, 어업분쟁 증가에 따른 어업갈등 심화

※ 출처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p. 198

수산분야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수산분야에서의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남당항 등 복합형 다기능항 개발 및 노후어항 재정비를 통해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 둘째, 충남 4대 전략품종 중점육성, 천일염산업 명품화개발,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등 수산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셋째,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기술 도입·확산으로 4계절 수산양식 고도화 넷째, 어촌 정주여건 개선,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귀어민 유입 증대 등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어촌공동체를 구현하여야 한다.

3. 신산업 분야

충청남도는 5대 전략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디지털 영상, 인쇄전자), 3대 연계산업(2차 전지, 기능성화학, 기계부품) 그리고 연안 시·군에 약 6만여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등 발달된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머드, 염전, 갯벌 등 특색있는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4년 4월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 우수한 바이오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접한 대덕 연구단지와 협업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해운업, 선박·플랜트산업 등은 남해안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해양수산 관련 대학, 연구기관의 부재는 중장기적으로 인력양성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연안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 간 산업발달 격차는 동반성장을 위한 가치사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표 9] 신산업 분야 SWOT 분석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부지역 제조업·산업단지 발달 ●머드·염전·갯벌 등 특색 있는 해양자원 ●산업용 에너지 조달용이 ●서해대교를 통한 수도권 접근성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우수한 바이오 연구기반 구축
----	---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수산업 등 전통산업 중심의 해양산업 구조 ●낮은 재정자립도 ●취약한 항만·물류 산업 여건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산업 첨단화에 대한 관심 증대 ●빅데이터, 융복합 등 새로운 기술트렌드 ●중국시장의 급속한 규모 확대와 중국 동부 연안지역의 발전 ●해양바이오·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 및 탁월한 연구성과 창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경제 불안정성 심화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 ●국가사업 유치에 위한 국내외 지자체간 경쟁 ●해양분야 산업의 고위험·고비용 특성

※ 출처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p. 236

신산업 분야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신산업 분야에서의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보령, 태안지역에서는 머드, 염지하수를 활용한 의료·관광·해양자원 융합 해양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둘째, 제철소, 화력발전소, 장항생태산업단지를 활용한 바이오수소, 바이오디젤, 해수냉난방, 해양바이오소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태안을 중심으로 수중문화재 발굴과 관상어산업 육성 등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넷째,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 수리, 계류산업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IV. 충청남도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과제 및 정책제언

1. 충청남도 해양수산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충청남도는 해양수산 비전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建道 충남³⁾”으로 설정하였으며, 비전 실현을 위해 3대 목표(깨끗하고 건강한 바다⁴⁾, 풍요와 역동의 바다⁵⁾, 세계를 향한 교류의 바다⁶⁾), 6대 추진전략과 총 98개 단위과제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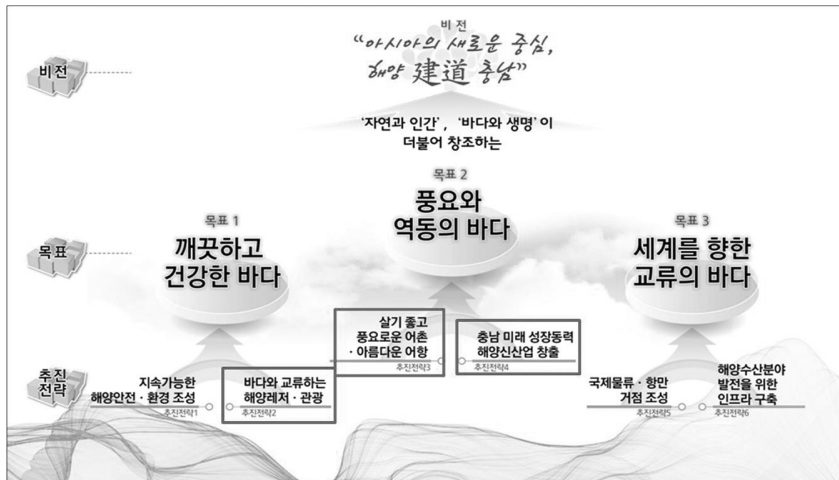
3) 비전에 내포된 의미는 해양이 충청남도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발전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한편, 내륙과의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를 도모한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4) 충청남도의 바다가 지닌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보전을 전제로 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

5) 열려있는 바다와 충청남도가 지닌 고유 정체성이 어우러져 살아 움직이는 지역경제 실현

6) 바다를 매개로 지역·문화 간 교류, 인적·물적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소통의 장을 제공

6대 추진전략 중 해양신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추진전략으로는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관광’,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아름다운 어항’, ‘충남 미래 성장동력 해양신산업 창출’로 사료된다.



※ 출처 :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p. 241

[그림 1] 충청남도 해양수산비전 체계도

2.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과제⁷⁾

해양관광레저 및 수산 분야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명과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신산업 분야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1) 해양관광레저 및 수산 분야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상 해양관광레저 분야는 총 25개 과제가 도출되었고, 해양신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는 대략 11개 과제로 분류된다.

[표 10] 해양신산업 관련 해양관광레저 분야 과제현황

추진분야	과제명	주요 내용
충청남도 관광 랜드 마크 조성	가로림만 융합형 관광지 조성	가로림만 해양습지생태공원 조성, 어촌마을 중심의 해양체험·생태관광지 조성 등

7) 앞으로 제시하고자하는 유망과제는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상에 도출된 98개 과제에 대하여 필자 주관에 따라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과제 33개를 선별하여 재구성하였다.

추진분야	과제명	주요 내용
충청남도 관광 랜드 마크 조성	천수만 관광 휴양벨트 조성	천수만 권역 개발 추진위원회(가칭) 운영, 천수만 개발권역 및 방향 재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안면도 아름다운 해안마을 등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복합 휴양시설 구축 및 도서 특화 관광산업 육성, 인근 자섬 연계 관광패키지 개발
	안면도 관광지 개발	테마파크&워터파크, 콘도, 기업연수원, 씨사이드, 골프장 등
	대천 머드관광 고부가가치화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 보령 시내관광 활성화 등
서해안권 해양레저 거점 조성	서해 요트 아일랜드 조성	요트 네트워크 조성, 해양레저 메가이벤트 개최, 해양레저 교육시설 확충 등
	수도권 맞춤형 해 중레저 관광여건 조성	우수 해중경관 포인트 지정, 해중레저 웹(Web) 안내소 구축,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등
	왜목 해양 레저타운 조성	왜목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관광숙박·휴양문화시설 유치, 스파 시설 조성 등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중간기착형 크루 즈 관광지 개발	텐더보트 접안여건 조성, 보령~안면 투어버스 운행, 보령 하선~서울 이동~인천 승선 연계 관광코스 기획 등
	대산항 관광기반 시설 조성 및 외국인 수용태세 정비	대산항 국제관광프라자 조성, 관광안내서비스 개선사업, 중국인 문화교류제 개최 등
도서의 관광 자원화	유형별 도서관광지 개발	생태체험·감상형 도서(유부도, 난도), 종합레저형 도서(대난지도), 역사·문화 관광형 도서(호도, 격렬비열도), 경관감상형 도서(외연도 등) 개발 추진

수산분야는 총 27개 과제가 도출되었고, 이중 해양신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는 해양관광레저 분야와 비슷하게 대략 11개 과제로 분류된다.

[표 11] 해양신산업 관련 수산분야 과제현황

추진분야	과제명	주요 내용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공간 으로 육성	복합형 다기능항 개발	어업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물류 유통, 관광·레저, 휴양공간, 문화 복지 등 정주생활 거점으로서의 어항 조성
	어촌 6차산업화	어촌지역의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어촌주민 주도의 특화계획에 따라 1차(생산)·2차(가공)·3차(서비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수산자원 회복·증대	패키지형 수산자 원조성	인공어초 조성, 수산종묘방류, 자연석시설 등 조성, 해중림 시설, 해조류(잘피, 모자반 등)식재 등 조성, 어류 등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를 위한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
	갯벌어장 복원	새조개, 바지락 등 고부가가치 자원의 서식환경 조성·개선, 갯벌어장 조성을 통해 생태계 복원하고,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 추진

추진분야	과제명	주요 내용
수산 경쟁력 강화	국제수산물지재 산업단지 조성	어업·양식업·가공 및 유통 관련 핵심기자재산업 집중 육성, 국제수산물지재 박람회 개최 추진, 품질·성능검사 인증시스템 구축 등 보급 활성화
	충남 4대 전략품 중 중점 육성	바지락 명품단지, 해삼 특화단지, 김 클러스터 구축, 갯벌참굴양식 육성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굴 유통·가공시설 등 웰빙특화단지조성, 수산물 가공업체 수산물 가공기자재 및 처리·저장시설 등을 공동 사용
	천일염산업 명품화 개발	천일염 산지가공시설 및 처리·저장 현대화, 천일염 이력관리, 유통 및 공급 기능 강화로 안전 수산식품 체계 구축
연근해 수산양식 고도화 및 활성화	발전소 온배수 활용 양식 시스템 구축	화력발전소(당진, 태안, 보령, 서천)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종묘(치어) 양식 난방시스템 구축, 밀집양식시설 설치 등 규모 확대
	수산 증·양식 복합단지 조성	해상 부분은 해상풍력단지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수중공간은 수산 증·양식 단지를 조성하여 수산물 생산 및 해양생물 서식지 제공
내수면 양식 경쟁력 강화	바이오플라 등 친환경 양식 시스템 구축	친환경 양식 바이오플라 활성화, 양식산업의 규모화 및 현대화(DB구축, 실시간 제어시스템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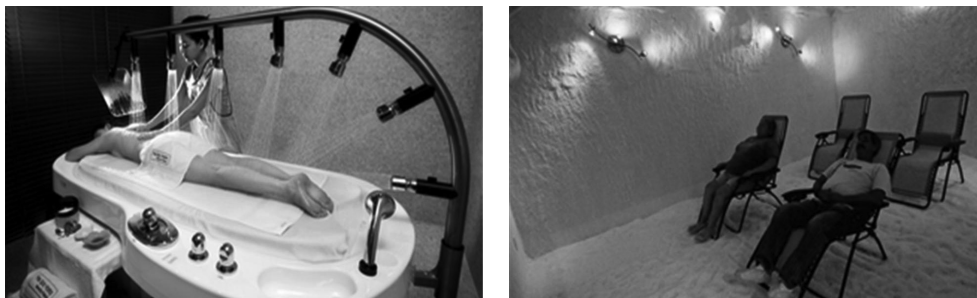
2) 신산업 분야

신산업 분야는 총 11개 과제로서 모든 과제가 해양신산업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지역자원 연계형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과제로는 해양 헬스케어산업 육성, 해양수산 IoT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 기능성소재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등 5개 과제가 도출되었고, ‘해양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혁신’을 위해 ‘해수이용 냉난방 시스템 구축 및 보급’, ‘해양바이오수소 단지조성’ 등 4개 과제 그리고 ‘해양수산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사업 육성’, ‘관상어산업 육성’과제가 도출되었다.

(1) 해양 헬스케어산업 육성

평균수명과 고령인구의 증가, 웰빙을 추구하는 트렌드의 확산 등으로 이른바 치유산업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특색 있는 해안환경과 의료 인프라 등 해양치유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후발주자에 머물러 있고,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충남 특화 해양치유자원 소재 발굴 및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즉, 머드, 염지하수 등을 활용한 충남 고유의 해양 헬스케어 소재 발굴 및 내륙자원과 연계하고, 발굴된 해양 헬스케어 소재의 특성과 경쟁력 분석은 물론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는 해양 헬스케어 시범단지 국가사업 유치, 웰니스 스파임상센터, 해양치유연구센터·건강증진센터 건립, 해양 헬스케어·휴양시설 조성 지원 등 산업화 기반도 조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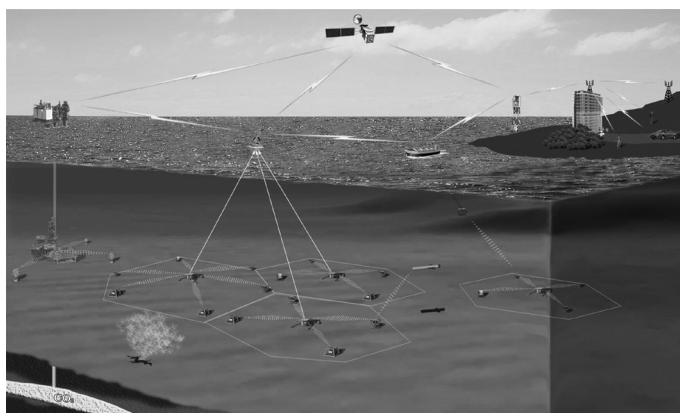


[그림 2] 다양한 해양치유 요법

(2) 해양수산 IoT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IT 기술을 전통산업에 융합하고 부족한 기술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당진 석문산업단지)에 해양수산 IoT 클러스터 조성 시 해양정보통신분야 기술 및 시설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IoT 클러스터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과 연구인프라가 우수하여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5년부터 호서대학교(해양IT융합기술연구소),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컨소시엄 형태로 해양수산부 R&D 과제인 ‘분산형 수중 관측·제어망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수중망을 위한 통신 모뎀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 육상망 연계 수중통신 네트워크 구축, 수중 재난 대응 인프라 확보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병행하여 당진항에 해양수산운용실험센터 및 부대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해양수산 IoT 클러스터를 조성해야하기 때문에 해양수산 IoT 인력양성, 해양수산IT벤처 밸리 조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획도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그림 3] 수중 관측·제어망 개념도

※ 출처 : SK텔레콤 보도자료

(3) 해양수산 기능성소재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해양생물을 이용한 바이오기능성소재산업은 지속적 사용이 용이하고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충청남도는 풍부한 갯벌자원과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관으로 해양 유래 고부가가치 소재·제품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

이러한 기능성 소재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술표준화,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장비활용 지원, 기술지도 및 이전, 마케팅 및 시장조사 지원 그리고 산업화에 필요한 인·허가 등 법률 컨설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상징성을 고려해본다면 사업화지원센터명을 가칭 ‘충남해양바이오사업화지원센터’로 명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4) 수중문화재 발굴산업 육성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으로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영역이다. 국내 수중문화재 발굴사업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전용 탐사선 및 장비, 전문인력 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태안군 인근 해역 전역에 걸쳐 고려청자 등 국보급 유물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발굴된 수중문화재의 품질과 역사적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⁸⁾ 수중문화재 발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가칭 ‘국립태안해저유물전시관’ 건립을 통해 연관 기자재 및 정보·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저유물 전용탐사선(최소 300톤급 규모)과 탐사장비를 확보하고, 수중고고학·보존과학 전문가 양성, 잠수인력 양성 및 잠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4]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체계도

8) 2007년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해역에서 최초 발굴된 후 2015년까지 수만여점의 해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2008년, 2009년 국정감사 당시 태안군 일원 지역 수중문화재 발굴 확대 필요성을 지적한바 있다.

(5)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

아산 인주면 갈매리 일원은 아산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는 지역으로 산업·관광 측면에서 개발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삽교호 호수공원과 연계함으로써 삽교호~아산호에 이르는 구간이 대표적인 범(汎)수도권 해양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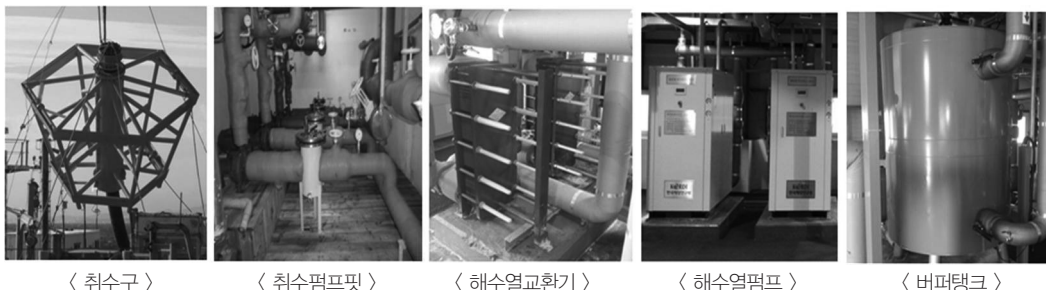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에는 산업시설(산업단지, 물류단지, 연구시설, 대기업 유치 등), 상업·업무시설(국제적 상업·업무기능, 컨벤션센터 등), 주거시설, 공공시설(환경기초시설, 공원·녹지, 친수공간 등), 관광·레저시설(해양레저시설, 공연장, 내수면 낚시공원 등) 등이 입주하여야 효과가 크며,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자생적 신성장동력 발굴과 디스플레이, 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수도권 근접형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6) 해수이용 냉난방시스템 구축 및 보급

해수이용 냉난방시스템은 대기와 해수의 온도차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청정하며, 안정적인 특징을 지닌다. 최근 몇 년 간 겨울·여름철 심각한 이슈가 되었던 전력피크(Peak) 문제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에너지 이용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 중 해수이용 냉난방시스템은 실현가능성, 기술개발의 정도, 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수이용 냉난방시스템에 역으로 활용한다면 역설적이게도 매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발전냉각수를 포함한 충청남도의 1일 해수취수량은 약 4천 만톤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취수하고 있고, 시설별로는 발전냉각수 6개소, 취수시설 81개소, 도서담수화 21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충청남도는 국가사업을 활용한 해수이용 냉난방시스템을 조기에 보급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수이용 냉난방시스템 도입 가능 지역 조사 및 최적입지 선정, 해수이용 냉난방시스템 테스트 베드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거친 후 궁극적으로는 연안지역에 일반보급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취수구 〉

〈 취수펌프 〉

〈 해수열교환기 〉

〈 해수열펌프 〉

〈 버퍼탱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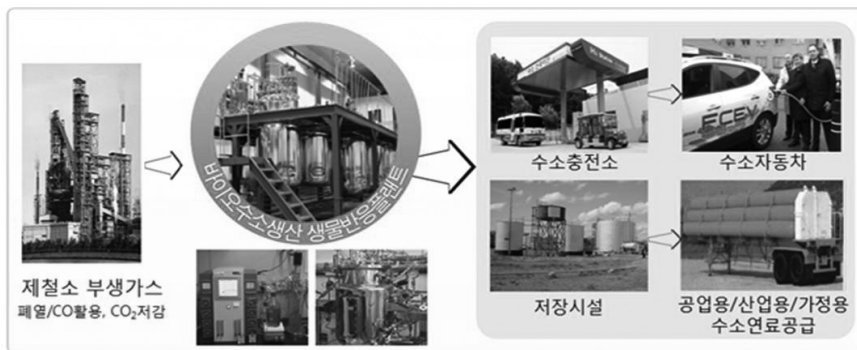
[그림 5] 해수 냉난방시스템 주요설비

(7) 해양바이오수소 단지 조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심해열수구 유래 초고온 고세균 ‘써모코커스 온누리누스 (Thermococcus onnurineus: NA1)⁹⁾ ‘균주에 의한 산업 부생가스·폐가스(CO) 이용 바이오수소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기존 바이오수소 생산율보다 향상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당진시에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해 있고, 향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산업기반 육성을 계획하고 있어 바이오수소 생산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¹⁰⁾

해양바이오수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시범플랜트 설계 및 구축, 시범플랜트 운전 및 대량실증생산을 거친 후 민간기업의 상업생산과 단지조성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해양바이오수소 상업생산이 이루어지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단지와의 연계체계도 구축된다면 당진시와 아산시를 아우르는 산업벨트가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림 6] 해양바이오수소 생산 프로세스

(8)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대량생산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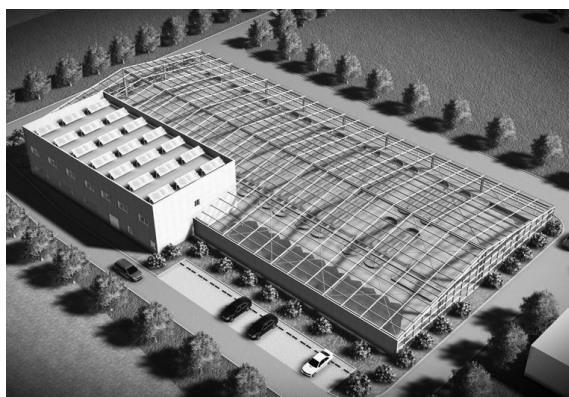
청정바이오에너지 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격하게 부상함에 따라 해양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Exxon Mobil, SunEco, Solazyme, Sapphire Energy, Algenol Biofuels 등이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세계시장 규모는 280억 갤런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 온배수의 폐열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연료 대량생산 실증단지 구축 및 산업화 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화석연료의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에너지 수급의 다각화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9) 심해 고세균 NA1은 일산화탄소를 먹고 경제성 높은 수소를 배출하는 특이 미생물이다.

10) 전 세계 수소 소비량은 연간 약 5천만톤(약 75조원) 규모이며, 국내는 약 130만톤(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현대자동차, 도요타 등이 수소연료자동차를 본격 양산하면서 2020년에는 약 280만대, 약 24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대상지역으로는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이 가능한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이 될 것이며, 대량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최적화 플랜트 설계 및 기반구축, 미세보류 바이오연료 플랜트 운용 및 시범생산, 해양바이오연료 추출 및 부산물 처리공정 실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7] 해양바이오연료 실증단지 조감도(안)

(9) 녹색에너지 자족섬 조성

국가적 에너지 부족 상황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충청남도에는 30여개의 유인도서들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할 현안과제이다.

녹색에너지 자족섬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족섬 조성여건 조사 및 시범사업 대상 도서 선정, 타당성조사 및 마을 기본설계(안) 수립, 주민공동체 조직구성 및 관리모델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녹색에너지 자족섬 조성은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연관산업 활성화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까지도 가능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산업 육성

국내외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마리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향후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산업 또한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충청남도 또한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마리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인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조선산업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레저용 선박과 같이 특정 분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중소조선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조선업체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관련 부품업체 육성 및 수출지원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레저용 선박 관련 기계부품박람회 개최, 레저용 선박 전문인력 양성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11) 관상어산업 육성

관상어는 식용어종에 비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¹¹⁾ 우리나라의 관상어 시장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해외에서의 관상어 수입 금액이 2005년 약 3,000만달러 규모에서 2013년에는 2배 규모인 약 6,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정도로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다.

관상어 산업은 종묘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관련 용품 생산과 R&D, 관리서비스 등의 영역에까지 발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국내 관상어 산업은 구조가 매우 영세하고, 기반 또한 탄탄하지 않으며, 정부차원에서의 관심도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 아직까지는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다.¹²⁾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수산업연구소를 통해 토산어종, 특성화품종에 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 관상어 양식업체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붐 조성을 위해 관상어산업 박람회 개최도 고려해볼만하다.

3.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IV.2에서와 같이 충청남도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과제를 살펴보았다. 유망과제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제시된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1)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mag/overseasView>)

12) 제주도에서 해수관상어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해마, 크라운어종 등을 최근에서야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총 사업비 10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경기도 시흥시에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1) 충분한 예산확보

「충청남도 해양수산물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앞에서 제시한 해양신산업 유망과제 33개 과제(해양관광레저분야 11개 과제, 수산분야 11개 과제, 신산업분야 11개 과제)에 대한 2030년까지의 소요예산(인프라까지 포함)은 해양관광레저분야 약 11조 5,000억원, 수산분야 약 4,000억원, 신산업분야 약 1조원 등 총 약 12조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중 국비와 민자를 제외하면 충청남도에서 확보해야 할 지방비(도·시·군 포함)는 해양관광레저분야 1,830억원, 수산분야 1,295억원, 신산업분야 1,278원 등 총 4,403억원 규모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와 민간투자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학·연계 등 협업강화를 통해 사업 유치를 확대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방식의 사업 참여도 좋은 대안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형평성), 시급성을 강조할 만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중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장기·대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 분야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충청남도가 2015년 1,476억원을 투자하여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투자실적이 11위로 중위권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¹³⁾

2) 해양수산 관련 대학, 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충청남도는 환황해경제권과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해양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해양수산 거점기관(대학, 연구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표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해양수산에 특화된 대학은 전무하며, 국책·국가 연구기관은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 2015년 4월에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전부이다. 반면, 부산광역시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전라남도에는 목포해양대학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등 해양수산 분야에 특성화된 대학을 보유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저변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양성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표 12〉 시도별 해양수산 국책·국가 연구기관 및 대학 현황(단과대 포함)

구분	계	충남	경북	부산 경남	전남	전북	강원	인천	경기	제주
계	36	2	5	12	4	3	1	2	2	5

13) 2015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연구개발(R&D) 투자실적은 전북 3,406억원, 충북 3,276억원, 경북 2,766억원, 경기도 2,717억원, 전남 1,821억원 순이다.

구분	계	충남	경북	부산 경남	전남	전북	강원	인천	경기	제주
국책·국가 연구기관	29	2	5	9	2	2	1	2	2	4
해양수산 특화대학	7	—	—	3	2	1	—	—	—	1

※ 출처 :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내부자료(2015. 9)

충청남도에 해양수산특성화 대학교 설립(가칭, 국립해양수산대학교)과 해양수산 분야 국책기관의 분원유치가 현실화 된다면 해양수산 분야 특히, 해양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조기에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문제는 설립·유치를 위한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며, 설립·유치 노력에는 비단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등), 지역 언론 등 민·관이 대응적 차원에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V. 결어

지금까지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정부와 타 지자체 정책동향, 충청남도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해양신산업 유망과제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해양신산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장점은 지리적으로 중부권에 위치함에 따른 수도권, 대전권(세종 포함)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우수한 해양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 높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 등 동아시아 경제의 급부상에 따라 환황해권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충청남도로 이전하려는 산업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해양신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 인프라(연구시설, 전문인력 등)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충청남도 해양신산업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왜냐하면,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kingdon(1984)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¹⁴⁾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제로 부상시키거나, 정부정책으로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극적인 계기(dramatic event)가 필요한데 충청남도의 경우 2013년 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 해양수산분야 컨트롤 타워인 ‘해양수산국’을 출범시킨 점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 정책의 창을 활

14)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개념은 특정한 사회문제나 관심사를 정부의제로 부상시키거나,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흐름(politics stream)의 극적인 계기(dramatic event)가 있어야 하며, 문제, 대안, 참여자, 기회가 결합되면서 정책의제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정책의 창이 열렸다고 표현하며, 정책의 창을 ‘정책주창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정책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리는 기회’로 정의하고 있다. J. Kingdon(1984), *Agenda,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pp. 122-151.

짜 열어 젖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의 연안 및 해양은 아름다운 해안경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도서환경, 넓고 풍요로운 갯벌 등 해양환경이 매우 양호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신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바다가 삶의 터전인 도민은 물론 충청남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바다를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도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책학자인 마틴(Ben R. Martin, 2013) 교수가 제시한 혁신연구(Innovation studies)에서 앞으로 도전해야 할 15개 아젠더 중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으로', '위험한 혁신(환경훼손, 유전자변형 등)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혁신으로', '副 창출을 위한 혁신으로부터 복지를 위한 혁신으로', '승자독식으로부터 모두가 공정함을 추구하는 혁신으로' 등 4개의 아젠더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향후 해양신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깊은 성찰을 가지고 사유해볼 문제이다.

참 고 문 헌

강길모·오위영·권문상·박세현, 2006, “해양과학기술(MT)의 현안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2권 제1호, p.15

권문상·강길모, 2014, 『해양수치통계백서 -숫자로 본 해양의 세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34~35

국토해양부, 2011,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2012~2020)』

범부처계획, 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범부처계획, 201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

해양수산부, 2015, “갯벌복원을 통한 자원의 종합계획(2015.8.25. 대통령 보고문건)”

해양수산부, 2015,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15.12)”, pp.10~11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Ben R. Martin, 2013, “Innovation Studies: An Emerging Agenda”, Evolution and Future Challenges. pp. 168-186

J. Kingdon, 1984, Agenda,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pp. 122~151

R. Costanza et al., 1997,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387, pp. 253~260

기 타 자 료

중국 국가해양국, 「2014년 중국해양경제통계 공보」(2015년 3월 18일 발표)

해양수산발전기본법(법률 제14079호)

<http://www.kati.net/mag/overseasView>

동아시아의 역사 공간 ‘황해지중해’

권 덕 영 ■ 부산외국어대학교

I. 머리말

몇년 전 나홍진 감독이 제작한 영화 <황해>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영화에서 묘사한 황해는 중국인도 조선인도, 그리고 한국인도 아닌 境界人 ‘구남’으로 대표되는 조선족 동포들이 사회주의 중국과 자본주의 한국을 넘나드는 경계의 바다였고, 어느 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한 이들 경계인들이 영원히 잠든 마지막 안식처였다. 다시 말하면 황해는 서로 다른 두 세계의 경계이면서 아울러 두 세계를 아우르는 묘한 공간이었다.

고대 동아시아 역사 속의 황해 역시 각 지역을 가르는 경계의 바다인 동시에 소통과 융합의 공간이었다. 황해의 그러한 특성은 중국 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과 인문환경, 곧 황해의 지중해적 성격에 기인한다. 그래서인지 근래 일부에서는 황해뿐만 아니라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심지어 오호츠크해까지를 포함한 광역의 동아시아 연해를 東亞地中海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동아시아 역사는 동아시아지중해를 매개로 형성·발전하였다는 이른바 ‘동아시아지중해론’을 제기하였다. 일본에서 처음 제기한 동아시아지중해론은 한국에도 소개되어,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종래 무관심했던 동아시아의 바다를 역사와 문화교류의 연구 수단으로 끌어들이어 활용하고자 한 시도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막상 동아시아지중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인 개념 설정은 물론 활용 방식 등에 몇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 권덕영,

1) 권덕영, 「‘동아시아지중해’론과 고대 황해의 지중해적 성격」, 『지중해지역연구』 13-2, 2011, 27~55쪽.

「‘동아지중해’론과 고대 황해의 지중해적 성격」, 『지중해지역연구』 13-2, 2011, 27~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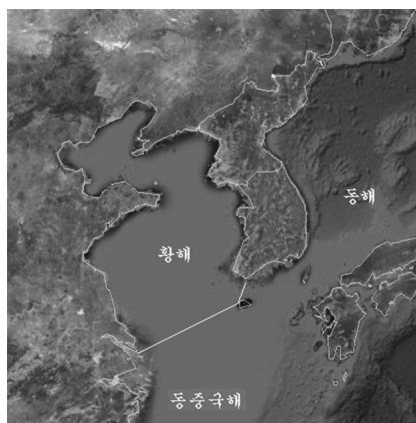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동아지중해론에 기초한 구체적인 역사연구 방법론이 결여되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황해가 동아시아 역사의 교류와 융합의 현상이었음을 추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황해의 지중해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황해의 역사 환경

1. 자연조건

황해는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이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 둘러싸였고 남쪽이 트인 반폐쇄해(semi-enclosed sea)이다. 황해의 남쪽은 전라남도 진도 서쪽 끝 지점에서 제주도 차귀도 서쪽을 잇는 선과 중국 長江 하구의 上海市 崇明島 동쪽을 연결하는 약 580km를 경계로 남해 및 동중국해와 구분된다. 이 경계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에서 우리나라 근해의 해양지리학적 여러 요소를 결정할 때 처음 설정한 것으로,²⁾ 다소 인위적이고 편의적인 구획이기는 하나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다.

한편 북쪽은 중국의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잇는 廟島列島 이북을 渤海라 하여 황해와 구분하기도 하고 혹은 발해를 포함한 해역까지를 황해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황해를 발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발해를 포함한 해역까지를 황해의 범주에 넣고자 한다. 그렇다면 황해는 동중국해 북서부, 곧 북위 31° 31'의 장강 하구에서 북북서쪽으로 뻗어 북위 41°의 발해만 동북쪽에 이르는 거대한 灣(gulf) 형태의 內海라 할 수 있다.



[자료 1] 동아시아 해역

2) 朝鮮總督府水産試驗場, 『朝鮮海洋便覽』, 朝鮮總督府, 1936, 44~45쪽.

황해는 지질학적으로 신생대 제4기 말 간빙기에 해수면 상승에 의하여 한반도가 중국 대륙에서 분리되면서 형성되었다. 남북 길이는 약 1,000km이고, 동서는 가장 넓은 곳이 약 700km이며 전체 면적은 486,700km²이다. 평균 수심은 44m인데, 가장 깊은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서쪽 해역으로 103m이다. 동해의 평균 수심이 1,530m이고 남해가 101m이며 유럽지중해가 1,458m인 점을 감안하면, 황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얇은 바다라 할 수 있다. 전체 면적의 56.5%가 40m 이하의 淺海로 60m 이상의 비교적 깊은 곳은 동쪽, 곧 한반도 쪽에 편재하여 남북으로 뻗어 있다. 반면 중국 쪽은 장강과 황하 등의 거대 하천에서 매년 엄청난 양의 토사가 장기간 황해로 유입된 결과 수심이 매우 낮다. 장강 하구의 약 300km 해역이 수심 30m 이하라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

얇은 바다는 조그만 기상변화에도 상태가 쉽게 변한다. 그래서 황해는 파랑이 자주 일고 물길이 쉽게 바뀌며 뚜렷한 해수계가 없다. 물론 쿠로시오해류의 지류인 쓰시마난류로부터 분지되어 제주도 서쪽을 지나 황해로 유입되는 황해난류, 발해만에서 중국 대륙을 따라 남하하는 중국대륙연안수,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서한연안수가 있으나, 그 흐름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또한 황해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연해의 조류가 매우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황해는 주변 하천으로부터 많은 양의 淡水가 밀려들어 염분의 평균 농도가 32‰로, 주변의 다른 바다에 비하여 다소 낮다. 특히 황하와 장강 물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여름철의 염분 농도는 발해만을 비롯한 몇몇 중국 연안에서는 22‰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황해는 표면 온도의 연교차가 20℃ 이상 될 정도로 수온 변화가 심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황해가 원래 얇은 바다인 데다가 황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동아시아의 독특한 기후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황해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기후에 속한다. 황해는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동쪽과 남쪽으로 일본열도 및 태평양과 연접해 있다. 이처럼 황해는 비록 아시아 몬순(monsoon) 지역의 동북쪽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나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겨울에는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에서 발달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逆旋風 고기압대를 형성해 아시아 대륙 東岸을 따라 필리핀 북부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라 황해에는 강하고 찬 북서계절풍이 분다. 반면 여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발달하면서 南高北低의 기압대가 형성되어 황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근해에 고온 다습한 남동계절풍 또는 남서계절풍이 불게 된다. 그리고 봄과 가을은 시베리아기단과 북태평양기단이 서서히 교체되는 시기로, 황해에는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진 바람이 없다.³⁾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부는 계절풍을 무역풍(trade wind)이라 한다. 이는 전근대 범선시대에 이 바람을 해상무역에 효과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겨울과 여름에 각각 북서무역풍과 남서무역풍이라는 뚜렷한 계절풍이 부는 황

3) 오재호, 『기후학 1-기후와 대기순환』, 아르케, 1999, 154~172쪽; 설동일, 「우리나라 근해구역에 있어서의 월별 바람분포의 기후학적 특성」,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2-3, 2006, 185~192쪽.

해의 기후는 전근대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좋은 조건이 되었다.

기후뿐만 아니라 황해연안의 지형도 해상교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준다. 잘 알려져 있듯이 황해 양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황해 동쪽 연안, 곧 한반도 서해안에는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수많은 만들이 형성되어 있다. 압록강 입구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서남쪽 갑곶에 이르는 직선거리가 650km이지만, 해안선의 길이는 4,719km나 되어 肢節率이 무려 7.26에 이른다. 그리고 섬이 많아 서해안 도서지방의 해안선 총연장 길이는 3,700km에 달한다. 반면 중국 쪽 해안은 한반도 쪽에 비하여 굴곡이 심하지 않으나, 역시 크고 작은 만들이 형성되어 있다.

수많은 섬과 굴절지형이 어우르진 황해의 리아스식 해안은 자연적인 항·포구를 만들어 내었다. 물론 한반도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커서 연안에 항구와 포구가 발달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많은 항·포구가 만들어졌다. 대동강 하구의 남포항,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 한강 하구의 경기만 일대, 충청남도 당진군 북쪽의 아산만 일대, 금강 하구의 군산항, 주진천이 흘러드는 줄포만 일대, 영산강 하구의 목포항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중국 쪽에는 산둥반도의 赤山浦·乳山浦·膠州灣, 강소성의 장강 하구, 절강성의 항주만·태주만·온주만 등은 고대부터 널리 이용되던 항·포구였다.

황해를 둘러싼 중국과 한반도의 지형 역시 황해교류의 좋은 조건이 되고 있다. 한반도 지형은 東高西低의 형태로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을 척량산맥으로 삼아 수많은 산맥들이 동쪽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있다. 소백산맥에서 분지된 노령산맥,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차령산맥과 광주산맥, 낭림산맥에서 갈라진 마식령산맥·멸악산맥·연진산맥·묘향산맥·적유령산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산맥이 모두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질러 형성되었기 때문에 육로로 중국을 오가거나 한반도 내에서 육지로 남쪽과 북쪽을 오가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산맥뿐만 아니라 강 역시 한반도 지형의 특수성에 따라 대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유입된다. 북쪽의 압록강에서부터 남쪽의 영산강에 이르기까지 청천강, 대동강, 한강, 금강 등 크고 작은 강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간다. 중국의 동쪽 지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강은 황해를 중심으로 부챗살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遼河, 灤河, 大凌河 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발해만으로 들어가고 황하, 장강, 錢塘江, 靈江 등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간다.

예로부터 길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산 아래의 강줄기를 따라 강과 평행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황해를 둘러싼 한반도와 중국의 강과 산맥은 대부분 바다를 향해 뻗어 있다. 이러한 황해 주변의 지형은 육로를 통한 한·중간의 왕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한·중간의 교류와 이동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 실제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황해는 바로 그러한 교류를 가능하게 한 매개체였다.

2. 인문환경

고대 동아시아의 황해교류는 황해의 자연조건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문명 혹은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파되는 속성을 가진다. 그런데 전근대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앞선 지역은 중국 대륙이고,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상대적으로 뒤쳐진 곳이었다. 이처럼 문화적 격차가 뚜렷한 동아시아 삼국의 중간에 황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황해는 이들 지역 간 문화전파와 경제교류의 통로로서 널리 활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황해교류는 전근대 동아시아 문명과 문화의 지역적 불균형이라는 인문환경 속에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였다.

일찍이 조셉 니덤(Joseph Needham)이 중국 문명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심적인 문명’이라 표현하였듯이,⁴⁾ 중국은 일찍부터 사상과 기술을 창안해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그러한 중국 문명이 세계적으로 공헌한 바가 지대하거니와, 중국은 기원전 십수세기에 이미 역법과 야철 기술을 계발하였고, 漢 이전에 이미 초기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도자기 제작기술은 이후 약 1천여년 동안 세계적으로 중국만이 보유하고 있던 최고의 기술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세기경에 비로소 중국에 버금가는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문명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기술력 차이는 문명의 차이를 초래하였고,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중국 왕래를 촉진시켰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삼국의 황해를 통한 교류와 교섭이었다.

동아시아 삼국의 문명 혹은 문화적 격차와 함께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사상 역시 황해교류랄까 교역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인들은 선진시대부터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중국을 ‘中華’라 하고 중화를 둘러싼 지역을 ‘夷狄’이라 하여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중화는 德으로 이적을 교화시킬 의무가 있고 이적은 중화의 덕화에 따라야한다고 여겼다. 그러한 이념에 따라 이적이 중화의 천자를 찾아오는 것을 조공이라 하고, 천자가 조공의 대가로 관작을 내려주는 것을 책봉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동아시아의 전형적인 국제관계인 조공·책봉제도이다.

다분히 이념적인 조공·책봉체제 하에서 중국은 천자의 덕화가 사방에 널리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이적들을 초치하였고, 이적은 조공을 명분으로 중국을 왕래하며 정치·경제·문화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그러한 이적 가운데 고대 한반도의 여러 나라와 일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사이에는 황해가 놓여있다. 중국과의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지형상 육로 통행이 어려운 한반도와 중국의 조공·책봉 행렬은 황해를 유용한 통로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황해교류의 인문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황해 주변의 역사적 추이이다. 황하 유역에서 발흥한 중국은 오랫동안 분열시대를 거쳐 기원전 3세기 중엽에 秦에 의하여 통일되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 시황제는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고 흉노의 침입에 대비했는데,

4) 조셉 니덤 著, 李錫浩·李鐵柱·林禎岱·崔林淳 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I)』, 을유문화사, 1985, 1쪽.

그것이 이후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지리적 경계가 되었다. 그런데 만리장성 이북, 특히 중국 동북방 변경에는 여러 종족들이 교대로 일어나 세력을 다투며 끊임없이 중국을 침범하였다. 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여러 나라와도 대립하였다. 이처럼 황해의 동쪽 지역인 한반도와 서쪽 지역인 중국 대륙 중간에 늘 적대적인 집단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사구도 속에서 한반도와 중국 대륙 간의 교류와 교섭은 육로가 아닌 해로, 곧 황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북방 유목민의 동북지역 점거뿐만 아니라 한사군 설치에 따른 중국인의 한반도 이주도 고대 동아시아의 황해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원전 108년에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낙랑군과 후에 公孫氏가 낙랑군 남쪽에 설치한 대방군에는 많은 한인들이 건너와 거주하였다. 그들은 주변 토착세력과 갈등과 화해를 거듭하며 수백 년 동안 존속하다가 토착세력의 저항과 중국 대륙의 정세 변화로 4세기 초에 한반도에서 축출되었다. 이에 낙랑군과 대방군에 거주하던 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돌아갔겠으나, 나머지 상당수는 고구려와 백제의 통치를 받으며 그곳에서 살았을 것이다.

일찍부터 한반도 중부 해안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낙랑군과 대방군은 동북아시아 국제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특히 낙랑군은 ‘극동의 고대 무역기지’라 불릴 정도로⁵⁾ 국제무역에 주력하여 중국 대륙은 물론 삼한, 왜와도 활발하게 교역하였다. 당시 국제 해상무역을 담당 한 중국 상인들은 주로 황해와 남해 해안가를 대상으로 토착민들과 교역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五銖錢과 貨泉이 주로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해상교통의 요지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어쨌든 중국 상인들은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낙랑군과 대방군을 거점으로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무역을 장악하였는데, 그들이 대거 한반도에 정착함으로써 고대 황해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다.

황해 주변의 인문지리적 요소도 고대 동아시아의 교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취락은 강과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 주로 형성되었다. 강과 바다는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교류와 교섭에 용이한 수운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모두 강가였고, 그리스와 로마의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지중해 연안에 집중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고대 한반도와 중국의 여러 도시들도 강을 끼고 발달하였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과 백제의 수도 한성·웅진·사비는 모두 대동강과 한강 그리고 금강 유역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중국의 황하를 따라 낙양, 汴州(지금의 하남성 카이펑시開封市), 濟州(지금의 산둥성 지난시濟南市), 淄州(지금의 산둥성 저보시淄博市), 靑州(지금의 산둥성 칭저우시靑州市) 같은 고대도시들이 만들어졌고, 회수 가에는 楚州(지금의 강소성 화이안시 추저우구楚州區)와 泗州, 장강을 따라서는 양주揚州, 江寧(지금의 강소성 난징시南京市), 江州(지금의 강서성 주장시九江市) 같은 굴지의 도시들이 발달하였다. 전술하였듯이 한반도와 중국의 강들은 대부분 황해를 향해 흐른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강을 따라 내려오면 모두 황해에 도달하

5) 金哲垸, 「百濟社會와 그 文化」,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975, 53쪽.

게 된다. 따라서 황해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과 문화의 결집처인 동시에 분배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황해는 동아시아의 지역에 따른 문명과 문화의 격차, 중화사상의 확장, 북방 유목민의 중국 동북지역 점거에 따른 역사적 갈등, 황해로 유입되는 강가의 문명도시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대 동아시아 교류와 교섭의 통로가 되고 교역의 장이 되었다. 결국 황해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교묘하게 결합하여 동아시아 역사발전의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했다고 하겠다.

Ⅲ. 황해의 지중해적 성격

1. 지리적 지중해

바다는 전체 지구 면적의 약 71%에 해당하는 3억 6,200만㎢를 차지할 정도로 광대하다. 광대한 만큼이나 그 형태와 특성도 다양한데, 그것을 크기와 형상에 따라 구분하면 대양(ocean)과 부속해(dependent sea)로 나눌 수 있다. 대양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독자적인 해류를 가진 바다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그것이다. 이들의 경계는 주로 육지와 해저의 지형적 경계물에 의하여 정해지거니와, 대양 중에서 태평양이 가장 넓어 전체 해양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대서양은 24%, 인도양은 20%를 차지한다.

한편 부속해는 전체 해양 면적의 10%에 불과한데, 대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다. 부속해 가운데 가장 큰 북극해는 면적이 약 1,409만㎢로, 대양 중에서 가장 작은 인도양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대양과 부속해의 상대적 크기를 잘 말해준다. 그리고 부속해는 대양에 비해 대체로 수심이 낮으며 독자적인 해류계를 갖지 못하고 대양의 해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육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지질학적으로 대양보다 늦은 시기에 생성되었다.

부속해는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하는데, 그것은 다시 연해(marginal sea)와 지중해(mediterranean sea)로 나뉜다.⁶⁾ 연해는 대양의 일부가 섬이나 열도 또는 반도 등에 의하여 불완전하게 막힌 대륙 주변부의 바다이다. 태평양 연안의 베링해와 오호츠크해는 각각 알류산열도와 쿠릴열도에 의하여 태평양과 구분되고, 북해는 그레이트브리튼섬으로 대서양과 구분되며, 안다만해는 안다만제도와 니코바르제도에 의하여 인도양과 구분된다. 이러한 연해는 지중해에 비하여 대양과의 통로가 넓어 대양에 흐르는 해류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그러한 해류에 의하여 연해의 해수가 활발하게 순환된다.

또 다른 부속해인 지중해는 주위가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한다. 이는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시 대지중해와 소지중해로 나눌 수 있다. 대지중해는 두 개 이상의 대륙으로 둘러싸

6) 자연지리학사전편찬위원회, 『자연지리학사전』, 한울아카데미, 2002, 230쪽.

인 바다이고, 소지중해는 대륙 중간에 깊숙이 灣入하여 그 입구가 가운데 부분에 비하여 좁으면서 거의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대지중해로는 북극해, 아메리카지중해, 유럽지중해 등을 들 수 있고, 소지중해로는 발트해, 홍해, 페르시아만 등을 들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지중해는 해류에 의하여 해수가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염분의 농도와 바닷물의 온도 차이에 의하여 해수가 교환되는 특징을 가진다.

지구상에 산재하는 지중해는 주위의 대양보다 염분 농도가 높은 바다와 낮은 바다로 나눌 수 있다. 증발 등으로 염분 농도가 높은 지중해는 바깥 바다와 연결된 해협의 윗부분으로 염도가 낮은 바깥 바다의 물이 흘러들고, 아랫부분으로는 염도가 높은 지중해의 물이 빠져나간다. 반면 강물의 유입 등으로 염분 농도가 낮은 지중해는 이와 반대로 지중해의 물이 해협의 윗부분으로 빠져나가고 염도가 높은 바깥 바닷물이 아래쪽으로 흘러든다. 대서양을 통해 해수가 교환되는 지중해로는 유럽지중해, 아메리카지중해, 발트해, 베핀만 등이 있고, 인도양과 통하는 지중해로는 페르시아만과 홍해가 있다. 그리고 순다제도와 필리핀열도로 닫혀 있는 오스트랄라시아 지중해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걸쳐 있고, 북극해는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으로 열려 있다. 이 가운데 전형적인 지중해는 유럽지중해이다.

유럽아프리카지중해라고도 불리는 유럽지중해는 유럽·아프리카·아시아 세 대륙에 둘러싸인 내해로서, 전체 면적이 약 296만 9,000km²이고 동서 길이가 약 4,000km, 최대 너비가 약 1,600km, 평균 수심이 1,458m이다. 유럽지중해는 이탈리아반도와 시칠리아섬을 중심으로 동지중해와 서지중해로 나뉘는데, 서지중해는 지브롤터해협을 통해 대서양과 이어지고 동지중해는 수에즈운하를 통해 홍해와 연결된다.

거대한 해양분지로 형성된 유럽지중해는 지중해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독특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기후학에서는 이를 ‘지중해식 기후’라 하거니와, 여름에 건조하고 대부분의 강수가 가을에서 봄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강수량은 유럽 대륙 서안이나 몬순기후대보다 훨씬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해수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염분의 농도와 해수면의 온도가 대서양보다 높아짐으로써 상층으로는 상대적으로 염도가 낮은 대서양의 물이 지중해로 흘러들어가고 하층으로는 고염분의 지중해 해수가 대서양으로 흘러나간다.⁷⁾ 이러한 방식으로 지중해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해수 교환의 주요 통로가 바로 지브롤터해협이다.

7) 강창근, 「지중해의 해양생태학적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5-1, 2003, 26~33쪽.



[자료 2] 유럽지중해

유럽지중해가 대륙에 둘러싸인 대지중해라면 페르시아만은 서남아시아 대륙 속으로 만입한 소지중해이다.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 끼어 있는 페르시아만은 전체 면적이 약 23만 9,000km²로, 서북쪽의 샤트알아랍 강에서 남동쪽의 호르무즈해협까지 약 900km에 걸쳐 뻗어 있다. 수심은 90m 이상 되는 곳이 드물 정도로 매우 얇고, 평균 수심은 약 50m이다.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드는 담수는 부시르 남쪽의 이란 해안에서 흘러드는 몇 개의 작은 하천을 제외하고는 서북쪽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카룬강이 합쳐진 샤트알아랍강이 유일하다. 이런 조건에다 고온에 따른 해수의 증발이 많아 페르시아만의 염분 농도는 매우 높다. 고염도의 페르시아만 해수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하여 인도양의 연해인 오만만의 바닷물과 교환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중해는 대양에 부속된 일종의 내해로서 전체적으로 육지에 둘러싸였으면서 한두 곳의 좁은 통로, 곧 해협을 통해 대양과 연결된 바다이다. 게다가 지중해는 바깥 바다와 통하는 해협의 폭이 안쪽 바다에 비하여 협소하고, 대양의 해류가 침투하지 못함으로써 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지중해의 물은 해류나 조석이 아니라 염분 농도와 수온 차이로 인하여 대양의 해수와 교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리학 혹은 해양학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지중해’라 칭한다.

2. 인문적 지중해

자연지리학의 관점에서 지중해는 대양의 부속해로서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인가, 대양과 통하는 입구가 상대적으로 좁은가, 해류가 존재하는가, 해수 교환은 해류 때문인가 아니면 염분 농도와 수온의 차이 때문인가 등의 기준에 의하여 다른 바다와 구분된다. 이러한 개념은 인간의 삶이랄까 문화를 완전히 배제한 채 지리적 특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지중해를 정의했다는 점에서 이를 ‘지리적 지중해’라 해도 좋을 듯싶다.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 육지로 둘러싸인 지중해 역시 주변지역의 인간생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사실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인문학에서는 지리적 지중해보다 지중해 주변의 인간생활에 더 관심이 많다. 만약 지중해가 주변지역의 인간생활과 문화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미하다면 그러한 지중해는 인문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북극해이다.⁸⁾ 북극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중해로,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그린란드 등의 陸塊로 둘러싸인 해역이다. 그곳의 해안분지에는 수만 년 동안 에스키모인들과 알레루트인들이 사냥과 고기잡이로 살아왔는데, 그들은 가혹한 자연환경 때문에 이렇다 할 문명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타 지중해와 달리 북극해를 사이에 둔 지역 간에는 상호 교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화의 상관성도 찾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북극해는 지리학적으로 분명 지중해이나 인문학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지중해’는 될 수 없다.

북극해를 제외한 여타의 지중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주변의 인간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바다를 막힌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바다는 문화의 전파 혹은 교류를 가로막는 장벽인 동시에 교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해양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바다가 바로 지중해이다.

지중해의 경우, 바다를 사이에 둔 육지 兩岸에는 전혀 다른 문화랄까 문명이 만들어진다. 이는 양 지역이 서로 바다에 의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각기 다른 문화는 바다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이른바 문명 접변(acculturation)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지중해 주변에는 각 지역이 바다로 격절됨으로써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화가 발생하고, 그러한 문화는 지중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교류함으로써 문화 상호간에 융합과 융화 그리고 동화가 일어난다.⁹⁾ 그 결과 지중해를 둘러싼 일정 지역에는 공통의 문화요소를 갖춘 독특한 문화권이 형성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지리학자 브뤼네(Brunet Roger)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중해를 일곱 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지중해 주변의 문화적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브뤼네의 7가지 지중해 공간 모형을 살펴보면, 마지막 사막호수모형을 제외한 6가지 모형은 모두 지중해 주변지역의 문화가 어떤 형태로든 지중해를 매개로 교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지중해의 문화적 상관성이라 칭할 수 있거니와, 문화의 다양성과 상관성 그리고 문화적 융합을 통한 문화권 형성은 지중해의 인문학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유럽지중해이다.

유럽지중해 문명은 각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문명, 에게문명, 페니키아문

8) 국제수로기구(IHO)는 북극해를 大洋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해양학계에서는 북극해를 지중해로 분류하여 북극지중해(the Arctic Mediterranean Sea) 혹은 줄여서 북극해(the Arctic Sea)로 칭한다. 해양학계에서 북극해를 지중해로 보는 이유는, 대륙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북극해의 해수가 해류가 아닌 염분의 농도와 온도 차이에 의해 순환되기 때문이다.

9) 정수일, 「지중해 문명과 지중해학」, 『지중해지역연구』 5-1, 2003, 3~4쪽.

명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기틀이 잡혔다. 특히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mare nostrum)’로 칭하며 약 500년간 지배하면서 그리스와 라틴문명, 오리엔트문명, 기독교문명 등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통합하여 융합문명을 만들어냈다. 그 후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를 지배하며 로마인이 이룩한 문명에 자신의 문화를 곁들여 새로운 지중해 문화를 창조하였고, 근대 서구인들은 앞 시대의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근대 지중해 문화를 만들었다. 이처럼 수천 년에 걸쳐 형성·발전한 유럽지중해 문명에는 늘 문화의 다양성과 상관성이 내재해 있었고, 융합성과 통일성을 지향하는 특성이 들어 있었다.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황해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가 활발하게 교류하던 공간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들 지역에서는 각기 독자적인 문화를 창안해 유지·발전시켰다.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교류를 통한 문화의 상관성, 나아가 한자 혹은 유교를 공통요소로 한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은 모두 황해 교류를 통해 가능하였다. 이런 점에서 황해는 브뤼네의 지중해 공간모형 가운데 광원모형(the focal model)에 가깝다고 하겠다. 어쨌든 동아시아 해역에서 황해는 지중해적 성격, 곧 인문적 지중해성을 가장 강하게 띠는 바다라 할 수 있다.

사실 황해는 지리적으로도 지중해와 유사한 면이 많다. 물론 황해 남쪽이 넓게 트여 있으므로 전형적인 지중해 지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황해는 다른 해역에 비해 대양으로부터 해류의 영향을 덜 받는다. 쿠로시오해류는 동아시아 해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해류이다. 그런데 이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쓰시마난류가 제주도 서쪽을 지나며 일부가 나뉘어 황해로 유입되면서 황해난류가 된다. 그리고 북쪽에는 발해만에서 중국 대륙을 따라 남하하는 중국대륙연안수와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서한연안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해류는 흐름이 비교적 약해 황해 해수를 순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 황해 해수가 완전히 교환되는 데 2, 3년이 걸리는 것은 황해가 대양의 해류로부터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황해는 주위 바다에 비하여 염분의 농도가 매우 낮다. 황해를 둘러싼 육지의 강들이 모두 황해로 유입되는 것이 주요인이겠거니와, 특히 장강과 황하의 물이 불어나는 여름에는 염분의 농도가 22‰까지 떨어진다. 반면 동중국해의 염분 농도는 지점과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겨울철에는 32.6~34.4‰로 연중 가장 높고 여름철은 28.0~32.4‰로 가장 낮다. 그렇다면 황해의 저염도 해수가 상대적으로 고염도를 가진 동중국해의 물과 염분의 농도 차이로 자연적으로 순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중해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황해는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지중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다이다. 다시 말하면 황해는 동아시아 해역 가운데 지중해적 성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바다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황해를 황해지중해(Yellow sea Mediterranean)라 해도 좋을 듯싶다.

IV. 나머지 말

전근대 서양의 역사는 유럽지중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지중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발상지였고, 중세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의 각축장이었으며, 근대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고 발전한 곳이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광대한 대륙에 둘러싸인 ‘액체 공간’에서 서양의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였고, 교역과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역사가 전개되었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중해는 늘 서양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하겠다.

유럽지중해가 서양의 중요한 역사 공간이었다면, 황해는 동아시아 역사의 현상이었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이 중국 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였고 동남쪽에 일본이 자리 잡고 있는 황해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삼국의 교류와 교섭의場이었기 때문이다. 서양의 지중해가 그렇듯이, 황해는 고대 동아시아의 정치교섭과 문화교류 그리고 경제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열린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황해의 歷史性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바다에는 육지와 달리 눈에 보이는 유적과 유물이 없고, 바다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 동아시아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바다, 특히 황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고대 동아시아 역사의 현상이었던 황해는 버려진 역사의 장이 되었고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황해는 역사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역사 속의 황해는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삶의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황해를 잊고 살아 왔다. 아날학파의 제2세대 선두주자인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필립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세계(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II)』에서 16세기 유럽지중해를 매개로 이뤄진 정치, 교역, 전쟁, 외교, 종교, 문화교류 등 인간의 제반 활동을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풀어나갔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교섭과 교류를 종횡무진으로 묘사한 브로델의 ‘지중해’ 연구는 동아시아 삼국의 소통과 융합의 공간이었던 황해 연구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 학계에서도 황해를 망각의 늪에서 끌어올려 그것에 역사성을 부여하려는 보다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환황해권 民畵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관념

이 윤 선 ■ 목포대 국문과 초빙교수

1. 시도의 변

이 발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다. 첫째는 2015년 8월 <월간 민화>에 중국 어민화 관련 칼럼을 게재한 것. 제목은 “승사도 어민의 생활과 문화를 담은 그림, 중국 어민화”였다. 민화에 대해서는 ‘민’자도 모르는 주제에 이 글을 썼던 것은 10여 년 전 중국 주산군도 민속조사를 2년 여간 수행하면서 보고 듣고 얻은 漁民畵들 때문이었다. 마치 피카소의 그림들을 연상하는 어민화에 대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며 생뚱맞아 보이긴 했지만, 반면에 민화의 본래적 기능이기도 한 생활예술 즉 장식, 그리고 심중의 욕망들을 순박하게 드러내놓는 기능들에 감동했던 기억이 새롭다.

둘째는 민화가 민속 문화의 보고라는 점. 조동일이 일찍이 민요, 민화, 민속을 한 형제라 호명한 바에 주목하였다. 민화를 빼놓고 연구하는 것은 절름발이 민속 연구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이 말에 힘입어 올해 민화 그리기 공부를 시작하였다. 아쉽게도 민속학자들 중에서는 민화에 접근한 이들이 많지 않다. 민화 자체보다는 巫神圖 혹은 堂神圖의 범주에서 칼럼과 신화 관련 몇 연구들을 거론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민속학 연구의 본질 혹은 총체성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민화연구까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다룰 공간적 범주는 환황해다. 흔히 황해라 불리는 이 권역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직접 영향권이었다. 한중이라는 단순한 국가명보다 환황해라는 호

명이 주는 의미는 바다를 매개삼아 펼쳐져왔던 혹은 펼쳐져 갈 한중간의 네트워크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간의 범주인 환동해를 포함하게 되면 조동일이 공표했던 한문문화권과 교직된다. 민화도 이런 범주들 속에서 같고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조동일은 이 문화권을 베트남을 포함한 한, 중, 일로 설정하였고 그 철학적 기저를 생극론을 통해 풀어보려 했다. 오늘 발표에서 생극론까지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문학, 철학 따위를 넘어서거나 상응하는 민중들의 심성 혹은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일말의 꼬투리만 잡아낼 수 있으면 한다. 일본의 우키요에나 베트남의 동호 등에 대해서는 차후를 기약한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환동해 민화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나아가 도서적인 관념들 혹은 특징들이 있을 것인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을 내릴 수 있을까 정도에 맞춰질 것이다. 문제는 내가 워낙 이 분야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이다. 민요와 민속학자로서 접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혹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도 크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정 토론자로 민화연구의 대가이신 정병모 교수를 모시기 된 것이 큰 기쁨이자 다행이다. 내 개인적인 오류에 대한 지적은 물론 민속학 전반의 연구 경향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린다. 민속학자들도 민화에 대해 눈을 뜨고 그 광범한 세계와 철학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2. 민속학자 입장에서 주목할 민화의 범주

우선 민속학 연구자로서 도대체 민화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민화라 이르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화를 민요와 민속에 견주어 말하는 것은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아닌 평민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 있다. 겨레그림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생활의식이 잘 반영된 그림이라고도 한다. 마치 민요가 민중의 습속이나 내면을 잘 담아냈다고 평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민요나 판소리가 가지는 베끼기 방식처럼 민화도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색을 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종의 베끼기 그림이다. 베낀 것은 오리지널로 인정하고 베끼지 않은 것은 주변부 혹은 이단으로 생각한다. 판소리가 도제식 전승을 통해 곧이곧대로 따라 하는 것을 적통이라 하고 이외 것들을 창작이니 또랑광대니 하며 호명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전통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호명하거나 이해하는 태도들에 대해서는 차후 민속예술론적 관점에서 접근해보기로 한다.

민화의 범주가 매우 넓어서 어디까지 그 영역으로 삼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화가 일제식 조어방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있는 용어에 대한 논란도 종식되지 않은 듯하다. 우리가 한국화라고 호명하는 분야도 한국화, 동양화, 서화, 전통화, 산수화

등 다양한 호명방식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칭은 민화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민화의 기원을 세화로 보는 입장도 있다. 민화가 세화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민화의 존재를 언급할 때는 거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화의 상징성이나 쓰임새가 조선시대 풍습이나 민속의 원형을 밝혀주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¹⁾ 하지만 많은 무속화나 토, 도기류의 문양들까지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총체적 분석은 아니라 보인다.

심지어는 판소리와 풍속화 전반을 견주어 그 닮음을 피력하기도 한다. 판소리와 풍속화 사이에 이면간의 유사함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것. 동시대에 발생한 신흥 예술 장르라는 사실, 광대와 화공이 지향하는 의식상의 동질성, 둘 사이의 상상력 차원의 교섭 등이 이면으로 작용하면서 두 예술 양식으로 하여금 흡사한 표현 어법을 구사했다는 것이다.²⁾ 풍속화 모두를 민화의 범주에서 다루 수는 없는 일이므로 전반적인 긍정을 표할 수는 없으나, 민속 관련 노래분야와 그림의 유사성을 추적한 시도들은 민화연구의 추적에도 충분한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

내가 그림공부를 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전통채색화’라고 부른다. 궁중화, 불화, 고대의 무속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국, 일본, 베트남이 판화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면 한국은 채색화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정확한 비율이야 잘 모르겠지만 대개 중국, 일본은 판화 점유율이 90%이고 한국은 채색화 점유율이 90%다. 단편적인 논의들 속에서 예들 들면 궁화와 민화를 포섭하는 길상화라든지, 그래서 민화가 저속한 하수의 그림이라기보다 당대 사회의 수준 높은 회화작품임을 재인식하자고 주장도 있다.³⁾ 정병모에 의하면 조선시대 회화는 대개 궁중회화, 사대부회화, 민화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민화는 서민화가가 서민의 정서에 의해 그린 그림으로 한정하고 한다. 사대부와 왕실에까지 민화를 향유하였지만, 이것은 19세기 민화가 확산되고 유행하면서 발생한 현상이지 그렇다고 민화가 사대부회화나 궁중회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⁴⁾ 마치 판소리가 민중에 의해 창발되어 양반 사대부는 물론 궁중, 왕까지 향유되었지만 그들의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과 같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대의 무속신화로부터 현대의 응용화까지 그 범주를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민화라는 생각이다. 중국의 어민화가 그러하듯이 한국의 서양화 중에서도 민화풍 혹은 민화적 기법이나 철학이 있어 민화의 범주로 포섭하여 논해야 할 시점이라 본다.

어쨌든 적어도 민속학적 측면에서 민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궁중화나 사대부회화보다는 민중 스스로 창안하고 향유한 그림들의 범주를 주목하는 것이 학적 정체성과도 알맞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민요와 민속의 범주에서 민화를 접근하게 되면 기산풍속도나 나카무라의 조선풍속화보, 무당내력은 물론, 단원, 신윤복 등 유명 화가들의 조선풍속 화보들, 전

1) 김용권, “민화의 원류, 조선시대 세화”, 학연사, 2008. 448쪽.

2) 김현주, “판소리와 풍속화, 그 닮은 예술 세계”, 효형출판, 2000. 5쪽.

3) 윤범모, ‘민화라는 용어와 개념의 비판적 검토’, 2015, 전반적인 내용 참고

4) 정병모, ‘한국회화사의 체계로 본 민화의 위상’, “강좌미술사”29호, 237쪽.

국에 흠어져 있는 절간의 탕화나 당산의 신도들, 각종 민예품들에 조각되거나 상감되어 있는 그림들도 논의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민속학자 입장에서 민화를 정의해본다면 “民의, 民에 의한, 民을 위한 그림이나 새김 예술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민중의 예술이기 때문에 어느 문화권이건 민화는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호주의 어보리 지날 예술은 물론 아메리카의 포크 페인팅류들, 고대 중국의 토기와 도기에 그려졌던 수많은 도형과 채색들, 세계만방의 이름 없이 그려졌던 그림들도 민화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논해야 맞다. 적어도 민속학적 접근이라 표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무신도를 포함한 고대 유물 유적 등의 그림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당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민화’라는 조어를 창조한 야나기무네오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반성적 평가도 필요하다. 예컨대 야나기와 하세가와의 예술관은 ‘동양주의’라는 사상적 배경에서 출현하였다고 주장된다. 동양의 특질과 가치를 끌어내고자 했던 동양담론은 동양을 서양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체화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파악함으로써 동서양의 ‘차이’에 집착하였으며, 그 차이에서 유추된 동양성을 절대불변의 가치로 경전화 함으로써 그 나머지를 ‘차별’하는 문제를 남긴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예컨대 동양은 정신적, 직관적, 정적, 무아적이라는 인식이 ‘동양성’의 척도가 되어 그를 벗어난 것은 이질적이고 저급한 것으로 배척함으로서 내부에 숨겨진 또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으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⁵⁾ 물론 제국으로서의 지배력과 헤게모니라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민화라는 조어가 야나기로부터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여기, 그리고 우리들(민속학 연구자들)에게 타당한 호명과 범주를 주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시민(민중)들의 수요와 민속예술미학적 욕망의 범주들로 확대 해석해야 된다고 본다.

3. 중국의 어민화와 해양관념

이 절의 논의는 앞서 거론했던 내 칼럼 내용을 재인용하여 풀어보고자 한다. 중국의 민화는 연화가 중심이지만 본고와 관련해서는 어민화를 거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싶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내가 주산군도를 조사하던 10여 년 전과는 대조적으로 대규모의 벽화마을이 생기고 그것을 관광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10년 전에도 마을 담벼락 등에 민화들이 그려져 있었지만 지금 같은 규모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확산성에 대한 의미들을 추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화 자체가 매우 기능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공공의 영역으로 재구성했다고나 할까. 작년 칼럼 중 일부를 제외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용하는 점 양해 바란다.

5) 감현숙, ‘김환기의 도자기 그림을 통해 본 동양주의, “한국근대미술사학”9집, 2001, 38~39쪽.

중국 어민화가 세간의 화제로 등장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1950년대 초기에 어촌마을에서 취미활동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산군도의 중심이랄 수 있는 정해시, 관음신앙의 성지로 꼽히는 보타도, 대산도 등지에서 어민화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때의 취미활동은 청년들, 주부들 중심이었다. 주제는 어로와 해촌의 일상생활이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광경, 간·만조의 해양생태, 민간에 전해오는 전설, 신화와 고사, 민속풍경 등이었다. 기법만 해도 과감하고 자유분방하게 선들을 생략하거나 과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주산어민화라 불렀다. 주산군도에서 일반인들에 의해 그려지는 민화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어민화가 전적으로 새로 창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론가들에 따라 달리 해석되긴 하지만 중국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미 중국에 농민화 등의 민화 장르가 존재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어촌환경이나 해상풍경을 묘사한 동양화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기도 하다. 마치 우리 민화의 전통을 보다 오래된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 해석하려는 의도와 비슷하다고 보겠다.

주산의 어민화가 급속하게 확대 보급된 것은 1980년 초기다. 50년대에 시작되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 활동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83년에는 절강성 군중미술공작회에서 발기하여 어민화를 주산의 민간회화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게 된다. 이듬해 주산군도 정해시의 군예관에서 전시회를 열어 우수작품들을 수상하게 된다. 이때 58건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 중 5건의 작품이 중국 농민화전에 출품되기도 한다. 1987년에는 북경에 진출하여 중국미술관에 전시되었다. 여기서 주산시 현대민간회화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1988년에는 중국 문화부 명으로 주산의 4개 지구 즉 정해구(주산시의 행정중심), 보타구(보타도), 대산구(대산도), 승사구(승사도)를 중국현대민간회화의 고향으로 명명하였다. 주산어민화의 중국 내 위치가 확고해지는 순간이었다. 2002년 초에는 보타도와 정해시 심가문(대표적인 항구)에서 해변화랑을 열고 어민화를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시장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2002년 9월에는 프랑스에 개최된 박람회에 190여 작품을 출품하여 성공적인 평을 얻기도 했다. 2003년에는 주산시 인민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주산어민화예술제를 개최하였다. 2005년에는 대산도에서 제2회 중국주산어민화예술제를 열었다. 이때 2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그 기법이나 주제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점에서 중국회화계에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2005년에는 독일과 협력하여 ‘보타도어민화전’을 개최하였다. 2007년에는 주인민 교수(주산어민화 지도)와 어민화를 그리는 일반인들이 중국 중앙텔레비전에 초청되어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는데 이것이 어민화의 인지도를 높이는 큰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중국 정부의 보호문화재로 인정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주산어민화 중에서 보타도어민화, 승사도어민화, 대산도어민화를 1, 2, 3호로 구별하여 절강성민족민간예술보호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주산어민화가 주산의 첫 번째 비물질문화유산대표목록이 되었다. 우리로 말하면 주산시의 첫 번째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것이다.

어민화의 회화적 특성을 해석하는 몇 가지 관점들이 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해양정신을 기반으로 한 ‘개방적인 미’다. 주산군도의 생태적 특징이랄 수 있는 해양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어민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긴 하지만 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고 바다에 나가면 배에 의지해야 하고 배에 오르면 노와 돛에 의지해야 하고 이 노에 의지해야 목숨을 부지하며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해양문화적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어민화의 보편적인 정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생활습속, 민속풍속, 종교사상, 해양기질 등이 어민화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어민화가들이 거의 어민 출신이라는 점에 있다. 근래에 와서 회화 전문가들로 일부 확장되긴 했지만, 그 중심에는 어민들 스스로 이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내가 머물던 민박집 아주머니가 어민화의 대표적인 화가라는 점에 주목하면 어민화가 가지는 민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민간예술 중에서도 그 원시적인 미, 즉 ‘박출미’를 들 수 있다. 간결하고 순박한 미라고나 할까. 중국의 평자들이 이를 원시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민화가 가진 품격의 질박함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단순함, 요약기법, 간결한 수법, 그리고 진실하고 솔직한 표현들, 그들의 일상을 정감있게 포착해내는 시선 등이 이 품격을 형성한다. 이들은 초기에 어떤 회화적인 훈련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창작임무 등에서도 자유로웠다. 중국 주류예술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들이 어로 활동을 잠시 쉴 때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색깔을 덕지덕지 칠하는 투박한 형태가 초기 작품들의 주류를 이룬다.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학파나 형식적인 틀이 없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저 자신들의 생활습속이나 마을의 전설, 어로 활동들을 묘사한 투박한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민속미’다. 조동일 교수도 민속, 민화, 민요가 삼형제라고 표현한 바 있다. 중국의 어민화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작품을 민간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민화의 목적을 민간 대중이 자신의 사회생활에 수요 되는 창조적 시각형상예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주로 어로 활동이라는 배경이 그림이라는 재능과 결합하여 심미적인 가치를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섬사람들의 의식주가 그려진다. 혼인과 장례도 주요한 레퍼토리의 하나다. 민간신앙이 다양한 형태로 묘사된다. 의례와 잔치, 혹은 축제 등이 때때로 의미심장하게 혹은 코믹하게 묘사된다. 오락과 놀이도 빠질 수 없다. 이것이 어로라는 생활현장과 어우러져 독특한 민속미를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에 여러 상황들, 예를 들면 예술 행위와 문화산업 확장 등을 충족하는 어민화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보타도식’이라고 부른다. 보타도에서 생성되고 시도된 어민화의 양식이자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어민화는 ‘전통 민족민간미술’로 이해되고 있다. 50년대 초에 현대적 회화기법으로 시작 하긴 했지만, 그 시발을 50년대 초기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류문화의 다양성에 크게 일조했다고 해석된다. 특히 주산이라는 지역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 준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주산의 전통문화, 신앙, 전설, 습속 등을 소박한 그림이라는 형태로 반영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주산이라는 ‘장소성’을 충족시키는 예술형태다. 현지의 사회 환경, 역사지리, 민속풍경들이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섬사람들, 어민들의 독특한 사유방식을 나타낸다. 나아가 이들의 인식방식이고 무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주산군도 사람들의 심미적인 정취, 인격을 드러낸 문화형태라고 해석된다. 일부 평자들은 이를 지역 민족문화의 결정체라고까지 말한다. 그만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도서해양이라는 향기, 주산의 지방 특색 등이 화면 가득 드러난다. 이것은 예술의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근래 들어 어민화의 보호와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잦아지고 있다. 주산군도의 해양문화 발전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어민화가 가진 가치를 자기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 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특색이 장점으로 작용한 반면 초기의 어민들에 의한 어민화의 전통이 지속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거나 혹은 하나둘 돌아가신다. 지역의 젊은이들은 모두 새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진출해버린다. 근래 들어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어민화의 창작에 동참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들이 가져온 효과는 어민화의 질박함에서 그 표현기법과 공간을 확대했다는 점에 있다. 특히 현대적인 의식들을 가미하고 미술로서의 전업적인 기교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어민이나 어촌생활이라는 생활경력이 없다. 당연히 작품에서 진솔한 어촌을 드러내기 어렵게 된다. 일부 평자들은 그래서 초기의 어민화와 근래의 어민화를 구별하기도 한다. 문제는 주산군도라는 지역성, 장소성을 배경으로 하는 어민화의 확장성과 주제성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있다. 오늘도 이곳의 평자들은 이를 놓고 입씨름을 한다.

어민화의 활용이나 산업적 응용도 다각도로 시도되었다. 교육이나 학습도 강화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 정규 과정으로 넣기도 하지만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도 하다. 중국 평자들이 염려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의미의 어민화부터 근래의 작품들까지 발굴, 수집, 정리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어민화박물관을 통해 수행되기도 하고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기도 한다. 이 중 우수한 작품들을 보존 전시하는 공간과 기능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한창이다. 이들의 관심은 어민화가 가진 지역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지역 문화의 창조니 지역의 발전이니 하는 담론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다른 하나는 주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어민화 교육이다. 전통방식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현대의 양상들을 반영하는 형태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 학교에서 주류교육의 체제로 이를 도입하고 지역 전통 교육이라는 측면을 강조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민간미술에서 민간산업으로 확장하는 논의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는 어민화에 대한 이론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론적인 연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어민화의 발생, 발전, 변화과정, 전파방식, 산업적 활용과 대응방식 등에 대해 연구할 바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보다 큰 문제는 현재 어민화의 생존위기를 말할 만큼 그 지속이나 확장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급속한 도시화 경향으로 인한 문화충격이 어민화의 보존과 지속을 위협하고 있다.

4. 제주도 문자도와 한국의 堂神圖(巫神圖)의 세계관

민속학자가 한국의 민화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선 전제하는 것들은 세시풍속과 관련된 각종 민화들일 것이다. 대개 설날과 추석에 중심으로 한 세시는 물론이고 신혼, 회갑, 승진, 합격, 이사, 졸업, 생일 등에 민화가 실무적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세시풍속과 세시민요가 민중들의 풍속과 심성을 그대로 담아낸다는 측면과 상통한다. 혹은 판소리가 전래 신화나 전설을 소설화하거나 이념화한 노래양식이라는 점에서 민화의 스토리 차용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과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민화가 중국의 이야기를 주로 그렸다는 점은 민중의 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보다 그 욕망과 지향 등을 그려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세계’가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본고에서는 해양이라는 특정 주제 혹은 소재를 다루고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속학적 민화 논의는 고를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본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민화 속에 담긴 해양성이나 도서적 특성들을 끄집어내보고자 의도하였지만 글을 전개할수록 문외한인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서해양을 소재삼은 문자도와 주로 도서 해안지역의 당신화(무신도)를 소재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이 글을 소화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심도 있는 연구는 보다 공부가 된 후에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심한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본고에서는 도서해양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판단되는 제주도 문자도와 해안지역의 당신화 및 무신도를 소재로 그 표층만이라도 대략 훑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문자도는 한문자 또는 한문 문장을 회화화 하거나 도안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壽, 福 등 길상적 의미를 가진 글자, 龍, 虎, 鶴, 龜 등 상서롭고 신령한 동물을 나타내는 글자, 孝, 悌, 忠, 信 등 유교 덕목을 나타낸 글자 등이다.⁶⁾ 이 중에서 <효제도>는 효, 제, 충, 신, 예, 의, 엄, 치 여덟 글자를 도식한 병풍 그림이다. 특히 효라는 글자는 잉어, 죽순, 부채,

6) 허균, <<허균의 우리민화 읽기>>, 대한교과서(주), 2006, 전반적인 내용 참고

거문고, 굴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故事를 엮어 그림을 그렸다. 후대로 올수록 劃 속에서 그림이 뛰어나와 드디어 劃을 잡아먹는 즉 변용하는 문자도가 그려진다. 이치에 맞는 것과 어긋나는 일의 相生, 相剋의 스토리가 펼쳐진 것이다. 전통화법으로서의 화육법의 원리가 무시되기도 하고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無碍의 세계가 펼쳐진다.⁷⁾ 민화 전반의 미학적 세계이자 특성 아니겠는가. 곧, 민화의 문자도는 어떤 불가사의한 ‘언어유희’와 ‘시각유희’의 속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타이포그래피적 특성이 있다고 말해진다. 예컨대 활자의 의미, 활자의 이미지, 활자와 소리 등의 병치, 충돌, 간섭 등을 통해 생성되는 작위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활자성을 예술성의 氣이자 타이포그래피적 氣로 해석하며 일종의 그림으로 그리는 글자라는 유희의 장을 제시하는 것이다.⁸⁾

제주도 문자도는 3단 구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상으로 주로 제주도의 자연, 제사용의 건물과 기물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여러 학자들이 분석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정병모가 분석한 제주도문자도병풍의 특성이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다고 생각하여 여기 인용하기로 한다.

제주도의 꽃, 새, 물고기 등 자연을 문자도의 문양으로 풍부하게 활용한 점에서 제주도인의 자연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이들 자연은 문자도병풍을 잔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되고 즐거운 도상인 것이다. 또한 가모나 고팡상과 같은 제사를 위한 건물과 기물을 그려넣어 병풍을 제사용으로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자도의 용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아동의 교육용이라고 막연하게 언급되어 왔다. 그런데 제주도 문자도의 경우로 보면, 문자도병풍은 제사용이나 잔치용이다. 그것은 병풍으로 제작되었지만, 매일 방에 치는 것이 아니라 행사 때 꺼내어 설치하였다. 즉 집안 치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제주도 문자도는 글자 위주의 사실적인 표현에서 장식적인 표현으로 바뀌다가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단순화되거나 강렬하고 표현주의적인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 민속신앙이 강한 제주도에서 유교문화와 관련된 문자도병풍이 유행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제주도까지 문자도병풍이 성행하였다는 것은 유교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이다. 강원도 문자도는 서울지역과 유사한 정통 화풍을 보였고, 경상도에서는 상징성이 두드러지면서 소박한 조형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자연과 어우러진 도상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연상케 할 만큼 감각적이고 구성적인 조형이 돋보인다. 제주도의 구성적이고 도안적인 조형은 <탐라순력도>, <영주십경도>와 같은 관청의 기록화나 지도식의 진경산수화에서 보여준 전통이다. 제주도문자도병풍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섬지방에서 발전한 그림으로 육지의 회화와 다른 독특한 조형세계가 돋보인다. 지금까지 회화사 연구에서 지역양식에 관심을 둔 논문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궁정회화나 사대부회화가 주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화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발달한 회화라 지역양식 연구가 충분히 가능한 분야이다.⁹⁾

7) 김인환, ‘한국적 타이포그래피 전통의 하나의 단서로서의 민화의 문자도’, “예술성의 기의 관점에서 본 동양예술 이론, 안그라픽스, 2003, 231쪽.

8) 김인환, ‘한국적 타이포그래피 전통의 하나의 단서로서의 민화의 문자도’, “예술성의 기의 관점에서 본 동양예술 이론, 안그라픽스, 2003, 232-233쪽.

9) 정병모, ‘제주도민화연구-문자도병풍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4호, 223-224쪽.

제주도 효제 문자도에는 남종화의 묵법 기법보다는 남방 특유의 섬세한 선묘 기법이 두드러진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 중부와 남부의 여러 민족 사이에서 오늘날까지도 행해지고 있고, 일본의 오키나와 본도 지역과 캄보디아, 베트남, 대만 일대의 남방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토착화된 민간 신앙에서 그 근원을 찾기도 한다. 이명구는 이를 몇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주도 문자도는 독창적인 문자의 조형성으로, 글자의 자획을 유교의 교훈적 상징물들로 꾸미는 내륙의 효제문자와는 달리 문자의 외곽선을 굵게 강조하고 자획 끝부분을 단청문양으로 장식하면서 그 내부를 비백(띠풀)의 파문으로 채운다. 둘째, 3단 구성 특징을 해양타계관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¹⁰⁾ 각종 사찰이나 당집에 그려진 반야용신도 해양타계관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문자도는 중국의 어민화와 유사하게 지역적 특징 특히 도서해양적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그린 민화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신도는 무속인들에 따라 탕화라 불리기도 한다. 홍태한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무신도를 정리한 사례로 김태곤이 발간한 자료집에 120여점의 무신도(여기에는 1700년대의 무신도까지 있다)가 있고, 윤열수가 펴낸 51점의 무신도 자료집, 신명기의 수집 도록집, <큰 무당우옥주유품전도록> 등이 있다. 하지만 무신도에 나타난 신격들이 주로 부군(부군 내외 포함), 삼불제석, 장군, 산신, 부인(호구, 애기씨 포함), 대신(당할머니, 대동할아버지 포함), 칠성, 구능, 신장, 대감, 결립(마부, 맹인, 수문장 포함) 등이기¹¹⁾ 때문에 여기서 도서 해양적 특성을 구분해내거나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신명기가 봉안하고 있는 무신도에는 碧海라는 이름이 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해양문화와 관련된 무신도가 주류이었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다.

무속문화가 사실상 미신이라는 폄하 속에서 제대로 추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차체에 무신도를 회화적 맥락 즉 예술사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렇게 하려면 응당 민화적 관점에서 각양의 무신도들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간의 신앙으로서의 무속 혹은 공동체로서의 무속연구에서 나아가 회화예술로서의 무속연구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신도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상이 가져야 할 위엄과 근엄함과 달리 해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화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과 매우 닮아 있다. 이 특성은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한편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세계를 잘 보여준다. 때문에 무신도는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심리이면서 한국인의 심성을 드러내는 신기한 미술품이라 주장하는 것이다.¹²⁾ 도서해양이라는 측면에서 제주도 문자도나 무신도 그림들은 풍토적으로 지역의(해양의) 식생과 생태계, 기후조건들이 그런 특성을 만들어 내

10) 이명구, '조선후기 효제문자도와 지방적 조형특성 연구-효제문자도의 그래픽 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제58호, 2004, 전반적인 내용 참고.

11) 홍태한, '한국 무신도의 양상과 의미', "목아박물관 소장유물전 한민족의 마음전", 목아박물관, 2008, 전반적인 내용 참고.

12) 박영화, '굿그림(무신도)의 도상해석학', "민족미학"10, 2011, 255-265쪽.

기에 충분하였다고 해석된다.¹³⁾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로 서해안의 당에 모셔진 당신도의 얼굴모양이 중국의 민화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아마도 관우를 숭배하는 제당들이 많은 것과 연관되지 않나 생각된다.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곳을 예로 들면 장충동 관성묘와 방산시장의 현성전, 동묘 등을 들 수 있다.¹⁴⁾ 무신도의 복식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얼굴 형상은 거의 유사하게 그려지는 것으로 보아 베끼기를 전통으로 삼는 민화그리기의 특성이며, 중국고사나 역사적 네트워크와 긴밀한 영향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무신도 더 좁혀 말하면 堂神圖의 보고는 서해다. 동해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 당 신격들이 목각이나 석각의 신격 외에는 거의 堂神圖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심적인 신격은 용왕도다. 충청 이북으로부터 연평도에 이르는 해역은 임경업을 주신으로 모시는 당이 많고 충청 이남 전남 이북 해역에서는 道佛신앙 관련 神圖들이 많다. 전남 이남으로 내려오면 堂神圖 보다는 당숲이나 당나무 등의 대상이기에 본 발표와 거리가 멀어진다. 어쨌든 당신도가 민화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해역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는 환황해권의 특성 테마라 할 것이다.

해양적인 소재는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입춘방을 붙일 때 돌할으방을 그려 붙였다는 사실도 주목의 대상이다. 입춘방에서의 돌할으방 그림은 오방신장의 푸른 옷과 붉은 옷으로 그린다. 이것을 토신으로 해석하고 다섯 귀신이 그 집을 지켜준다고 해석한다.¹⁵⁾ 제주도에 는 또한 내왓당 무신도 10점, 행원리 큰당의 복원된 무신도 8폭 등의 신도들이 있다. 이 또한 민화적 범주에서 접근할 대상들이다. ‘내왓당 본풀이’에 의하면 내왓당 무신도는 모두 12신위였으나 2신위는 소실되었다. 이들 무신도는 육지의 무신도의 형태와 색채, 선, 문양 등에서 특색이 있다 한다.¹⁶⁾ 이것들을 고구려 고분벽화와 같은 민족채색화를 계승하는 한국전통회화로 해석하기도 한다.¹⁷⁾ 이외 제주도 곳에서 사용되는 신물, 기매를 민화의 범주로 해석한다. 이것을 단지 기를 매단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측면에서 민화적 범주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확대해보면 도서해양지역에서 행해지는 술한 당굿들에 소요되는 허재비류의 허수아비들, 뉘건지기 굿과 저승혼사굿의 허수아비들도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다.

문제는 이들 도상들에 대한 민속학적 혹은 민속 미학적 추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특성들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강우방이 제창한 영기화생법에 의하면 도자기에 그려지거나 상감된 각양의 문양들을 채색분석법에 의해 도해하여 민화적 특성을 찾고 있

13) 전은자, ‘제주도 효제문자도 연구, “탐라문화” 36호, 전반적인 내용 참고.

14) 홍태한, <<서울 마을굿의 현황>>, 민속원, 2014, 전반적인 내용참고.

15) 진성기, <<제주도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69, 80~81쪽.

16) 전은자, ‘제주도 효제문자도 연구, “탐라문화” 36호, 234쪽.

17) 김유정, <<제주의 무신도>>, 파피루스, 2000, 41쪽~88쪽 재인용

다. 이것은 고구려고분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가 해독되는데 이 영기문들이 가진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들을 캐묻고 있다.¹⁸⁾ 이를 대입해 말하면 전국 각지에서 특히 도서해안지역에서 행해진 당곳 등의 제사류, 축제류에 사용된 각양의 그림들도 이런 방식의 분해와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이란 뜻이다. 도자기류처럼 고급스런 문양은 아닐지라도 민중들의 심성을 담아내는 문양의 패턴이 있을 것이고 그 패턴의 묶음들이 상징하는 기호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이 가능할 것이고 이 또한 민화라는 범주 속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수많은 옹기그릇들과 백자들 혹은 문양이 그려지거나 새겨진 모든 일상 민속용품의 문양으로 확대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 논의한 무신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문양이나 기호를 뛰어넘는 해석들이 가능할 것이다. 나는 일찍이 이 신격들의 여성성과 바다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지난해 한 저널에 실렸던 칼럼을 간략하게 인용해 본다.

바닷가 섬 마을에는 기본적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음양론적 신격들이 있다. 내륙이나 산을 양적인 것, 바다를 음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신격이 훨씬 힘이 세다. 변산 죽막도에는 여덩딸을 낳아 각기 섬들을 관장하게 한 개양할미라는 신격이 있다. 제주도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거인여신이, 진도에는 바닷길을 열어주었다는 뽕할머니가 있다. 모두 여성이고 혹은 거인이다. 바다 어딘가에서 밀려온 신격들도 있다. 중국의 귀작이 밀려와 마을신이 되거나 불두가 밀려와 절이 생기거나 마라난타 관련 설화처럼 아예 남방불교를 석선에 싣고 들어오기도 한다. 돌로 만든 배나 돌덩이들이 밀려와 신격이 되고, 혹은 자물쇠가 밀려와 신격이 되기도 한다. 파도를 타고 온 신격들 모두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왕래하는 노마티스트 신들이다. 거인의 형태는 꼭 여성신격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관음불 중에서도 수월관음은 항상 파도를 타고 다니면서 뱃사람들과 섬사람들을 보호해준다. 중국에는 마조라는 아가씨가 뱃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이 되어 동아시아 시지어는 아프리카와 미주지역까지 확장되어 있다. 화교자본을 짊어지고 크 항구도시들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등 인맞이나 해변에는 고래를 신격으로 모시는 민간신앙이 발달해 있다. 물에 빠진 어부를 고래가 구해주었다는 설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신앙들이다.¹⁹⁾

우리나라의 모든 배에는 이른바 선왕이라는 신격들이 있었다. 삼색이나 오색천을 실로 묶기도 하고 명태를 묶거나 한지에 싸서 모시는 형태, 이것들이 이런저런 문양과 기호들로 혹은 이미지들로 그려지기도 한다. 내가 조사다니던 중국 주산군도의 배들에도 마찬가지로 선왕들이 있었다. 근대 이후 주로 마조나 관음보살로 형태가 바뀌었지만 더 먼 역사를 추적해보면 환동해권이 공유하는 특성들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화의 확장 해석이 필요한 증거들이고, 작게는 환동해 크게는 동아시아 민화들로 확장 해석되어야 할 물증들이

18) 강우방, <<청화백자, 불화와 만나다>>, 글항아리, 2015, 128~129쪽 외 전반적인 내용 참고.

그에 의하면 물결모양, 용, 봉황, 백호, 영기문의 싹들, 만병, 암석, 기린, 해태, 보주, 연꽃, 모란, 여래, 보살, 신성, 구름, 호리병, 거북, 물고기, 사자, 사슴, 향로, 우주목, 씨방, 성운, 산호, 보주, 책, 영수, 영조, 영기꽃, 태극, 마음, 도, 정각,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기문, 봉황의 입에서 나오는 영기문, 모든 그릇, 영기창, 코끼리, 연잎, 팔메트, 대지(흙) 등의 키워드를 뽑아냈다. 이것들을 영기문이라 부르고 있다.

19) 이운선, '바다와 섬마을을 지켜 온 신들', "바다 속 이야기", Happy Voage, 2015.

다.

이것이야말로 그간의 민화학계에서 주장해 온 궁화와 민화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혹은 민중의 손으로 직접 그렸다는 점에서 훨씬 본질에 다가서는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 신격 그림들은 다시 신화와 전설, 풍속과 직접 연결되며 술한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하고, 적어도 민속학자 측면에서 민화쪽으로 접근할 때 취해야 할 태도이기도 할 것이다.

5. 민화적 변용과 환황해권의 비전

이제 부족한 글을 마무리하겠다. 시작하면서 가졌던 의욕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저 도서 해양에 관련된 소재 몇 개 나열해보는 수준으로 글을 마치게 되어 토론자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어쨌든 본고가 가지는 의미는 저간의 민화 논의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고 민속학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나아가 지역이나 테마적 관점에서 도서해양의 소재 혹은 주제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본 것에 있지 않나싶다. 그 사례로 중국의 어민화와 제주도의 문자도를 살펴본 셈이고 이를 확장해 민속 전반의 그림이나 새김 예술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월간 민화지에 게재했던 漁民畵 칼럼에서 내가 맺은 결론을 인용해본다. “중국어 민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생각보다 많다. 세계의 민화들이 가진 독특함과 전통성에서 우리가 얻는 시사점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존재한다. 주산군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섬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국가적인 예술로 승화시켰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민화가 지역성 혹은 해양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호주 원주민의 어보리지날 예술(Aboriginal Art)에서 볼 수 있는 원시성이나 인도 등의 동양 각국 민화들에서 볼 수 있는 종교성, 생태적 특성들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어민화는 전통성이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평자들은 이를 지역 전통예술의 백미로 꼽기도 한다. 그 역사성을 높이 올려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화두 삼아 논쟁할 수 있는 쟁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컨대 유득공의 <<경도잡지>>는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민속학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고문헌이다. 여기 보면 비백서는 버드나무의 가지를 깎아 그 끝을 갈라지게 하여 먹을 찌어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등의 글자를 쓴 것이라 밝히고 있다. 점을 찌고 굿고 빠치는 것을

마음대로 해서 물고기, 게, 새우, 제비 등의 모양을 만든다고 했다. 효제도와 관련하여 해석되는 것이긴 하지만 민화를 다시 민속의 범주에서 접근해야 하는 당위를 말해주는 문헌이기도 하다. 임종시에 동쪽으로 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세 손갈의 쌀을 망자의 입에 넣는 민속행위 따위만 접근했지 정작 문자도에 얹힌 의미들까지 천착하지 못했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고기, 게, 새우 등의 물과 물의 대칭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할 민화들에 대해, 굳이 바다나 島嶼의 소재가 아니더라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목문자도 혹은 도석문자도도 민속학 연구자들이 주목해야 할 민화 소재임에 틀림이 없다.

중요한 것은 민화의 현대적 계승과 대중화, 생활화는 민화 본래의 성격과 생명력을 회복해주고 유지해준다는 등에 대한 접근이나 전망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학문을 위한 학문 연구나 민화적 표현 기법과 색채, 소재 등을 현대 화화에 차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화 생활화 과제의 실제 주역은 당연히 민화 화가들이 돼야 하고 화가들은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갖춘 민화를 창안, 개발하여야 할 것이지만 신화 등의 민속 문화 전반으로 그 관심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때 현대 사회에서의 민화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이 가능해지고 대중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²⁰⁾ 중국의 어민화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근대 이후 민화가 일반인들의 관심대상이 된 것은 1970년대부터다. 치졸하면서도 순진 소박한 표현기법, 담대하고 강렬한 원색의 채색 효과 등 민화적 표현방식들을 창작활동에 수용해온 화가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윤보 김기창과 박생광이다. 서양화가 중 오승우나 전혁림도 민화적 세계관을 수용한 경우다.

나아가 주목할 것은 온갖 문양들을 포섭하는 민속학적 접근으로부터 이른바 서양화라 호명되는 작품들의 민화성에 대한 것이다. 본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의미있게 조망해본 것은 전혁림의 도전들이다. 전혁림이 <문자가 있는 그림>이나 <병풍>에서 문자인 한자를 화면에 도입한 것은 민화 상징체계의 차용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종종 사용하는 壽나 福같은 한자는 지시 대상과의 시각적 유사성은 없지만 민화의 다른 도상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자의의 산물인 상징 기호이기 때문이다.²¹⁾ 전혁림이 천착한 민화적 소재는 자수, 조각보를 포함한 민예품 전반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사용한 푸른색, 그리고 바다를 상징하는 수많은 컨셉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이것이 통영과 바다를 민화적 기법으로 드러내는 해양관념이며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는 예술세계라 생각한다. 마치 중국의 어민화가 그들의 전통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꿈들을 푸른색에 담아 마을 담벼락에 남기는 것처럼.

현대적 기능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통영시가 전혁림을 내세워 각종 벽들을 전혁림의

20) 허균, '민화 대중화, 생활화에 대한 제언', "제1회 한국민화유지엄포럼, 민화의 대중화 방안 모색", 한국민화유지엄, 강진군, 2015. 5. 1(금). 14쪽.

21) 조수진, '전혁림의 다른 추상: 한국성의 탈근대적 구현', "미술사학보" 45, 243쪽

타일화로 치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 소개한 중국의 어민화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가 전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화는 순수 감상용 회화가 아니라 벽사진경, 장생복락 등 소박하고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을 담아 생활 주변을 상서롭게 치장할 목적으로 그려졌던 그림이다. 그림이 가진 의미와 내용이 중요시된 생활미술이었다. 민화 속에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천성을 자극하는 천진함, 인간적인 소박한 믿음과 꿈같은 소중한 아름다운 서민들의 정서가 바닥 깊숙이 깔려있다.²²⁾

이것이 현재, 여기, 우리에게 그대로 기능하는 민화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민화학회의 회원들이 방대하게 늘어나 이른바 민화열풍이 불었던 것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한 형제로 호명되던 민요나 민속, 혹은 판소리 등은 박물관의 진열장 속에 들어가 전혀 현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이 글을 시작한 사실상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마치 민화처럼 민요, 민속, 판소리 등의 예술도 그 현재적 기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할 시점이라는 뜻이다.

20세기 초 야나기가 제안했던 미학으로서의 ‘동양’이 동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갈라 변별적 특성들만을 추구한 것이었다면 지금, 여기,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민요, 민속과 동행할 민화와 관련하여 황당한 제안들이 필요한 때다. 마치 안중근이 동아시아 변혁기에 제안했던 동양평화론처럼, 예컨대 전쟁을 막고 동아시아 전체 민중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으로 피드백 되는 그런 제안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마당, 전 세계적으로 다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마당에 자국의 특성만으로 혹은 동아시아의 특성만으로 도래할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이를 민화라는 민간예술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목화가 동양의 특별함이었다면 민화는 오히려 세계 보편의 민중 지향을 담지한 예술이란 점을 부각시키고 그 보편성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이 긴요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민화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해 다시 주목한다. 적어도 한중 나아가 한문문화권의 동아시아에서는 공유하는 민화적 컨셉이 존재해왔다. 중국의 어민화와 제주도의 문자도가 더 나아가 전혁림의 서양화가 해당 해역의 특성을 가지고 변별적으로 기능해왔지만 넓게 보면 그것들을 관통하는 컨셉들이 있다. 기호와 색깔과 또한 신화들을 담아내는 기능들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컨셉들이다. 마치 신화와 노래 장르 속에서 공유되는 풍속들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나는 이 소재들을 통해 국가가 하지 못할 일들, 금 그어 땅 뺏고 경제적 이득이란 이름으로 경쟁하는 국가체제 말고 동아시아 민중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전망을 해본다. 민중의

22) 허균, “허균의 우리 민화 읽기”, 대한교과서(주), 2006. 285쪽.

예술이라고 호명되고 또 그 꿈들을 담아낸 것들이 정녕 민화라면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래전부터 이미 그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리 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민화가 가진 시대비전이고 오늘 검토해봤던 해양관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화가 가진 민족성이나 유교주의적 관점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재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동양미, 한국미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정의하는 일 만 큼이나 비교, 교류, 상호영향작용,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²³⁾ 이제 동아시아의 미학적 전거로 회자되던 묵향문화와도 변별적인 민화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민화를 통해서 안중근이 말했던 호혜평등의 동아시아 평화론을 말할 수 있겠노라고 하면 너무 나간 것일까?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의 평화와 행복을 공유할 비전을 만들어낼 지점에 서 있다. 민화에 들어 있는 해양 관념이 그 문제들을 풀어갈 작은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23) 이인범, '미술사와 민족국가주의', "미술사학학보" 31집, 2008, 전반적인 내용 참고.

요트 세계일주를 통한 국가홍보 사례와 해양레저문화 활성화 방안

김 승 진 ■ 해양모험가/팀아라파니 대표

1. 대국민 관심 확대를 위한 빅 이벤트-세계 최고를 향하여!

- 해양레저문화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화제가 될 수 있는 빅 이벤트 필요
- 국내 최초로 단독 무기향 요트세계일주에 성공한 ‘팀 아라파니’는 다양한 해양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해양레저문화의 저변 확대 노력
- 입상 가능성이 높은 개인전 요트 레이스 참가
 - 세계 최고 대회에서의 우승을 목표로 도전
- ① 방데글로브 (Vedee Globe - single handed 60ft)
 -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단독 무기향 세계일주 레이스
- ② 바르셀로나 월드레이스 (Barcelona World Race - double handed 60ft)
 -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2인 무기향 세계일주 레이스

2. 국내외 요트 관련 수요의 추이-아시아 요트 허브의 가능성

- 대한민국 주변의 요트문화 현실
 - 극동지역의 러시아 요티들은 부동항을 찾아(겨울철) 부산 등지의 마리나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영역은 동남아시아의 태국까지 이어져 있다.
-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동남아시아로 모여든 요티들은 일본에서 머무르다 동남아시아로 되돌아간다.
- 인프라 이용요금이 비싼 일본의 요티를 유혹하고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 요트 인구의 관광 유입에 대비한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 이러한 잠재적 수요는 대형마리나 건설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매력적인 마리나 확보가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3. 요트제조산업의 육성

- 세계 요트업계의 틈새 시장 공략
 - 대규모 프로덕션 요트 시장은 투자 규모대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어렵다.
 - 소규모 고부가가치 제조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
(호화 요트와 레이싱 요트는 주문에 의한 수제로 소규모 공장에서 제조 가능)

예) 뉴질랜드 타우랑가에는 최고 권위의 세계적 대회 방데글로브나 볼보오션레이스, 아메리카스컵 등에 출전하는 레이싱요트 제조 가능

4. 실용적 마리나 건설을 위한 제안

- 마리나 건설의 중요 키워드
 - 각 지역 요트인의 여건을 고려한 컨셉 있는 계획이 필요
예) 뉴질랜드 타우랑가라는 도시가 요트 산업과 은퇴도시로 성공
 - 요트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마리나 여건 조성
 - 고령인구의 증대 : 은퇴 후, 요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마련
- 마리나 건설에 관련한 시행령 혹은 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 마리나 건설의 주체가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실행주체에 관계없이 활용도가 높은 일정수준의 마리나 건설을 위한 규정 필요
(설계와 감리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예) 설비

- 방파제의 높이와 형태의 규정
(태풍과 풍랑, 선박 통행시 발생하는 파도가 마리나로 유입되어선 안 된다)
- 계류장 길이와 폭의 비율(통로 포함, 선박 크기의 추이와 안전 등을 고려)
- 선박을 최소 네 방향에서 고정할 수 있도록 폰툰 사이에 별도의 기둥 설치
- 임시 폰툰(방문객의 체크인, 주유 등 일시적 사용을 위한)의 의무화
- 야간 안전을 위해 폰툰 통행로에 조명설치 의무화
- 요트 대형화 추세에 따른 대형 요트 정박이 가능한 규모의 폰툰 설치
- 대형 무빙 크레인의 도입으로 육상계류장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요트 대형화 대처
- 수도 및 전기의 상시공급, 샤워실, 세탁실 등의 의무화

예) 실행

- 계류장 길이(폰툰 고정용 기둥)를 벗어난 정박 허용불가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
- 마리나 정박 요금의 부과기준
(선박의 길이가 아닌 폰툰의 길이로 정하는 것이 상식적)
- 마리나 인프라 이용 시, 적정한 요금 부과
-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문화 공간으로서의 활용 필요

○ 무어링 마리나 설치의 제안

- 건설 기간이 짧고 저비용으로 설비 가능
- 급속히 늘어나는 수요에 신속한 대처 가능
- 마리나 건설 이후에도 서민 수요자의 이용과 활성화에 기여

○ 안전항행을 위한 제안

- 야간항행을 위한 항로 표시등의 적극적 설치
- 어장의 경광등 설치 의무화
- VHF무선의 적극 활용 : VTS 혹은 국민안전처와 소형 선박간의 소통을 일상화/
24시간 기상상황 방송
- 낙선자 구출 교육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임 용 곤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우리나라의 해양 여건은 3,358개의 유·무인도서와 14,396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6조원의 생태적 가치를 생산하는 갯벌자원과 지리적으로 천혜의 항만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해상운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1세기 환황해권 해양 신산업 구축을 도정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기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용 및 개발을 통해 해양을 충청남도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기획하고, 지리적 여건에 맞는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정책적 전략기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환황해권의 중심에 있는 충청남도의 지리적 여건과 해양 신산업 발육을 위한 연계산업 여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갯벌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가장 큰 바다 매립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이 인접해 있다는 해상 교통의 유리한 입지 조건과 환황해권 특유의 다양한 수산 부존자원이 풍부하다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접한 내륙의 산업적 여건으로서는 5대 전략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디지털 영상, 인쇄전자), 3대 연계산업(2차 전지, 기능성화학, 기계부품) 그리고 연안 시·군에 약 6만여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등 발달된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머드, 염전, 갯벌 등 특색 있는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접 연구 인프라로서는 2014년 4월 개관한 국립 해양생물자원관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와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황해권의 입지적 여건과 환황해권 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해양 신산업 발전을 위한 2개의 전략산업 분야를 제안합니다.

우선,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 해양 치유자원인 갯벌과 머드, 염지하수 등을 활용한 마린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을 권장합니다. 마린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마린 바이오 유용 생물 소재 발굴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여야 하며, 해양 헬스케어 시범단지 국가사업 유치, 해양치유연구센터 및 해양 헬스케어·휴양시설 조성 지원 등 산업화 기반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장 시설산업 및 해양 레저 선박 산업의 육성을 권장합니다.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바다 매립지에 해산물 양식 산업이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을 뒷받침 하기위한 차세대 기술을 융합한 Smart Fish Farm과 같은 해양 정보통신 기술 기반 양식장 시설 산업과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중소조선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관련 부품 산업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수산식품 가공 산업, 해양 공간이용 산업, 어선 및 어구의 현대화 산업, 해운물류 거점사업 등 많은 환황해권의 유망 신 산업이 많이 발굴되어 성장 동력의 동력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토론문

동아시아의 역사 공간 ‘황해지중해’를 읽고

윤 재 윤 ■ 대구대학교

발표를 맡으신 권덕영 교수님은 『고대 한중외교사』,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신라의 바다 황해』 등의 연구 성과를 통해 황해나 환황해교류 등의 성격 규명에 뛰어난 업적을 발표하신 바가 있다. 페르낭 브로델은 그의 저서 『지중해』에서 “바다는 과거의 생활에 존재하는 최고의 자료이다”, “바다는 문화와 인간 역사를 담고 있는 포괄적인 전존재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해양사관이야말로 거시역사학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즉 민족사에서 지역사로, 지역사에서 지구사로, 정치사에서 문화사로 전화되어가는 대세에 해양사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사관은 세계화와 지구화로 상징되는 시대적 흐름과 궁합이 맞는다. 따라서 발표자의 역사공간으로서의 황해라는 주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토론자는 발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의는 없으며, 다만 향후 연구나 연구 성과의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이나 궁금한 것을 문의 드리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동아시아의 역사 공간인 황해를 역사 환경과 지중해적 성격으로 크게 나누고, 역사 환경은 자연과 인문 환경으로, 지중해적 성격은 유럽지중해와의 비교를 통해 검토를 했다. 이를 통해 황해의 인문 환경의 주요 요인으로 문명과 문화의 격차, 중화사상, 북방 유목민의 이주, 황해로 유입되는 강가의 문명도시 형성 등을 언급했다.

우선 황해의 지중해적 성격이 브뤼네의 지중해 공간모형 가운데 광원모형(the focal model)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황해의 인문환경에 이주나 이산 등을 통한 디아스포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유럽지중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황해를 통한 다양한 문명의 교류를 설정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황해 주변의 다른 문명 예컨대 이슬람, 유목문화와의 교류에 대해 혹시 발표문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주제는 문화컨텐츠의 특성인 ‘One source Multi use’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대세인 학제간이나 융복합 연구에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발표주제와 관련된 학제간이나 융복합 주제에 대해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윤선교수의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개념”에 대한 논평

정 병 모 ■ 경주대학교 교수

이윤선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서 환황해권, 해양성, 어민화 등 그동안 민화연구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화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도 밝혔듯이, 아직 이러한 키워드를 흡족하게 밝힐 만큼 연구가 진척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교수님의 보충설명을 들어보고자 한다.

환황해권은 민화에서는 낯선 개념이다. 동아시아나 한자문화권과 같은 권역은 필자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사용한 바 있으나, 환황해권은 민화연구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다. 이 권역 안에 주산군도 어민화, 제주도 문자도, 무신도 등을 포함시켰다. 이들 민화가 환황해권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얼마나 유의미한 개념인지 보충설명해주기를 바란다.

민화에서 해양성을 밝힌다는 것은 새롭고 흥미진진한 문제제기다. 결론에 해당하는 ‘4. 민화적 변용과 환황해권의 비전’에서 해양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니, “해양정신을 기반으로 한 개방적인 미”라는 말이 그에 부합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논의가 없는데 갑자기 결론에 등장하여 당혹스러운 마음도 든다. 과연 해양정신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방적인 미인지 궁금하다.

어민화는 중국의 전통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19세기 유럽에서 전해진 농민미술(peasant art)의 파생어로 보인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윌리엄 모리스가 미술공예운동을 벌이고 소수가 아닌 대중을 위한 미술인 the art of peopl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영향을 받아 할스미어 Haslemere에서 조셉 킹(Joseph King), 곤프레이 블라운트(Godfrey Blount) 등이 농민미술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운동은 20세기 전반 일본에 영향을 미쳐서 야마노토 가나에(山本鼎, 1882-1946)가 나가노현 가미카와 마을에서 농민미술운동을 일으켰다. 따라서 중국의 어민화나 농민화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전한 현상이자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다 연구가 진척되어 민화 속의 해양성이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 위원장

강봉룡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장)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최미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장호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상임위원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곽유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기중 (당진시청)
조이현, 김형서 (세한대학교)
송두범 (충남연구원)
오석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학술 및 분과위원

최성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김애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심재영 (세한대학교)
김경옥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김재은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곽수경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이혜연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답사위원

민정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홍순일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사무국

임은옥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황일남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 1 전체회의 [기조발표 / 주제발표 / 토론]

찍 은 날 _ 2016년 7월 2일

퍼 낸 날 _ 2016년 7월 6일

주최 · 주관 _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후 원 _ 충청남도, 당진시,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재단

